한국전력공사 공인협약업체 한국전기안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 식당, 병원, 목욕탕, 숙박업소, 관공서, 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쓸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지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1월 13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06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사찰재정 비공개

경기도 지역에서 포교당을 운영하는 한 스님이 전하는 사찰의 재정운영 현황. "내가 아는 한 관람료 사찰의 경우, 관람료 일부와 불전함, 불공금, 인등비, 재 등이 주요 수입원인데, 사찰의 정확한 수입 규모는 주지스님밖에 모른다. 그러다보니 포교, 교육, 사회사업은 엄두도 낼 수 없다."

왕시불교 시기의 삼보정재 관리의 이념적 토대는 '개인 소유의 금지와 공유재산제도'였다. 이같은 이념은 이후 불교공동체의 생산활동을 허용하기도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삼보정재는 결코 개인의 소유로 인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이라는 이념에는 변함이 없었다.

개인소유의 금지와 공유재산 제도는 당연히 재정과 관련된 것의 공개를 전제하는 것이다. 조계종의 경우, 94년 개혁종단이 들어서며 종단적 차원에서 삼보정재 관리의 이념을 사찰운영위원회라는 제도로 구체화했다. 그러나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으나 시행하는 사찰은 몇 곳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정은 변하고 있다. 재가신도들뿐만 아니라 스님들도 사찰재정 비공개를 불교발전의 큰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다.

이미 공개운영하는 곳도 많다. 천태종의 경우 주지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은 사찰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포교, 법문, 신행상담에 전념하며, 재정관리는 전적으로 신도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신도회에서 예결산을 논의하고 의결하여 총무원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경기광명의 조계종 금강정사(주지 지홍)는 스님과 신도 15명으로 구성된 사찰운영위원회에서 재정을 비롯 사찰의 운영을 논의, 결정한다. 월별, 분기별, 년간 보고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제도가 없어서 안되는 것이 아니다. 시작만이 남았을 뿐이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종단 전산화사업 '열기'

조계-천태-진각-총지종 등 올 주요사업 추진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각 종단의 전산화 사업이 새해를 맞아 알차게 준비 되고 있다.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총지종 등 각 종단은 올 한해 동안 종무행정 전산화를 실현해 행정 전산화 체계를 완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종단 홍보에도 상당한 업무력을 모을 방침이다. 종단 차원의 전산화 작업이 정보화 사회에 긍정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행정과 포교의 현대화를 이루기 위한 기본 여건이라는 인식이 정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부터 불교종합정보망 달마넷을 통한 불교 정보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계종은 올 해 5백여 전통사찰과 모범 포교당의 정보를 담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계종은 4월경 달마넷의 공식 서비스를 개시하고, 8월경에는 종무행정 전산화 사업도 상용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오는 4월부터 전국사찰과 복지시설 정보를 담은 불교복지정보지원센터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천태종도 작년 7월부터 진행해 온 인터넷 홈페이지 작업의 범위를 확대해 해외홍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총본산인 구인사와 전국의 사암을 잇는 종무전산화 시설도 갖추게 된다.

진각종의 전산화 사업도 종무행정 전산화와 각단체 홈페이지 구축이 핵심. 진각종은 풍리원의 전산실을 주축으로 종단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종단종합정보센타를 운영할 계획이다. 종합정보센터는 인터넷과 공중전화망을 통해 종단산하기관들의 주요행사와 신행활동 관리, 신도관리 등을 총망라하게 된다.

총지종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마무리 짓는대로 종무전산화로 관심을 옮겨 갈 것으로 보인다. 또 태고종, 관음종 등 각 종단들도 21세기를 준비하고 종단 홍보, 업무효율화 차원에서 전산화 작업을 기획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따라서 2천년을 앞둔 올 한해는 각 종단들의 전산화 열기가 어느해보다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새 희망을 열겠습니다" 상처를 딛고 새 집행부를 출범시킨 조계종이 총무원 청사에 사과와 희망의 의지를 담은 현수막을 걸고 종단 안정과 화합의 길 닦기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 취임법회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고산스님 취임법회가 10일 오후2시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타종과 헌화로 시작된 취임법회에서는 원로의장 혜암스님이 법어를 했으며 종회의장 법등스님과 신나균 문화관광부 장관, 범불교연대회의 박광서 공동대표가 축사를 했다. 특히 김대중대통령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차주상보>

이에앞서 조계사에서는 오후1시부터 종단안정과 개혁을 위한 범불교도연대회의가 개최한 '참회와 개혁, 그리고 정진을 위한 제2차 범불교도대회'가 열렸다. 범불교도대회에서는 참가 대중이 참회의 연비의식을 봉행하기도 했다.

임연태 기자

정화회의 의장직 벽암스님 사퇴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벽암스님(신원사 조실)은 정화개혁회의 의장과 구룡사 원로의원모임에서 추대한 원로회의 의장직을 사퇴했다.

스님의 회 측근은 7일 "이미 지난 12월초 정화개혁회의 의장직 사퇴서를 냈다"고 밝히고, "54년 정화불사에 동참했던 스님은 정화개혁회의가 시작될때 종단정화에 보탬이 되고자 뜻을 내셨으나, 대립과 분규까지 가는 상황은 바라지 않으셨다"면서 "종단 화합을 위해 정화개혁회의 외에 관여치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위영란 기자

조계종 138회 종회 21일부터
포교원장 선출등 13개안건 상정

조계종 제138회 임시종회가 21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종회의장단과 각 상임분과위원장은 7일 오전 11시 연석회의를 갖고 종회 일정과 13개의 안건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종회에서는 조계종 사태와 관련, 국민과 종도들에게 드리는 사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선출과 총무원 호법부장 임명동의도 다뤄진다.

이번 종회는 종단사태로 다루지 못한 98년 종무감사와 99년 예산승인의 건, 98년도 추경예산 승인의 건 등 다루게 되며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위원이 새로 선출되고 재심호계위원 보궐 선출도 이뤄질 전망이다. 종회는 또 법인대책특별위원회와 해종행위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법인대책위는 선학원을 비롯한 종단내 법인들에 대한 문제를, 해종행위 조사특별위원회는 종단사태와 관련한 진상조사를 전담하게 된다.

이밖에도 종단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보고와 재3교구 말사 화암사 임대 진상조사및 해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조사 확인 등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임연태 기자

현대불교신문 새기획-새연재

현대불교가 1999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모습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불교를 이끄는 올곧은 신행지 '현대불교'는 한국불교를 새롭게 세우는 지표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새 천년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치자 50제

한국불교가 새 당간지주를 세우기 위해서는 뿌리깊은 구습을 과감히 타파해야 합니다. 교계인사 50인이 선정한 50과제를 매주 한 주제씩 지상 캠페인식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경전속의 禪사상

경전속에 깃든 선사상과 그 경이 지닌 핵심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禪과 敎가 둘이 아님을 확인 하는 기획입니다.

에드워드 콘즈의 지혜의 길

반야계 경전을 연구한 영국의 대표적인 불교학자 에드워드 콘즈의 명강의 입니다.

2천년을 여는 불교 지상포럼

환경, 자원고갈 등 21세기 지구촌의 위기현상을 월 1회 진단하고 불교적 해법을 제시하는 대형 시리즈 입니다.

가람의 장면들

'99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전국가람에 숨어 있는 건축적 가치와 의미 그리고 그 속에 깃든 교리를 되새겨 봅니다.

절마다 도서실을 만들자

절마다 도서실이 있으면 불자들의 신행을 바르게 이끌 것입니다. '우리절에 불서 한권 보내기'와 함께 펼칩니다.

과학산책

물리학, 의학, 생명공학, 천체 이야기 등 새로운 과학정보를 소개합니다.

선방일기

1973년 <신동아> 논픽션 부문에 당선된 김지허스님의 <선방일기>는 동안거 선방풍경을 영상처럼 보여줍니다.

명사들의 건강비결

불심이 깃든 명사들의 건강비결은 독자여러분의 건강관리에 귀감이 될것입니다.

제4회 신행수기 당선작 시상식
때: 1월 25일 오전11시 장소: 한마음사랑방(본사지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기존거래 없이도 빠르고 공정하게 대출해 드립니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천화 051)633-9120~3
불교신협 부산동구 범일2동 834-20

- 희망과 화합의 종단을 이룩하기 위한 -

봉 대한불교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축
고산 스님 취임법회

지난 시기의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승가화합과 종단발전을 구현시키고자 하는 원로, 대덕스님과 사부대중의 염원에 힘입어 새롭게 선출된 대한불교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고산 스님의 취임법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부디 동참하시어 안정과 화합 그리고 지속적인 개혁의 과제들을 타개해 나가는데 사부대중의 의지와 열의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불기 2543(1999)년 1월 10일(일요일) 오후 2시
■ 장 소 : 대한불교 조계종 직할교구본사 조계사

대한불교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취임법회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도법, 전화 02-735-5861~2, 전송 02-720-3302)

사 설

조계종 새 집행부에

지난해 말 일어난 조계종 사태는 전체 종단을 위시한 사부대중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아니, 불교계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떠안긴 정신적 공황은 더욱 심대하다. 불교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퇴락하고 소실되어 가는 전통적 가치의 보루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 여여한 등불이 철망과 방화, 각목과 화염병 속에서 빛을 잃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절망은 이르다. 진흙에서 연꽃이 피어난다고 했다. 이전투구의 아수라장을 딛고 조계종의 새 총무원장이 선출되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패자의 흔쾌한 승복이 그동안의 절망을 다독거려 준다. 느낌이 좋다.

10일 제29대 총무원장 취임법회도 치렀고, 새 집행부의 진용도 갖추어졌다. 새 총무원장을 위시해 집행부가 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찢겨진 대중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서로 다른 이해집단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것이 급하다. 그러나 포용과 용서만이 능사는 아니다. 최대한 화합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정확하게 묻고, 상벌을 엄정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여법하지 않은 권승들이 종단운영을 기웃거리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 이 참에 빌미가 된 선거와 조직에 관한 법률도 합리적 절차와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손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승풍의 진작이다. 권승들의 난장이 한창일 때도 한켠에선 청정한 수행의 기풍이 퇴색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 한국불교만큼 명암이 뚜렷한 전통은 다시 없다. 불법 점거가 한창일 때 어느 텔레비전은 서양의 눈푸른 납자들이 만행과 정진을 위해 이 땅을 찾는 것을 비쳐주었다. 그 장면에 가슴을 꼭 쓸어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한국불교의 희망이 거기에 있다. 수행과 법력으로 다져진 권위가 힘을 얻을 때 종단의 분규 또한 잦아들 것이다.

다음으로 사찰의 재정문제이다.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는 만큼 새 집행부는 당분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선의 전통은 본래 철저한 자립을 근간으로 한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一日不作 一日不食)"가 선의 규율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자력과 독립이 아니라 의존과 지원에 생존을 맡기고 있는 형편이다. 선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토이다. 이 괴리가 현금의 갈등과 분규의 진원지라면 지나칠까.

급속한 경제성장의 여파로 시주가 풍부해졌고, 국립공원과 연계된 교구본사들은 과연 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이 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하느냐에 새 집행부의 성패가 달려 있고, 아울러 향후 불교의 사활이 걸려 있다.

이제까지 이 정재들은 주로 하드웨어에 투자되었다. 전각을 늘이고 단청을 새로 칠하는데 쓰였다는 말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이다. 인재를 키우고 경전을 현대화하며, 미래정보화에 자원을 집중 투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개인적 치부나 공연한 낭비로 정재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관건은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합리성이다.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을 감시하는데 인색할 이유가 없다. 종법 또한 이를 위해 사찰운영위를 명문화하고 있는데 웬일인지 유야무야되었다.

이 모든 일은 여법하게 자신을 비우는 회향(回向)을 통해서만 이야될 수 있다. 새 총무원장을 비롯한 조계종 집행부에게 비상한 각오를 다져달라는 당부를 간절하게 띄운다.

'21세기준비' 한목소리 각종단·단체 새해다짐

불교계 각 종단과 단체들이 새해 업무를 시작하며 새로운 희망을 다졌다.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21세기를 맞을 준비에 매진한다는 것이 각 종단과 단체의 새해 다짐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4일 오전 9시 조계사 법당에서 시무식을 갖고 빠른 시일내에 종단 화합과 안정을 이룰 것을 서원했다.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업무를 시작하며 종무원들에게 "종단적 아픔을 속히 치유하고 온 국민이 사랑하는 불교가 될 수 있도록 어느해 보다 정진하는 자세를 갖자"고 당부했다. 태고종도 6일 11시 서울 태고사 종무처에서 총무원장 인곡스님등 종무원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새해 사업으로 상정된 사항들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4일 신년하례식을 겸한 시무식에서 불교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여법히 진행해 나간다는 의지를 다졌다. 동국대학교도 4일 학술문화관 대각전에서 시무식을 가졌다. 송석구 총장은 시무식에서 "99년은 학교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학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당부했다. 불교방송과 불교TV도 4일 신년하례식을 통해 재정구조의 개선과 미디어 포교사의 역할 수행에 더욱 매진한다는데 마음을 모았다. 4일 신년법회를 가진 우리는 선우는 "겸허한 반성과 건실한 수행으로 거듭나자"고 다짐했다.

부산불교연합회와 부산불교신도회는 6일 신년하례법회를 함께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부산지역 불자들은 개인의 건강한 수행활동을 통해 지역 불교가 활성화 되도록 하자고 원력을 모았다. 대구경북지역 스님과 신행단체장 150여명도 6일 신년 상견례를 갖고 갈등과 반목을 일소하고 지역 불심을 통합해 한국불교 중흥에 일조할 것을 발원했다.

전북사암연합회는 6일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참석자들은 올 한해 동안 실직자와 무의탁 노인, 북한어린이 돕기 모금화동을 활발히 전개해 대중속으로 한발 더 다가가는 불교를 만들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날부터 모금활동에 들어갔다. 제주불교총연합회와 제주불교관음클럽도 6일 신년하례법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역내 5개종단 대표와 신행단체장, 우근민 제주도지사 등 기관장들이 참가한 이날 법회에서 제주지역 불자들은 "화합과 제주불교 중흥의 해를 다져 희망의 2천년을 맞이하자"고 서원했다.

합동취재팀 (ytlim@buddhapia.com)



◇대구 경북지역 스님·신행단체장들은 6일 신년 상견례를 갖고 새로운 희망을 다짐했다.

조계종 인사

총무부장-원택스님
기획실장-만성스님
재무부장-일철스님
문화부장-양산스님
사회부장-성조스님
호법부장-종고스님


◇원택스님


◇만성스님


◇일철스님


◇양산스님


◇성조스님


◇종고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4일과 6일 총무원 각부서의 부장과 실장 국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 임명장을 수여했다.

총무부장 원택스님은 72년 해인사에서 성철스님을 은사로 득도, 경복고와 연세대 정외과를 졸업했다. 백련문화재단 이사장, 불교출판인협의회회장 등을 맡고 있다. 기획실장 만성스님은 68년 선암사에서 법성스님을 은사로 득도, 동국대 승가학과를 졸업했다. 총무원 포교국장, 사회국장, 기획국장, 조계사 교무를 역임했다. 재무부장 일철스님은 75년 송광사에서 보성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제방 선원에서 수행했다. 문화부장 양산스님은 63년 진경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현재 사회복지시설 양지마을의 시설장을 맡고 있다. 사회부장 성조스님은 63년 정대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호법부장에 추천된 종고스님은 69년 도광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석천사주지, 화엄사 총무, 재무국장을 거쳐 현재 천은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각 국장은 다음과 같다.

총무국장=중현스님(쌍계사) 사서차장=효찬스님(쌍계사) 기획국장=법승스님(백양사) 감사국장=정오스님(해인사) 재정국장=진효스님(범어사) 사업국장=정인스님(범어사) 문화국장=덕신스님(동화사) 사회국장=설응스님(신흥사) 호법국장=정혜스님(동화사) 조사국장=석칭스님(수덕사) 상임감찰=자현스님(봉선사)·적연스님(불국사)·운광스님(월정사)·심우스님(해인사). ▲조계사 부주지=지홍(전 총무원 기획실장)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정화회의 총무원장 정영스님 선출

부의장에 현수스님

정화개혁회의는 6일 서울양재동 구룡사에서 67명의 정화회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차 본회의를 열어 정영스님(감사 조실)을 총무원장으로 선출했다.

월하스님은 8일 통도사를 방문한 정영스님에게 총무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화회의는 조계사 건너편 서흥빌딩10층에 사무실을 개설키로 했으며, 정화회의 부의장에 현수스님을 선출했다. 집행부 인선은 총무원장 정영스님과 상임위원장 월탄스님이 협의해 구성키로 했다.

정화회의측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정영스님은 7일 기자회견에서 "일부 권력승들에 의해 종정교시와 원로들의 의견이 묵살되는 현실에서 더 이상 산중에 있을 수 없었다"며 "수행과 전법에 충실한 종단이 구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1923년 경남 창원생인 정영스님은 42년 만공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47년 상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해인사, 칠불갑, 대성사, 미래사, 보문사 등 제방 선원에서 20안거 성만했으며, 총무원 총무부장, 마곡사 태화선원 조실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갑사 조실, 원로의원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공권력 관련성명 통도사와는 무관"

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는 구랍 23일 통도사 말사주지 및 신도대중 일동 명의로 발표된 '총무원 청사 공권력 투입에 대한 성명서'는 통도사 본말사의 뜻과는 무관하게 제작 배포된 것이라고 밝혔다.

통도사 포교국장 원천스님은 4일 "말사들에 확인한 결과 그같은 문건을 작성해 발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종단협 신년교례

12일, 올 사업등 논의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하림각에서 신년교례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당연직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종단협은 이날 북한동포 지원사업, 불교사회복지정보자원센터 개설사업 등 일반 사업과 한중일 불교우호교류위원회 설치 등 국제교류사업에 대해 논의한다. 임연태 기자

"종단안정-화합에 힘 보태자"

법장·현근스님 입장밝혀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교구본사주지연합회회장)은 구랍 31일 "고산스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집행부가 하루 빨리 안정과 화합의 자리를 찾도록 본사주지연합회와 수덕사는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밝혔다.

법장스님은 이날 '해명서'를 발표 "일부 언론에 의해 수덕사가 정화개혁회의 측이라는 보도에 대해 유감스럽기 그지 없다"며 "이는 본사주지연합회장으로 종단과 불교가 상처를 덜입는 길을 모색하려던 나의 뜻과 본사주지연합회, 수덕사를 심히 왜곡한 것"이라 강조했다.

전 조계사주지 현근스님도 이날 '조계사 신도 여러분께'란 글을 통해 종단 안정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했다. 현근스님은 이 글에서 "이번 일(조계종 사태)을 계기로 마음을 비우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한다"며 조계사 신도들에게 "종단 안정화와 신심 배양에 힘쓰며 조계사를 이끌어 갈 새 스님들을 여법하게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임연태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밀레니엄버그 없이…

설 립 공 고 (1)

사회교육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불교법사 사회교육원 등록 제2호(1998.8.20) 및 교육원정관 제2장 6조 3항에 의거 법계고시위원회가 설립되었음을 공고함.

1999. 1. 7.

법계고시 최고위원 대승왕 박 청 하 법왕 예하
법계고시 명예위원 승 왕 최 만 선 대화상

위원장 삼장법사 석 동 암 대승정
위 원 의 륜 서 주 범 대화상
위 원 동 원 김 복 연 대화상
위 원 동 진 박 형 규 대화상
위 원 청 용 김 범 열 대화상
위 원 의 천 최 상 복 대화상
위 원 혜 철 이 병 출 대화상
위 원 묘 산 최 복 수 교육원장
위 원 법 왕 자 김 소 부 승왕청 신문사장

주소:울산광역시 남구 무거1동 1238-9 (기원정사)
※ 초종파 대승정, 삼장법사, 대종사, 경사, 율사, 논사, 법사, 포교사 등 법위에 관한
문의전화 (052)249-9988, 248-3119

불교법사 사회교육원 법계고시 위원회
위원장 삼장법사 석 동 암 · 사무총장 법왕자 김 소 부

공 고 (2)

당 법계고시위원회는 1998.12.17일 부산 국제신문 대강당에서 개최된 바 있는 국난극복 희망찬 나라건설 기원 대법회의 요청으로 고시위원회의 소정의 과정을 거쳐 용화불교 교령 김 범 열 대화상에게 국내에서 처음으로 「삼장법사」 법위를 수여하였기에 이를 공고하며 불교신도 여러분께서는 삼장법사에게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표하시길 알려 드립니다.

불교 법사 사회교육원 법계 고시위원회
위원장 석 동 암

"부처님 말씀대로 합시다"

고산 총무원장 기자간담회

"가능한한 중징계 지양"

"내 별명이 조계종 도목수야."

고단한 행자시절과 어른을 모시는 시자 생활을 거쳐 새절 짓기 불사에도 일가견을 이뤄 이 같은 별명을 얻었다는 고산스님. 스님은 총무원장 취임식을 앞둔 7일 교계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종단운영 계획을 잔잔히 들려 주었다.

▲중한 소임을 맡고 서울에 왔는데 나 자신은 변한게 없어요. 모든 일은 수행자의 정신과 자세로 풀어 나가면 잘 됩니다.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행하지 말고 마음먹지 말라는 것에서 출가자의 본분이 시작됩니다. 99년은 9란 수가 둘이 들었어요. 세속에서는 아홉수를 안 좋아 하지만 사실 아홉이란 수는 마침과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종단도 갈등을 마치고 새 희망으로 출발하는 한 해로 만들 것입니다. 현재는 종정이 궐위상태지만 종헌에 의해 곧 훌륭한 어른을 모실 것입니다.

정화회의 가담 스님에 대한 징계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체탈 같은 중징계는 지양하고 심하게는 제적 등으로 조치해 그 분들은 좀 쉬게 하고 싶어요. 또 과거에 억울하게 징계된 분들도 가려서 사면을 해야 화합이 됩니다. 총무원 청사 철거 문제도 거론되는데 나와 인연이 깊은 건물입니다.

92년부터 조계사 주지를 하며 3층까지 지었고 월탄스님이 5층으로 올렸어요. 원로스님들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내가 철거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여러 어른들의 의견을 들어 처리할 생각입니다.

이번 사태 해결에 재가자들의 힘이 컸습니다. 중앙신도회가 잘 되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사찰 운영에 재무 지식이 풍부한 신도를 참여시켜 보다 투명하게 하고 싶어요. 총무원장 임기도 단임제로 하고 선거보다는 추대형식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종단 운영 기회도 더 넓혀 갈 수 있는 때가 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조계종 첫인사는 고른 문중안배로 화합종단 구현의 의지를 보였다는 평이다. 사진은 7일 국장급 임명장 수여식.

조계종 새집행부 인사

문중안배 화합 기대

조계종 제29대 총무원 집행부의 첫인사가 마무리 됐다. 이번 인사는 문중적 안배에 산당히 신경을 썼다는 여운을 남기고 있다. 범어사, 해임사 등 용성문도 관련 6개 본사에 다소 많은 소임이 맡겨진 가운데 통도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본사와 문중이 골고루 새 집행부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장급 인사에서 각 본사별로 2명씩 추천됐었다는 후일담도 이를 잘 뒷받침하는 대목.

이같은 안배적 인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가지다. 하나는 문중과 지역별로 고른 인사가 이뤄진 것은 화합종단 실현이라는 당면 과제를 푸는데 상당한 긍정성을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다. 문중이라는 오랜 전통이 있는 종단 현실에서 각 문중에서 집행부에 동참함으로 종단사태에서 돌출된 여러 문제들을 합의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에반해 문중 안배 차원에서 이뤄진 인사로 인해 종단 사태 수습 일정 등 서둘러야 할 종무일정이 얼마나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새로 구성된 집행부는 일대 혼란을 겪은 종단의 수습을 위해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집행부의 '팀웍'을 추스리는데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조계종. 그 견인차 역할을 맡을 총무원 집행부가 '재출발'의 희망을 창출해 내는 역량을 얼마나 결집시키느냐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임연태 기자

목어 소원성취 하려면

A백화점 1층 출입구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두줄로 길게 늘어서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기묘년 신수를 봐주고 있었다. 신수를 풀어주는 남녀 두사람이나 줄을 서있는 이들은 대체로 20대로 재미삼아 1년을 점쳐보는 표정이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희망의 새 설계를 하는가 하면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 하기도 한다. 점을 보는 집은 그런 기대와 불안한 마음을 유혹한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점집문전에 사람들 발길이 잦다.

A백화점의 신수봐주기 풍경과는 달리 올 신년초 점집에는 40~50대 남성들이 많이 드나든다고 한다. IMF가 점집의 주고객을 주부 또는 젊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꿔놓았다. 그 남성 고객들은 자기 개인 운세에 앞서 나라운세를 먼저 묻는다고 한다.

"올해 우리나라 운세는 어떻습니까"

"IMF는 언제쯤 끝날까요"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나라운이 좋아야 침체된 경기가 되살아나고, 실직자도 줄고, 사업도 풀릴 수 있다고 국운에 희망을 걸어보는 그 마음을 누가 이해 못하겠는가.

그러나 잘 생각해 보자. 개인의 흥망이 국운과 직결돼 있다고 보아 나라운세를 점친다면 답은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모두 크고작은 자기일에 최선을 다해 IMF 극복에 나서, 개개인의 운이 점차 좋아지면 곧 나라가 흥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라운세에 기대기보다 먼저 자기운세를 스스로 가꾸자. 자기 확신을 갖자. 자기를 믿고 꼭 이루겠다는 신념으로 발원을 구체화하고 일의 성취를 위한 기도를 하자. 그러면 힘이 솟고 노력이 나오고 가피를 입을 수 있다. 좋은 운은 그렇게 가꿔진다.

부처님께서는 점복으로 어리석음에 빠지거나, 빠뜨리는 일을 '지옥에 갈 짓'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소원성취의 방법을 묻는 파세나디 왕에게 이렇게 일러 주셨다.

"그것은 오직 한가지 게으르지 않는 것 입니다. 누구나 방일하지 않고 부지런하면 현세의 소원을 성취하고 후세의 소원을 성취할 것입니다. 모든 소원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방일에 의지하지 말고 불방일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창고의 재물도 늘어나 풍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잡아함 불방일경〉

주요종단 총무원장에게 듣는 새해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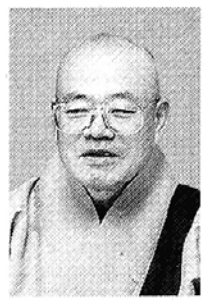
각 종단들은 새해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을까.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각 종단들의 새해 사업은 종단 체제의 정비와 정보화 사회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요약된다. 조계, 태고, 천태, 진각, 관음종의 새해 사업을 각종단 총무원장들에게 들었다.

조계종 개혁과제 풀면서 문화세기 대비

조계종은 올 상반기 동안 종단 사태로 흐트러진 종도들의 애종심을 다시 모으는데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다.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모든 개혁과제들은 법적인 절차를 존중하며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종단 사태로 돌출된 종단내 법적 구조적 갈등을 종헌종법에 따라 풀어 갈 것이라 밝혔다.

조계종은 중앙신도회 조직을 정비해 활성화하고 복지사업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조계종의 전산화 사업은 종무행정전산화와 불교종합정보망 달마넷의 구축으로 가닥이 잡혀 있다. 종무행정 전산화는 6월까지 프로그램 설계를 마치고 8월부터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게 하는 것이 목표다. 달마넷 사업은 5백여 전통사찰과 모범 포교당의 정보를 망라하게 된다.

조계종은 문화의 세기를 대비한 외국인 대상 불교문화프로그램 개발, 승가복지대책 수립, 승려 연수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포교인력 및 조직강화 대책 마련, 해외교류및 포교 영역확대 등의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고산 총무원장

태고종 포교·교육 역점…복지법인 설립

태고종은 올해 종단의 체질개선과 혁신을 기하고 정통종단의 위상과 대승교화종단의 이념을 제고할 계획이다. 총무원장 인곡스님은 이를 위해 "선암사 성역화 불사에 박차를 가하고 각종 연수교육을 통해 종단관을 확고히 하는 한편 포교와 교화능력 배양을 위한 각종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승불교의 사회적 실천을 통한 종단의 사회성 제고를 위해서는 청소년수련원과 사회복지관 수탁운영 등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관장할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종단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역대 종정 계보와 사찰현황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안내책자 발간사업과 종조인 태고보우국사의 생애와 종지종풍을 밝히는 법어집 발간, 한국불교 법난사를 밝히기 위한 세미나, 종전편찬 등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옥천 범음대학을 통한 전통불교문화 이수자 육성과 봉원사를 중심으로 한 정기적인 영산재 시연 등 특성을 살려 종단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정통불교문화의 저변확대에도 힘쓸 방침이다.



◇인곡 총무원장

천태종 금강대학 건립-30여 사찰불사 매진

천태종은 97년 정규대학 인가를 받은 금강대학 건립추진과 사회복지사업, 사찰건립불사 등 사회참여를 통한 교세확장에 매진할 계획이다. 동남아 불교국가들과도 교류를 확대 강화할 방침이다.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올해에는 97년 정규대학 인가를 받은 금강대학의 교사를 건축하고 2천년에 입학생을 맞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관 및 어린이집, 노인회관 등 복지시설의 수탁운영 방안을 모색, 종단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한다. 이와관련 재단법인인 종단이 복지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정관을 고칠 방침이다. 운덕스님은 또 "총본산 구인사에 건립중인 조사당을 올 봄에 낙성하는 등 전국 30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불사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홈페이지 제작에 들어간 이래 1차 작업을 끝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 천태종은 21세기를 앞두고 총본산 구인사와 각 말사를 잇는 종무전산화 시스템 구축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국내외적 종단 홍보에도 나선다.



◇운덕 총무원장

진각종 국제교류 확대-종단 홍보관운영

진각종은 지난해 실직자 가정아동보호시설 선재의 집과 어린이집 수탁운영 등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회 설립이래 올린 개가를 기반으로 올 한해도 복지불사에 매진해 사회적인 종단위상 제고에 힘쓸 전망이다.

성초 통리원장은 "종단 홍보관을 올해 안에 설립하고 종단 C·I 작업 즉 이미지 통일작업 추진도 종단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방안의 일환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초 통리원장은 또 "종단 전산화 사업을 본격 추진해 전국 각 심인당을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종단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위덕대를 비롯한 종립학교와의 전산망 구축사업을 통해 종무행정의 일원화와 포교사업의 체계화를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불교연구소를 주축으로 미국 워싱턴 심인당 설립 및 스리랑카와의 불교교류 확대 등 국제포교사업을 통한 교세확장을 모색할 계획이다. 종조 회당 대종사의 1백주년 기념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성초 통리원장

관음종 교육체제보강 불교저변화 운동

관음종은 2천년부터 '보살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올 한해 승려 및 신도 연수교육을 강화해 종단 내실을 다지는데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관음종이 계획하고 있는 '보살운동'은 불법(佛法)을 사회운영 전반에 확대적용해 불교인이 지역사회의 정신적·행정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불교저변화 운동이다.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종책적으로 △포교와 수행 △합리적인 사찰운영 △지역사회참여 부문에 역점을 둬 종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실천하고 행동하는 승려와 사찰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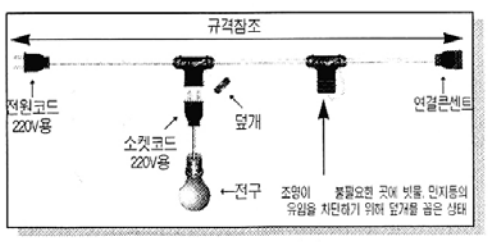
또 홍파스님은 "승려 안거제도를 도입하고 신도 연수교육을 강화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종도상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관음종은 이같은 종단 내실다지기의 일환으로 4층 규모의 교육원을 부처님오신날을 기해 개원한다는 목표로 천안 보명사에 건립 중이다. 또 사회구호활동과 국가안녕과 국난극복을 도모할 수 있는 국제보살계 수계법회를 개최 하는 등 대사회적인 역할도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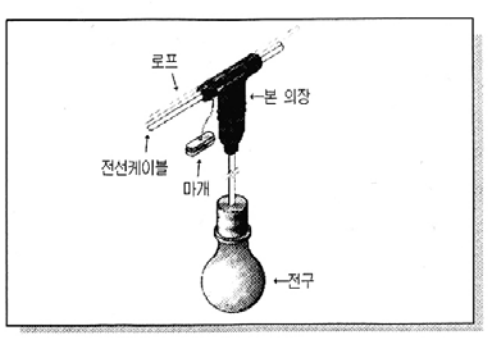


◇홍파 총무원장

붕축행사 가로등·법당 기도등용 전기배선 및 도로 지주용 간판 설치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전법 도생에 여념 없으신 스님의 고귀하신 뜻에 합장 향배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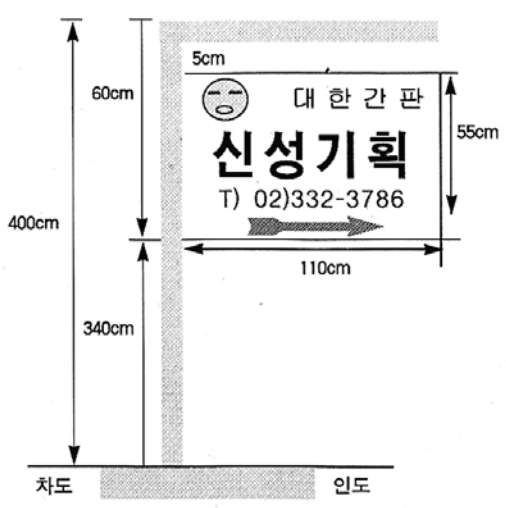


■규 격
등간격 30cm · 50cm →전체길이 25m
등간격 1m,2m,3m,5m→전체길이 50m
기타주문 : 주문제작

■등종류
- 외부용 : 후로킹
- 내부용 : 팔각등
실크후로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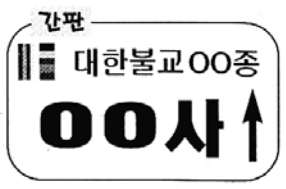
■기타주문
※본사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성기획◑
TEL: 02)3141-3789/02)332-3786
H.P: 019)380-3786
FAX:02)322-3785



취급품목 사찰 안내간판, 사찰 연력판, 천주용 간판, 게시판, 현수막

※ 1차 설치되어 있는 기존간판은 정비, 자진철거 해드리겠습니다. ※



■규격
종로구 80cm×40cm
그외 지역 110cm×55cm
개인소유지 : 제한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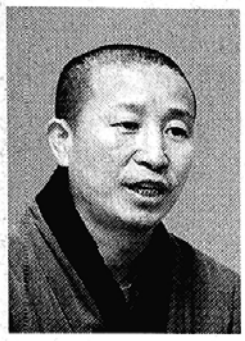
■재질
- 스텐레스 및 G.A 찰핀

■허가 대행 및 A/S

◐신성기획◑
TEL: 02)3141-3789/02)332-3786
H.P: 019)380-3786
FAX:02)322-3785

"새집행부서 종단화합 구현"

조계종 총무원장 대행 41일 도법스님



작년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도법스님은 "새로 구성된 집행부가 종단의 안정과 화합이라는 종도들의 여망을 어김없이 수행할 것으로 믿는다"며 6일 실상사로 내려갔다.

-41일간의 권한대행을 마무리하는 심정은.

▲지난 41일간을 돌아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다. 조계종의 승가대중이 불교적 세계관에 따른 수행의 길을 제대로 걷는다면 이번과 같은 비불교적이고 반사회적인 일은 없었을 것이다.

-사태 수습의 일선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었나.

▲승가가 견지해야 할 불교적 원칙도 지켜지지 못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노력도 없었다. 그런 과정에서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된 것이 안타까웠다.

-사부대중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인간의 삶은 절망 속에 있다. 절망의 현실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안목과 길을 제시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번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건져 올릴 수 있는 길은 찾을 수 있다. 물론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로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교차로

길상사 선수련회서 법문



법정 길상사 회주는 17일 오후 2시 30분 길상사 설법전에서 겨울 선수련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법문한다. (02)3372-5945



남관 법당에서 열린 송년법회에서 "비록 티끌 세간에 있더라도 마음이 청정하면 보살"이라고 법문했다.

노숙자숙소 희망의 집 개원



현성 혜명양로원 원장(청교련 회장)은 12일 오후 2시 양로원 내에 노숙자 숙소인 '희망의 집'을 개원했다.

새해맞이 탑돌이 행사



원혜 봉은사 주지는 구랍 31일 새해맞이 타종식 및 탑돌이 발원 행사를 5백명의 신도들이 참가한 가운데 봉은사 종각앞에서 봉행했다.

보경사 국난극복법회 참석



성타 불국사 주지는 9일 포항 보경사가 주최한 '국난극복과 국민화합을 위한 대법회'에 참석, 법문했다.

원로회의 사무처장에



성법 호국사 주지는 구랍 30일 원로회의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성법스님은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주지를 역임했다.

경찰청 송년법회서 설법

자우 경찰청 경승실장(금강사 주지)은 구랍 24일 경찰청 장애인 겨울 캠프를 실시했다.

장애인 겨울 캠프실시

보각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원장은 구랍 21, 22일 강원도 횡성 현대 우성리조트에서 장애인 겨울 캠프를 실시했다.

영산불교대 수계법회



법장 무진법장사 주지는 14일 영산불교대학 교리반 18기 수계법회 및 수료식을 봉행했다.

대구 보현사 주지에



지도 대구 불교사회복지회 이사장(관오사 주지)은 최근 대구 보현사 주지로 부임했다.

신라포교원 개원 기념법회



매물 신라포교원원장은 9일 신라포교원 개원기념법회 및 삼중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해병·육군부대 위문금 전달



이용택 경주관광개발공사 사장은 구랍 26일 경북 동해안 지역 해병부대와 육군부대를 방문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하버드大서 1년간 강의



고은 시인은 미국 하버드대에서 1년간 연구교수로 활동하기 위해 15일 출국한다. 또 미국 버틀리대에서 1학기동안 시론 강의 초빙교수로도 출강하게 된다.

육군 9사단 장병 위문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구랍 29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9사단을 방문,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문화부장관 표창 받아



송춘희 법사는 구랍 18일 연예활동을 통한 사회봉사 활동을 인정받아 문화관광부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했다.

법무법인 '일월' 개업

신평 변호사(경주국제학술포럼 이사장)는 9일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월(日月)을 개업했다.(0562)251-0101

"긍정적 자세로 생활하세요"

지원스님 은평구청 공무원 초청 격려



서울 은평구 삼보사 주지 지원스님은 7일 낮 12시 은평구청 공무원 초청 오찬회를 열고,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은평구청 이배영 구청장을 비롯 1백여 구청공무원과 지역단체장들이 참석했으며, 10명의 모범 공무원에게 지원스님이 직접 선물을 전달했다. 또 참석 공무원 전원에게 넥타이와 스카프 등 격려품과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을 담은 편지를 전달하고, 점심을 대접했다.

스님은 "IMF이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을 위해 애써 준 구청 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작은 정성을 담았다"면서 "새해에도 구민을 위해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최봉수·고우익씨 불이상 수상



◇최봉수씨



◇고우익씨

제14회 불이상 수상자로 최봉수(동국대 불교학부 강사)·고우익(대구 능인고 교법사)씨가 선정됐다.

불이회(회장 홍라희)는 구랍 26일 수상자를 발표하고 "연구·실천 분야에서 한국불교 중흥에 선구적 역할 한 공로로,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구분야 수상자로 선정된 최봉수씨는 〈불교원전 언어연구〉〈부파불교원전의 이해〉 등 근본불교 연구에 기여했으며, 실천분야 수상자 고우익씨는 청소년 포교와 교육일선에서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활동한 공로가 인정됐다. 시상식은 1월25일 한국불교연구원 법당.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백혈병 투병…헌혈증서 절실해요"

구룡사 학생회 이상원군



"헌혈증서가 필요합니다." 구룡사학생회 간사로 활동해 온 이상원(21·경원전문대 2년)씨가 한달전 백혈병(재생성 혈소판 불능)에 걸려 여의도 성모병원 무균실에서 투병중이다. 가족들과는 조직형이 불일치해 골수은행에 골수기증을 신청한 상태이며, 매번 치료시마다 혈소판 헌혈이 필요해 헌혈증서가 필요하다. 생명나눔실천회가 6일 1차로 30매의 헌혈증서를 전달했으나 불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016)525-3411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더 좋은 불교작품 쓸래요"

동아·조선 신춘문예당선 이우상·나유진씨

◇이우상씨



◇나유진씨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99 신춘문예에서 중편과 단편소설 부문에 나란히 당선된 이우상씨(45)와 나유진씨(36)는 불자이면서 불교사상을 작품화 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씨는 동아일보 신춘문예에서 중편소설 〈울음산〉을 통해 자신의 진지함과 성실함을 드러냄으로써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건강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 시대에 불교가 바로 그 목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씨는 더욱 좋은 불교문학작품을 선보이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나씨는 〈다비식〉이라는 당선작 제목이 말해 주듯이 이번 작품에서 윤회와 생명의 치밀하게 묘사해 냈다. 한많은 노파가 스스로 다비의 길로 치닫는 결말은 생명의 외경에 대한 신성한 의식(儀式)으로 표현해 냈다는 찬사를 받았다. 나씨는 현재 미국 LA에 있는 한인 방송국에서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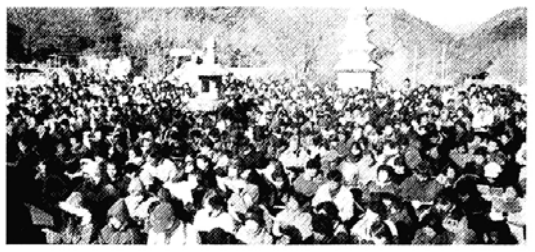
한명우 기자



불교사회봉사회 수술비 8백만원 기탁

한국불교사회봉사회(회장 송지연)는 5일 원효정사(법주 중원스님)에서 백혈병, 심장병, 신장병, 소아암 어린이 환자 8명에게 8백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서 천축사 주지 정혜스님은 "몸과 마음의 병을 조복받는 것은 결국 자신의 원력과 노력에 달린 것"이라며 어린이 환자들의 쾌유를 발원했다.



금강경 독송회 정초 기도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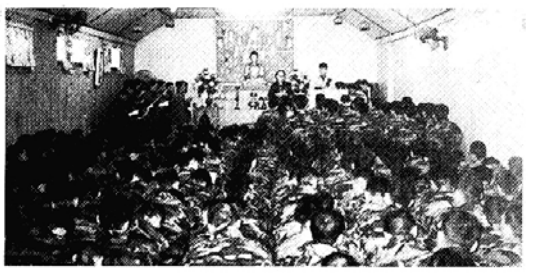
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회장 김재웅) 정초기도법회가 1일 충북 중원 미륵사지 세계사에서 1천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미륵존여래불' 정진에 이어 열린 법회에서 김재웅법사는 "올 한해에도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닦고 국가발전을 위한 원을 세우며 후복한 복력으로 부처님전에 복많이 짓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탑골공원 원각사 연등놀이 송년모임

서울 원각사(주지 보리스님)는 구랍 31일 탑골공원내에서 '제야의 등' 점등식 및 연등놀이 송년모임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홍파, 도선사 주지 동광, 마하연사 주지 종수, 관음암 주지 법성스님과 이건호 대한불교방생회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여해 기묘년 새해의 경제회복과 화합사회 실현을 발원했다.



심우회 육군교도소재소자 위문

심우회(회장 김명원)는 3일 육군교도소를 방문해 위문법회를 열고 재소자장병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김명원 회장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오늘을 살자"고 재소자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에앞서 심우회는 구랍 13일 강원도 2사단과 21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 난로와 물통을 보시하고 장병들을 위문했다.

募 緣 文



서기 817년 이차돈 성사 추모비 〈경주박물관소장〉

서기 527년 신라땅 경주에서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아야 하는 성스러운 종교적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이차돈 성사님의 순교입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순교자이신 이차돈 성사님의 진리를 찾으시며, 진리를 지키시며, 진리가 되는 생활을 보여주신 이 역사적인 순교가 밑받침이 되지 못하였다면 어찌 세계의 자랑거리인 신라불교가 태어날 수 있었으며 신라 불교가 찬란한 빛을 발하지 못하였던들, 어찌 오늘날 우리 한민족의 자랑스런 역사가 있었으리오!

이러한 거룩한 이차돈 성사님의 순교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서기 817년 신라시대에 추모비가 건립되어 현재 경주 국립박물관에 소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차돈 성사님께서 순교하신지 어언 1470년이 흘러 신라 최초의 사찰인 흥륜사 경내에 이제 다시 그 순교정신을 이어 받아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부대중들이 뜻을 모아 기념 추모비를 건립하고자 하오니 인연(因緣)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정성을 보내주실 곳 (동참금은 각자 정성으로)

우체국 700047-0333069 박성일(흥륜사 주지)

농 협 721015-52-239100 박성일(흥륜사 주지)

■ 비문 : 일타큰스님 찬 ■ 글 : 덕봉선생

흥륜사 이차돈 성사 추모비 건립위원회

경주시 사정동 281번지 흥륜사내

TEL 0561)772-4834, 43-3776

대한불교조계종 흥륜사 주지 혜해 합장

사부대중 여러분께 드리는 글

종단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제29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이번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먼저 원로 대덕스님과 사부대중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원로대덕스님과 사부대중 그리고 불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큰 누를 끼치고, 전통종교인 우리 불교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게 된 점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저는 사태가 이렇게 발전된 데 대하여 어떤 문책도 기꺼이 받을것을 약속합니다.

특히 불교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정진하는 젊은 스님들과 저를 믿고 따라주셨던 조계사 신도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모든 것은 저의 덕과 지혜가 부족한 탓으로 돌려주시기 바라며, 이제는 사부대중의 뜻과 의지를 모아 선출된 신임 총무원장 스님을 중심으로 종단이 안정되고 화합 단결하여 불교발전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랄 뿐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초발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일ㅇ체의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탁마하는 데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불기 2542년 12월 31일

현 근 합장

조직강화로 도약 꿈꾼다

'99 직장 · 직능단체

한전반야회 매달 이벤트…환자가족 포교

한통불자회 전국조직 확대 · 지회창립 지원

교사불자련 재가연대, 군 · 청소년분야 역점

98년 한해를 힘겹게 보낸 직장 직능단체들이 99년도에는 도약을 기약하며 알찬 새해사업 설계에 바쁘다.

특히 올해에는 조계종 포교원이 직장직능단체 연수회 개최 등을 통한 전국조직화를 준비중에 있어 직장 직능단체들의 연대와 새로운 변신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전력반야회는 매달 이벤트를 마련하고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와 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는 새로운 임원단이 출범한다. 부산불교실업인회는 관련직종 종사자의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2년차를 맞는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와 전국교사불자연합회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사단법인 설립과 재가연대활동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전력 반야회(회장 김영창)가 준비중인 매달 깜짝이벤트는 내년 10주년을 맞아 14개 단위불자회 조직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산하 자매병원인 쌍문동 한일병원불자회 창립을 통한 환자와 환자가족의 포교에도 주력한다는 방침. 이를위해 9일 봉은사 신년하례법회를 시작으로 수련대회, 창립기념 포교법회, 성지순례, 부처님오신날 특별법회, 한일병원 창립법회, 큰스님 초청법회, 전국연합법회, 구도정진법회 등의 계획을 확정했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는 지난해 창간한 청소년 포교지 '좋은친구'를 계간으로 연 4회 발행하여 청소년 포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대외적으로는 군법당 위문을 통한 군불교포교에 동참함은 물론 재가연대활동을 통한 활성화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통신불자회(회장 김문수)도 지난해 전국연합법회를 통해 확립된 전국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미창립 전화국에 불자회 구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본사에 마련한 법당의 내부공사를 빠른시일내 마친 뒤 개원하여 중앙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서춘석)는 상공인 및 대학교수초청 강연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지역불자실업인들에게 발빠른 정보로 도움을 주고 회원확대도 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회장 손현수)는 사단법인 등록을 통한 도약을 준비중이고 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회장 하용이)는 22일 3대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수련대회 중심의 연합회 운영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청보리 키우는 '준비된 포교사'

탐 방

부산교사불자연합회



◇부산교사불자회는 구랍 5,6일 해운정사 원통보전에서 2차 수련회를 갖고 참선 철야정진했다.

98년 창립 회원 3백명
불교대 수학 자질 갖춰
교내 불교반 설치 주력

부산교사불자연합회(회장 양원식 · 해동고 교장)는 98년 7월에 3백여명의 회원이 모여 범어사 보제루에서 창립했다. 부산교사불자회는 부처님 법을 일상생활화하고 구체적인 신행을 실천하는데 주력하며 바쁜 걸음을 걷고 있다. 초 · 중 · 고 교사들로 구성된 부산교사불자연합회는 7월 창립법회 이후 9월에 범어사 지장암에서 1차 수련회, 10월에 청소년포교기금마련을 의한 하루찻집, 11월 관음사 대법회를 연데 이어 12월에는 해운정사에서 2차 수련회를 갖기도 했다.

교사들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불법을 전하기에 앞서 불교교육대학 과정을 이수하며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는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회원들은 불법을 전하기에 앞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자 하는 열의와 통하고 있다.

특히 12월 5,6일 해운정사 원통보전에서 가진 2차 수련회는 회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선 철야정진을 가졌다. 진제스님의 법문과 회원간의 신행담 교환 등으로 포교의 본질과 방법론을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다. 올 3월에는 송광사 보성스님 초청법회를 가질 계획이다.

현재 부산교사불자회는 회원 학교수와 회원수는 절대 부족하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학교수에 비해 해운대고, 동의공고, 학산여중고 등 몇몇의 학교에서만 정식 불교반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 부산교사불자연합회는 앞으로 회원 배가운동, 학교마다 불교반 설치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파라미타 청소년 단체의 육성을 위해 학교의 특활부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불자 교사들이 불교반을 설치 운영한다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양원식 회장은 "청소년 포교의 지름길은 교사들의 포교에 있다"고 전제하고 "미래불교에 대한 관심과 투자의 측면에서 스님, 신도, 교사가 하나되어 청소년 포교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청소년 포교를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백척간두에 서서 불성보자"

지허스님의 선방일기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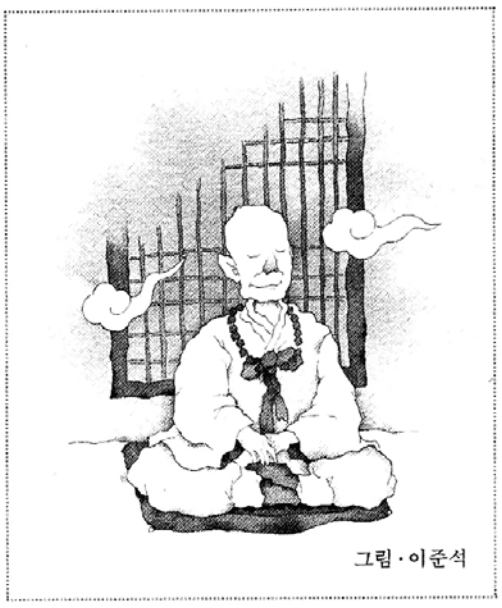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10월5일 메주쑤기 울력

원주스님의 지휘로 메주 쑤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대중생활이고 보니 언제나 분업은 철저히 시행된다. 콩을 씻어 삶는 것으로부터 방앗간을 거쳐 메주가 되어 천장에 매달릴 때까지의 작업과정에서 대중 전체의 손이 분업 형식으로 거치게 마련이다.

입이 많으니 메주의 양도 많지만 손도 많으니 메주도 쉽게 천장에 매달렸다. 스무말 들이 장독에는 수년을 묵었다는 간장이 새까맣다 못해 파랗고 흰 빛까지 드러내 보이면서 꽉 차 있지만 어느 때 어떤 종류의 손님이 얼마나 많이 모여 와서 간장을 먹게 될지 모르니까 언제나 풍부히 비축해 두어야 한다는 원주스님의 지론이다.

동안거를 작정한 선방에서 겨울을 지내자면 간장과 메주 작업을 거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선객들의 불문율로 되어있는 관습이다. 간장과 메주 울력이 끝난 다음에 온 스님들은 송구스럽다면서 낮시간에 좌선을 포기하고 땔나무 하기에 열중했다. 그러자 전체 대중이 땔나무 하기에 힘을 모았다.

상원사는 동짓달부터 눈 속에 파묻히면 다음해 삼월초까지는 나뭇길이 막혀버린다. 눈속에서는 나무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땔나무는 많을수록 좋았다. 상원사를 기점으로 반경 2㎞이내의 고목 넘어지는 굉음이 며칠 동안 요란하더니 이십여평의 장작이 열사흗날 오후에 나뭇간에 쌓여졌다.

■10월14일 결제 하루전

결제를 하루 앞둔 날이다. 결제란 불가용어로서 안거가 시작되는 날을 말한다. 안거란 일년 네 철중에서 여름과 겨울철에 산문(절) 출입을 금하고 수도에 전력함을 말한다.

하안거는 음력 4월 15일에 시작되어 7월 15일에 끝나고 동안거는 10월 15일에 시작되어 다음해 1월 15일에 끝나는데 이때 쓰이는 용어가 해제다. 흔히 여름과 겨울은 공부철이라 하고 봄과 가을은 산철이라 하는데 공부철에는 출입이 엄금되고 산철에는 출입이 자유롭다. 그래서 결제를 위한 준비는 산철에 미리 준비 되어야 한다.

선방생활과 병영생활은 괴상적인 면에서 극히 유사한 점이 많다. 출진을 앞둔 임전태세의 점검이 무인의 소치라면 결제에 임하기 위한 제반 준비는 선객이 할 일이다.

선방에 입방하면 침식을 제공받지만 의류나 그밖의 필수품은 자담(自擔)이다. 월동을 위한 개인장비의 점검이 행해진다. 개인 장비라야 의류와 세면도구 및 몇권의 불서 뿐이다. 바랑을 열고 내의와 양말 등속을 꺼내어 보수하면 끝난다. 삭발을 하고 목욕을 마치면 물(物)적인 것은 점검이 완료된다.

오후에 바람이 일더니 해질녘부터는 눈발이 날렸다. 첫눈이어서 정감이 다사롭다. 오늘도 선객이 여러 분 당도했다.

어둠이 짙어갔다. 결제를 앞두고 좌선에 든 스님들은 동안거에 입할 마음의 준비를 마지막 점검해 본다. 밖은 초설(初雪)이 분분하다.

출전 앞둔 병사마냥 선객들도 장비 점검

■10월15일 드디어 결제일

삼동결제(三冬結制)에 임하는 대중이 36명이다. 아침공양이 끝나자 공사가 열렸고 결제방이 짜여졌다. 결제방이란 결제 기간에 각자기 맡은 소임이다.

36명의 대중을 소임별로 적어보면

조실(祖室 1인)-산문의 총사(總師)격으로 선리(禪理)강화 및 참선지도
유나(維那 1인)-포살(계행과 율의) 담당
병법(秉法 1인)-제반시식(諸般施食)담당
입승(立繩 1인)-대중통솔
주지(住持 1인)-사무총괄(寺務總括)
원주(院主 1인)-사중 살림살이 담당
지전(知殿 3인)-불공(객전각)담당
지객(知客 1인)-손님안내
시자(侍者 2인)-조실 및 주지 시봉
다각(茶角 2인)-차 담당
명등(明燈 1인)-등화(燈火)담당
종두(鐘頭 1인)-타종 담당
헌식(獻食 1인)-귀객식물(鬼客食物) 담당
원두(園頭 2인)-채소밭 담당
화대(火臺 2인)-화력관리(군불때기)
수두(水頭 2인)-식수관리
욕두(浴頭 2인)-목욕탕관리
간병(看病 1인)-환자간호
별좌(別座 1인)-후원관리
서기(書記 1인)-사무서류담당
공사(供司 2인)-공양(주식)담당

채두(菜頭 2인)-부식담당
부목(負木 4인)-땔감 담당
소지(掃地 대중일동)-청소

나의 소임은 부목(負木)이다. 소임에 대한 불만도 없지만 그렇다고 만족도 없다. 단체생활이 강요하는 질서와 규율때문이다.

결제 불공이 끝나고 조실스님의 법문이 시작되었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은 영원하다. 물질의 형태에서 보면 영원성은 부정되고 물질의 본성에서 보면 영원성이 긍정된다. 영원성을 부인함은 인간의 한계상황 때문이요, 영원성을 시인함은 인간의 가능상황 때문이다. 영원성을 불신함은 중생의 고집때문이요, 영원성을 확신함은 불타의 열반때문이다. 인간의 한계성을 배제하고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저 눈속에서 탄생의 기쁨을 위해 조용히 배자(胚子)를 어루만지는 동물처럼, 얼어붙은 땅속에서 배아(胚芽)를 키우는 식물처럼 우리도 이 삼동에 불성을 계발하여 초춘(初春)엔 기필코 견성하도록 하자. 끝내 불성은 나의 안에 있으면서 영원할 뿐이다."

법문의 요지였다.

법문을 하는 스님이나 듣는 스님들이나 견성을 위해 이번 삼동에는 백척간두에서 서 진일보하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충만해 있다. 다혈질인 몇몇 스님들은 이를 악물면서 주먹을 굳게 쥐기도 했다.

법문이 끝나고 차담(茶談)이 주어지면서 입승스님에 의해 시간표가 게시되었다.

· 2시반 기침(起寢)
· 3시~6시 참선(입선 및 방선)
· 6시~8시 청소 아침식사 휴게
· 8시~11시 참선
· 11시~오후1시 오공 휴게
· 오후 1시~4시 참선
· 4시~6시 약석(저녁공양) 휴게
· 6시~9시 참선
· 9시 취침

※단 망회일(安晦日)에는 오전에 포살이 있음.

오후 1시가 되자 시간표에 의해 동안거의 첫 입선을 알리는 죽비(불사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대쪽으로 만든 물건) 소리가 큰방을 울렸다. 각기 벽을 향해 결가부좌를 취했다. 고요했다.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이 삼동에 견성하겠다는 소이에서일까. 외양은 문자 그대로 면벽불(面壁佛)처럼 미동도 없다. 그러나 그 내양(內樣)은 어떠할까.

무장하고 출진하는 무사와 같다. 우열은 전쟁터에서 용장과 패장으로 구분되듯이 시간이 지나야 각자의 자량(資糧)과 분수가 노출되면서 공부가 익어가는 모습이 비쳐지리라.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9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4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반야사상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남수영(동국대교수) · 계환스님(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장휘옥(동국대교수) · 박 종(불성개발연구원장) · 권탄준(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2년 교과목	불교학개론 · 선종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불교상담론	· 암도스님(교육원장) · 권기종(동국대교수) · 혜원스님(동국대교수) · 윤열수(동국대교수)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오국근(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98년 12월 15일~ 99년 2월 5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불교회관 및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 학 일 시 1999년 2월 6일(토) 오후 6시 (총무원 1층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99'학년도 상반기 불교 어린이 지도자 연수회

침체된 불교 어린이 법회를 일으켜 세우고자, 서울 · 경기지역 지도법사스님들의 원력으로 모였던 「어린이 법회 활성화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지난 12월 23일 간담회를 통해 삼보사 주지 지원스님을 회장직에 추대하고, 교계의 당면과제인 「지도자 전문화교육」을 본회의 제1차 추진 사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첫 연수회는 99학년도 신학기를 준비하시는 지도자를 위한 상반기 교육 자료 제공과 더불어 교사로서의 전문성 함양에 도움을 드리고자 본 연수회를 실시하오니 참여하셔서 좋은 법연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차례	내 용	강 사	비 고
1	21세기를 위한 불교아동교육의 반성과 방향 모색	황학현	불교교육연구원장
2	어린이 종교교육 어디까지 가능한가? - 어린이 종교심리 연구 -	민영순	숙명여대 교수
3	왜, 어린이 법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가 - 어린이법회의 활성화 방안-	법전스님	지장사 주지
4	신나고 재미있는, 그리고 효과적인 어린이 설법은? -설법 지도안 설계-	지원스님	삼보사 주지스님
5	법회를 겉도는 아이 어떻게 지도 할 것인가?-부적아 지도 연구-	임숙희	경상대 교수
6	찬불가 율동은 어린이교육의 최상의 교육수단 99' 상반기 법회 찬불가 율동(25주용, 30곡 제시) 1)유치부 2)신곡 찬불가 3)우수 선정곡	송양섭 배동순	본회 연구위원 본회 연구위원
7	어떤 상황에도 아동을 제압(?)할 수 있는 게임-전체 게임-	이성훈	선재이벤트 대표
8	노래와 율동, 그리고 게임-싱어동-	이성훈	선재이벤트 대표
9	2부 활동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특별프로그램-	황학현	불교교육연구원장
10	불성개발을 위한 즐거운 조형미술 놀이	이명섭	이화미술학원장
11	찬불가를 쉽게 지도하는 법	유익상	본회 연구위원
12	가까우면서 올바르게 익히기 어려운 불교의 기본의식 -목탁사용법, 예불의식, 독경의식, 발우공양의식, 참선-	덕수스님	명화사 주지

※일부 프로그램이 추가 ·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일시 : 1999년 1월 30일(토)~31일(일)(1박2일)
▶장소 : 서울 은평구 삼보사(☎352-6406)
(지하철 3호선 불광역하차 6번출구에서 역촌 5거리 하나은행 옆)
▶참가비 : 30,000원(1월 27일(수)까지 사전 접수자는 30%할인)
(납입구좌:국민은행 812-21-0329-747/엄욱상)
1) 본회 회원사찰 50% 할인 2) 군종병은 50% 할인
▶문 의: ☎ 725-2201~2 / FAX 725-2213

(구, 어린이법회활성화를 위한 준비위원회)
한국불교어린이포교연합회
회장 윤지원 / 사무총장 법전 / 연구실장 황학현 합장

새해가 시작됐다. 올해는 여느 해와는 달리 2천년을 눈앞에 둔 마지막 해라는 특별한 의미도 지닌다. 그러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 걱정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걱정만큼이나 인내가 필요함을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는 사회대로, 불교계는 불교계대로 저마다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그래서 '시작하는 마음'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첫단추를 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다짐을 지속시키는 일이다.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설계와 각오를 다졌겠지만 이 모두의 다짐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어떤 마음과 자세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지 부처님 말씀을 통해 들어보자. 〈편집자 주〉

이렇게 들었다

새출발

초발심은 씨뿌리는 것과 같다

▨첫 발심할 때 정각을 얻는다. 이 때 사물의 진정한 본성을 알고 지혜의 몸을 갖춰 스스로 깨달음의 눈을 뜨기 때문이다. 〈화엄경〉

▨보리심을 처음 일으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대집비유왕경〉

▨보살들은 발심하여 열심히 노력하기에 빨리 열반을 얻는다. 〈기신론〉

▨활을 쏘아 과녁을 잘 맞히는 사람은 그만큼 노력한 것이니 누구라도 잊지 않고 노력하면 과녁을 잘 맞힐 수 있다. 도를 빨리 얻지 못한다고 한탄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하면 반드시 도를 얻을 수 있느니라. 〈불반니항경〉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파사익왕에게 말씀하셨다. "먼저는 괴로우나 뒤에는 즐거운 것이 넷이 있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괴로운 일이나 뒤에는 즐겁고, 쓴 약을 먹는 것도 처음에는 괴로우나 뒤에는 즐거우며, 가업을 잇는 것과 혼인하는 것은 처음에는 괴로우나 뒤에는 역시 즐거운 일이오." 〈증일아함경〉

▨높은 관직을 탐내는 사람은 고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그것을 위한 행위를 하게 마련이다. 무릇 욕구의 선악을 막론하고, 그 마음에 먼저 목표를 세운 다음에야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보리를 구하는 사람도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리행을 구하는 것이다. 〈발보리심론〉

▨만약 사람들이 큰 광명이 되어 온 암흑을 없애고자 원한다면, 모름지기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 〈출생보리심경〉

▨초발심을 발한 보살이 보리심을 내면, 무한한 과거로부터 활동해 온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으며, 무한한 미래를 향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믿을 수가 있으며, 현재의 모든 부처님이 설하는 지혜를 알 수가 있다. 또 이 보살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믿고 가르침을 받으며 행하고 체득하여 모든 부처님들의 공덕과 같게 된다. 〈화엄경〉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라. 미래를 원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꿈은 여기 현재의 일에서 가져야 할 것이니 이루고자 하는 뜻에 확고부동하여 흔들림없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야 하리. 오로지 오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 땀흘려 노력하라. 〈중아함경〉

▨보살이 생존 중 처음으로 발심할 때, 오로지 보리를 구해 마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의 일념 공덕이 깊고 넓어서 끝이 없을 것이니, 여래가 설하사 한 겁을 다 소비하신대도 능히 다하지시 못하리라. 〈화엄경〉

▨허공은 두루 뒤덮지 아니함이 없나니, 보살의 발심도 이러하여 온갖 중생을 뒤덮지 아니함이 없다. 중생의 세계가 무량무변하여 다할 수 없는 것이라면, 보살의 발심도 무량무변하여 다함이 있을 수 없다. 〈발보리심경론〉

▨사람이 과수(果樹)를 심는 경우, 씨가 쓰면 과일 또한 쓰게 마련이니, 죄를 지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과보를 받아 끝없는 고통을 거쳐야 한다. 〈보살처태경〉

독자의 소리

냉정한 마음 거두고 포용하고 용서하자

이제부터는 냉정한 마음을 거두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부처님의 아량과 겸손함을 가져줄 것을 진심으로 사부대중께 간청드린다.

분개하고 질타하고 능멸한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참회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잘못한 이들을 권면해야 한다. 비행과 비법을 행한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적나라한 상황 자체이며 내칠 수 없는 아픔인 것을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그리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면서 마치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의 검댕을 지웠듯이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값비싼 스승들이 경책하는 모습이려니 생각하자. 더크고 더 넓은 자신이 되어간다면 이 또한 크나큰 수행의 장이 아닐까 생각한다.

해월〈공주 원효정사 주지〉

승-재가 정재관리 조계사부터 시범운영

조계종이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무엇일까? 신도와 사문이 공동으로 사찰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문이 돈과 권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신도와 사문이 같은 비율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사찰을 운영하여 돈의 흐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돈의 흐름이 투명해지면 권력과 결탁할 수 있는 길은 저절로 차단된다.

지금 당장 조계사부터 공동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 온 천하에 그 시범을 보이고, 그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물론 본사도 공동운영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 매년 그들이 실행한 것을 성적을 매겨서 공표를 해야 한다.

우선 급한 것은 조계사부터 공동운영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달마다 수입과 지출을 사부대중에게 공개하라. 조계종이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믿는다. 이평래〈충남대 교수〉

산사찾는 마음 편하게 하루빨리 조계종 안정

작은 성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녀이다.

삶이 고단하다고 느껴질 때면 어김없이 산사를 찾는다. 풍경소리, 목탁소리 그리고 푸른 향내음, 무엇이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기운들이 느껴진다.

불교의 교리를 빌려 표현하자면, 전생에 내가 부처님과 어떤 향기로운 인연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특별히 아는 스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알고 지내는 불자님이 계신 것은 아니지만 그냥 절이 좋고, 불교신자라고 하면 반가움이 앞선다.

오늘도 햇살은 따뜻한데,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과 풍경은 참 어수선하다. 오래 지속되고 있는 스님들의 긴장과 심란함. 하루빨리 조계종이 안정되기를 기도한다. 그리하여 나처럼 산사를 고향처럼 생각하는 사람들과 삶을 고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그리움이 계속되어 주기를 바란다. 김미리아〈수녀〉

총무원 청사 새로 짓자



법경스님
분당
기원정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청사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상징물 가운데 하나다. 현재의 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떠올릴까. 불이 붙어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르는,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조차 싫은 장면들이 떠오를 것이다. 불교와 조계종 총무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얼룩으로 남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청사를 헐고 새로 짓기를 바란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불교회관을 건립키로 하고 예산을 확보해가고 있다. 마침 조계사에서 주변 부지를 다량 매입해 전체적인 도량 배치를 새롭게 구상하고 있다. 이만하면 서울의 한복판에 불교의 대표적인 상징물을 새로 세울 몇 가지 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여기에 얼룩진 불교의 이미지를 씻으려는 목소리도 높다.

94년 개혁회의 출범 이후 불교회관을 짓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는 총무원과 조계사 소임자스님 몇 분만 참여했다. 이제는 재가자 가운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도 참여시켜 범불교적 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단순히 건물을 새로 올리는 일이 아니다. 본래면목의 불교모습을 회복키 위한, 그리고 21세기에 걸맞는 불교를 세우는 불사이기도 하다.

제 언

본사단위 수련시설 시급



조건균
전국교사
불자연합회
사무총장

한 재가단체의 사무총장으로 회원들의 수행과 포교활동에 활력을 불어주고 도움을 주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감하고 있다. 많은 재가자들은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가 기복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개탄하면서도 세간의 생활 속에서 여법한 수행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사찰의 수련법회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사찰에서 생활을 해보면서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많은 사찰에서 수련법회를 실시하여 재가불자는 물론 타종교인까지도 불교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겨울에는 수련법회의 기회가 드물고 또 단체별로 신청하는 수련법회를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 1백명만 넘어도 수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각 사찰에서는 이제라도 많은 재가불자들이 언제라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한 사찰이 어렵다면, 본사 또는 몇 개의 본사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고은의 '새아침 칼럼'을 읽고

"한국불교의 허물 통렬히 비판"

참으로 무참한 심정으로 고은 선배님의 질책을 들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불교를 통렬하고 정확하게 비판하신 고은 선배님의 질책을 뇌성벽력과 같이 큰 소리로 들었습니다.

고은 선배님은 일찍이 뜻한 바 있어 환속을 하셨지만, 이 포교승은 어찌할 바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승려가 속복을 입어서는 안된다고 했어도, 먹물옷에 파르라니 깎은 머리로는 길을 다닐 굳센 용기도 의지도 없어서 검은 운동복에 털모자 쓰고 다녔습니다. 이 포교승은 그만 파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속복을 입고 절 밖 대로를 다녔으니…. 큰(?)스님들은 싸우실 때도 가사장삼을 수하셨건만….

우리가 금강경 강의를 끝낸 날 선배님은 금강경을 땅 속에 파묻었습니다. 선지식이십니다. 어차피 부처님께서는 '지아설법 여벌유자(知我說法 余筏遣者, 부처님의 말씀조차도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버려라)'라 이르셨거늘 딱히 잘못은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뗏목을 타고 닿아야 할 곳이 아수라장인 듯해서 이제는 무엇을 타고 건너도록 가르쳐야 할지, 여러 날 밤을 곤두새우는 화두가 되었습니다. 해광〈인천 룸비니유치원장〉

"한겨울 알몸에 끼얹은 물벼락"

현대불교신문 1월 6일자 고은선생의 '새아침 칼럼'은 눈을 열어주고 대중의 안일함을 깨우쳐주는 장군죽비였다.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과 칼럼에 대해 얘기했고, 많은 분들이 공감했다.

"오늘의 불교판은 겉치레, 권위의 소승일 뿐이다. 전혀 정신의 계행 없는 수작을 대승으로 장식한 것이다. 이런 거짓된 대승은 망승(亡乘)이다." 겨울 새벽 알몸에 끼얹는 물벼락이다.

도재곤〈대구 고성동〉

목탁소리

사찰도 성교육 장소로

오 종 욱
〈취재 1부 기자〉

구랍 28~30일 개최된 청소년교화연합회(이하 청교련) 인천지부의 제1회 성문화캠프 '아우성-청소년과 함께 나누는 성(性) 이야기'는 사찰에서 열려야 했던 캠프다. 적어도 인천지부가 처음에 캠프장으로 생각했던 곳은 도심과 가깝고 70여명의 청소년들이 2박3일 동안 먹고 잠잘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찰이었다.

그러나 캠프장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지부가 세 곳의 사찰과 접촉했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난관에 부딪쳤다. 하나같이 '성(性)'이라는 한마디에 난색 하거나 겸연쩍어했다는 것이다. 물론 세 사찰은 "신도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 포교에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을 관리할만한 인원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요즘 청소년의 성적 탈선은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국무총리 산하에 청소년성문화대책위원회를 조직한 것도 엇나가는 청소년의 성풍속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불교계는 '성(性)'이 산문의 문턱에 들어서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있다. 불교와 '성'은 한 자리에 설 수 없는 불멸의 '금기(禁忌)'로 여겨지고 있다. 매춘여성의 재활에 관심을 갖는 스님이 아무도 없다는 것도 '성'에 대한 불교계의 깊은 편견을 말해준다.

성문화캠프는 경기도 가평 약속의섬에서 성공적으로 회향됐다. 그러나 절집 행사는 절 밖에서 열렸고, 국회의원은 참석했지만 스님은 그 곳에 없었다. 불교계가 청소년 포교와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둔다면 '성' 문제를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gobaoou@buddhapia.com)

大韓佛教 觀音宗 第四世 宗正

雲湖堂 大天 大宗師
四九齋 追慕法會 案內

大宗師께서 創建하시고 主席하신 論山 觀音寺 大雄殿에서 佛紀 2543年 1月 21日 (음 12月4日) 午前 11時 49齋 追慕法會를 奉行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전화 총무원 (02) 763-3109
관음사 (0461)735-3144

1999. 1. 21(음 12. 4)

大韓佛教 觀音宗
總務院長 李泓坡 合掌

단기 출가 선(禪) 수련회 안내

▶사찰은 무한 능력의 소유자◀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수련원에서는 직장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기 출가 선(禪)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1999년도 겨울 선 수련회
♣ 기간 : 1999년 1월 1일(日) - 20일(水), 3박 4일, 수련비 5만원
♣ 장소 : 성북동 길상사설법전 ♣ 대상 : 일반인, 직장인
♣ 내용 : 선(禪) 초심자의 실참실수(室參實修)와 단기 출가자로서 필요한 발우공양, 108배, 삼귀의 · 오계 수계 등 불자예법.
◐ 1999년도 1박 2일 주말 수련회 계획 (수련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차수	기 간	대 상	회비
제1차	1월23일(토)~24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2차	1월30일(토)~31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3차	2월 6일(토)~ 7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4차	2월13일(토)~14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5차	2월20일(토)~21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6차	2월27일(토)~28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 입재:토요일 오후 2시 30분 · 회향:일요일 오후 8시

♣ 접수방법
1. 직접 방문시 :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
2. 팩스 이용시 : ①이름②생년월일, 성별③주소④연락처 전화번호⑤직업 ⑥수련회 경험유무⑦수련회 동참 소견(꼭 쓰세요)을 적어서 팩스로 접수, 이 경우 수련회비는 외환은행 계좌 301-22-00206-0, 예금주 〈길상사〉로 보내고 신청서와 입금표를 같이 보냅니다.

■ **자원봉사자 동참 :** 수련기간 중 보살행으로 수련생을 후원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오전이나, 오후 등 봉사자의 활용 시간대에 맞춰서 편리하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수련회 사전준비, 공양간 찬상 정리, 사무실 보조, 뒷 정리 등 자유롭게 동참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수련원**
서울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우)136-020
전화 (02)3672-5945~6 / 팩스(02)3672-5947

해명서

삼가 오늘의 종단사태에 대하여 본사주지 연합회장으로서 국민과 사부대중에게 머리숙여 진심으로 참회드립니다. 원인과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의 수행 부족을 통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나라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종단이 혼란에 빠져들었고, 혼란이 분규로 치달았으며 분규가 전종도의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 드렸고 급기야는 불교자체가 돌팔매를 맞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다시 정도를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본사주지 연합회에서는 논리를 떠나서 종단과 불교에 상처내지 않는 이해와 용서, 포용으로 화합된 모습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니 수행과 부덕함의 탓으로 원만한 사태해결에 보탬이 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제 총무원장 선거를 무사히 마치고 고산큰스님을 종단의 지도자로 모셨습니다.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부 메스컴과 언론에 의해 수덕사가 정화개혁회의 측이라는 보도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본사주지연합회장으로 종단과 우리 불교가 덜 상처입는 길을 모색하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이 부족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인정할 수 있지만 수덕사가 정화개혁회의 측이라고 한 부분은 저의 본뜻과 본사주지 연합회, 수덕사를 심히 왜곡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명하는 바입니다. 역량의 부족으로 종단을 화합으로 이끌지 못하고 보니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하는 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고산 큰스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종단이 하루 빨리 안정과 화합의 자리를 찾도록 본사주지 연합회와 수덕사에서는 미력이나마 보태고자 합니다.

잘못된 편견과 오해로 새로운 불씨가 잉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에 해명의 글을 드립니다.

불기 2542년 12월 31일

대한불교조계종 본사주지 연합회장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김 법 장 합장

불자 세상보기

정부 Y2K 해결 9월 완료

전세계적으로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Y2K)가 올 한해 컴퓨터분야의 최대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서도 정부 기업을 중심으로 새해벽두부터 Y2K퇴치를 위한 초읽기에 들어가 오는 9월까지 Y2K해결을 완료할 방침이다.

▲1월 Y2K 공공 및 중점관리분야 현장점검 ▲2월 Y2K 소프트웨어 변환작업 완료, Y2K 서밋개최 협력회의(도쿄) ▲3월 제1차 Y2K 추진실태 평가, 제2차 한일 Y2K 협력회의(도쿄) ▲4월 검증단계 완료, 국가 모의테스트 실시 ▲5월 제2차 Y2K 추진실태 평가 ▲6월 유엔 Y2K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뉴욕) ▲8월 영향평가단계 완료, 시험운영, ▲9월 제3차 Y2K 추진실태 평가 및 점검 완료.

■ 올 Y2K 조심해야 할 날

▲4월1일, 7월1일=미국 뉴욕주, 일본, 캐나다 정부의 2000 회계연도 개시일, ▲4월9일, 9월9일=9자 4개 겹쳐 '종료인식' 우려, ▲8월22일=전세계 항공·해운을 통제하는 지구 위치확인 시스템(GSP)의 일부를 구성하는 인공위성들의 내부시계가 80년 발사 당시 시작했던 위치로 되돌아오는 날, ▲2000년 2월 29일=일부 프로그램이 윤년이 아닌 것으로 처리할 가능성.

중·고 '세상체험' 강화

올 1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생 및 고교 1년생은 시험성적이 아니라 학습과정을 평가하는 수행평가를 받게 된다. 각 시·도 교육청은 2002년 대입 무시험전형의 도입에 맞춰 그간 교사중심 및 입시위주로 이뤄진 초·중·고 교육을 학생중심·창의력신장 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교육청들은 '1일 환경미화원' '부모직업 체험해 보기' '교도소 탐방' '학교 바꿔보기' 등 체험·현장 학습을 한층 다양화하고 독서교육 강화를 위해 독서실적을 성적에 반영키로 했다.

수해복구비까지 횡령하다니

"부정직한 공직자 백성복리 훔치는 도둑"

공직사회 의식개혁 절실…국민정부 개혁성패 좌우

"부정직한 공직자들은 백성의 복리를 훔치는 도둑일 뿐 아니라 임금과 백성을 속여 나라를 불행하게 하는 원흉이다. 임금은 그런 중신들을 가려내서 엄벌해야 한다."〈대살차니건자소설경〉

지난 여름 IMF로 인한 고통이 확산되던 시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전례없이 심한 수해가 밀어닥쳤다. 너나없이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 힘든 때였지만 고사리 손들이 저금통을 깨어 모은 성금, 실직자들이 십시일반으로 합한 정성을 모은 성금 6백65억원과 정부예산등 2조2천3백1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수해복구를 위해 지출됐다. 이처럼 귀중한 국민의 혈세와 정성이 수해민들에게 돌아가기는 커녕 도중에 유용되고 엉터리로 집행되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있지도 않는 농지에 복구비를 위장지급하고 복구공사 시공업체에 과다한 비용을 지출했는가 하면 피해농가에 실제 지급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준 것으로 적어놓고 사례비를 뜯기까지 했다는 보도다. 국민의 자비와 사랑을 저버리고 함께 사는 사회의 공동체의식을 배신했다는 점에서 뇌물죄보다 훨씬 악랄하고 부도덕한 범죄라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 정서다.

지난해 8월 4백여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의정부, 파주, 서울 상계동지역에서 수해복구에 나섰던 김애련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사무처장은 "국민의 일꾼인 공무원들이 수해복구 지원금을 착복했다는 사실을 듣고 엄청난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전북 정읍에서 수해로 비닐하우스 5개 동을 날려버린 김모씨는 "2만2천원의 복구비가 나와 차라리 받지 않겠다고 하자 포기각서를 요구했다"면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농민을 괴롭히는 공무원들이 한심스러웠다"고 말했다.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부패상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일부 넉빠진 공무원들은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2백69명을 제외하고 고급승용차 보유자 등 대상자가 될 수 없는 3천7백여명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 7억여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기도 했다.



◇지난 여름 벌람한 파주의 장곡천. 수재민들은 어느해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시사저널 제공〉

중하위직 공무원은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창구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직사회의 기강을 체감하는 바로미터다. 6급이 5급 공무원보다 평균 수뢰액수가 많을 정도로 공직사회의 개혁의지가 중하위직으로 내려갈수록 실종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경불련 임영래 사무국장은 "공직사회의 변화없이 어느 분야의 개혁도 불가능하기에 부패공무원에 대한 지속적 단속은 물론 철저한 신상필벌과 부적격자 퇴출로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부패방지법(내부고발자 보호조항 명시)의 제정,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 중하위직 공무원의 재산공개, 국민성금운용 체계의 합리화 등을 제안했다.

〈니건자경〉은 "그 사람의 온갖 기업(家業)이 불이 나서 타거나 폭풍 폭우 비사(飛沙) 우박 등으로 인해 추수를 못 했을 때에는 응당 조세를 징수해서는 안된다. 이런 빈민을 가엾이 여겨 도와주지 못한다면, 백성들을 충분히 보호한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설했다.

예나 지금이나 재난을 당한 국민을 돕는 것은 나라의 녹을 먹는 공복(公僕)의 기본적인 의무일 것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생활정보

'흡연의 해악' 6부작

(방송) KBS-1TV가 10일부터 6부작으로 방영하고 있는 '일요스페셜'. 10일~2월14일 매주 일요일 8시에 방송되는 '일요스페셜'은 ▲17일 금연, 이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24일 담배전쟁 ▲31일 약인가 독인가-술의 두 얼굴 ▲2월7일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2월14일 신의 선물-웃음과 울음.

실업 여성가장 직업훈련

(취업) 1월하순에 모집하는 실직여성가장 특별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실직 여성가장의 재취업을 도와줄 무료직업 훈련. 정원 6천명이며 기간도 최대 6개월로 연장된다. 교육 기간 동안 훈련수당도 받는다. (02)500-5572~3

음란물차단 SW '수호천사 1.0'

(정보통신) 프러스테크가 내놓은 '수호천사 1.0'은 '컴맹'부모들이라도 자녀들이 음란물을 보는것을 차단할 수 있는 국산 소프트웨어. 값 3만8천원. (02)3436-8546

국내 첫 기상달력

(생활) 기상청이 월별 기후특성과 각종 기상역사를 기록한 기상달력. 월별 일기일수, 기상극값, 일·월출 시각, 간·만조시각, 농가메모, 기상상식등을 게재. 값 2천5백원. (02)745-6000

경제상식 유로화 유로화(貨)란 유럽연합(EU) 중 11개 회원국들이 올해 1일부터 공동으로 쓰는 단일화폐. 하지만 유로화는 아직 실제 유통되는 화폐가 아니라 개념상으로만 존재하는 돈(견본 화폐는 이미 제작)이다. 따라서 단일통화에 참여하는 유럽 11개국에서도 2001년 말까지는 각 나라의 돈이 종전대로 통용돼 여행객들에게는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단 유로로 표시된 여행자수표(TC)를 끊어 가면 그 나라 돈으로 바꿀 때 환전 수수료를 내지 않아 이익이다. 유로 지폐와 동전은 2002년초에 통용될 예정이고 그와 동시에 11개국의 통화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99년 건강 캘린더

▲1월 손 자주 씻고 충분한 습도 유지(감기 대비), 실내 공기 자주 환기(알레르기 환자), 외출 삼가고 보온에 힘써야(중풍 대비). ▲2월 각종 안전사고 조심(노약자), 정기 건강검진 받는다, 생활리듬 깨지지 않도록(설날 연휴). ▲3월 환절기 감기 조심. ▲4월 꽃가루 피해야(알레르기 환자, 5월까지). ▲5월 야외활동시 벌레에 물리지 않게(행락객, 여름까지). ▲6월 일본뇌염 예방접종 시작(소아). ▲7월 손 깨끗이 씻고 음식 익혀 먹어야(수인성 전염병 대비, 여름내내). ▲8월 한낮 더위 피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열성 질환 대비), 과다 냉방 자제(냉방병 대비), 바캉스 후유증 조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말라리아-일본뇌염 대비, 9월까지). ▲9월 생활리듬 깨지지 않도록 유의(추석 연휴), 야외활동시 피부노출 않도록(유행성 출혈열-쓰쓰가무시병-렙토스피라 대비, 가을내내). ▲10월 환절기 감기 조심. ▲11월 독감 예방접종 시작. ▲12월 감기, 독감, 알레르기 질환 조심, 중풍 심장질환 발병 않도록 유의, 연말 음주·과로 피해야.

성균관대 의대 신호철(가정의학과) 교수 작성

시론

법륜 잘 구르려면



이 각 범
〈日 게이오대학 방문교수〉

"잘되고 못됨은 투명-합리-공정 잣대 삼아야"

속계에는 속계의 법이 있고, 승가에는 승니의 법이 있다. 이번 조계종의 분규사태는 간단히 말해 승가의 허울 속에 속계의 탐욕이 판을 쳤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이 하는 일은 승가의 법을 구하는 스님들의 일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그러므로 새롭게 총무원장에 당선된 고산스님처럼 정진에 몰두하던 분들은 주위의 끈질긴 권유에 마지 못해 맡게 되는 속계의 일에 불과하다.

카이저의 것은 카이저에게로라고 했듯이 속계의 일은 속계의 법을 따라야 한다. 승가에서는 탐욕을 여의려 하나 속계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인간은 모두가 자기의 육심에 따라 행위하는 존재이므로 사회에서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자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에는 개인적 욕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사회심(社會心)이 존재하고 있기때문에 이를 기초로 하여 사회적 법과 질서가 성립하는 것이다. 개별 인간은 탐욕스러운 존재이지만 사회는 만인이 만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였던 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인간의 개인적 탐욕을 인정하지 않음에서 비롯되었다. 이번 한국 불교계의 세계적 망신은 승복 속의 탐욕에 얼중한 나머지 사회의 법과 질서마저 인정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되었다.

지금 이시간에도 참선, 염불, 간경으로 삼매에 몰두하는 많은 승니가 있는데 사판의 스님들이 총무원의 권력 싸움에 몰두하는 바람에 많은 신도들의 신심에 축이 갔다. 종무를 맡고자 하는 스님들이 세간의 법을 따랐던들 정진하는 스님들의 참 모습이 드러났을 텐데 말이다.

세간의 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투명성과 합리성과 공정성이다. 이러한 세간의 법정신이 우리 불교 사판에도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몇가지 대책이 시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첫째, 조계종 분규사태의 핵은 사찰재정이 투명하지 못했던 데서 비롯됐다. 몇년전 총무원에서 결의하였다던 무슨 위원회도 좋고, 법인형태로 운영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것도 좋다. 어떤 형태로든 사부대중이 골고루 참여하여 사찰의 돈이 옳게 걷히고, 옳게 쓰이는지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고 또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지가 바뀔 때마다 僧俗이 어울려 분규사태를 만들어내는 사찰일수록 총무원 직영체제로 하든, 사찰의 신도 범위를 벗어난 범종단의 운영체제로 만들던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세간의 분별심을 불교계에 끌고 오지 말아야 한다. 불교계는 종도의 숫자도 많고, 세상의 말로는 표(票)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스님들의 개인적인 사회적 성향을 실현하고 싶은 유혹을 수없이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부처님 법을 찾아 나선 곳에 그 무슨 잘난 이념이나, 정치적 당파, 혹은 권력이나 심지어 지방색까지 걸고 와서 불교계를 오염시키는 것은 참으로 옳지 못한 행태이다. 분별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불교계를 만들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것이 합리성의 구현이다.

셋째, 공부하는 스님들이 물질적 결핍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도록 스님복지를 철저히 실현하여야 한다. 가난한 절과 부자 절의 구별이 없어져야 하고, 스님들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공정성이다.

바라건대, 새해에는 우주를 넘어서는 진리를 관통한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우리 중생의 무명이 보다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불교가 많은 이들의 신심을 일으키기를.

'99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40명 ■야간40명 ■통신40명	· 고등학교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조계종 승려·포교사 (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4년	■ 통신40명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 주간60명 ■ 통신40명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 주간20명		
중국어과	2년	■ 주간40명 ■ 야간40명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 주간40명 ■ 통신20명		

2.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학생1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3 전문부 주간, 야간 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 1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 1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32명 취득
94.11 본교학생 183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분교체결
95.11 본교학생 1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취득
96.11 본교학생 18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0명 자격취득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2명 자격취득(위탁교육 수료후)
99.2 제 8회 졸업생 배출예정
99.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22명 자격취득 예정

3.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4.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9년 1월 28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효)

5.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8 FAX. 511-108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 인터넷홈페이지:WWW.Buddhapia.Co.Kr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 화 불 교 대 학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만 60세까지)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중·고 통신과정	3년	야간 및 통신 강의 병행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졸업 후 중앙승가대학 입학 가능 방송대학 입학 가능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1999년 1월 부터 수시 모집
■ 문의처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02)511-2026~8, FAX : 02)511-1080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남경중의약대학 ◈
약학 · 한의대

자 격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40세 미만)
인 원
20명 이내
전 공
한의학(중의),약학, 침구학,
전 형
내신성적(고교, 전문대, 대학)

⊙ 중국 최고 국립한의과대학
⊙ 군입대 연기 가능

남경중의약대학 TEL 25-6798168, 6798171
한국연락상담처 TEL 02-511-2026~8

침체 예상속 양서로 돌파

'99 전망 불교출판계

올해 교계 출판계의 기상도는 '먹구름'이다. 경기침체와 함께 지난해 말 터져나온 조계종 사태로 인해 독자들의 구매욕이 바닥을 헤매고 있기 때문. 상반기가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나아지리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있지만 전반적인 침체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출판사들도 이같은 상황을 예견하고, 공격적인 경영보다는 지난해와 수준을 맞추면서 내실을 다지는 기간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좋은 책으로 어려움을 뚫어 보겠다는 속내를 굳이 감추지는 않는다.

교계 출판사들은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올 출판계획을 잡고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양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민족사의 경우 지난해와 같은 20여종의 책을 출간키로 계획을 세워놓았다. 특히 하반기에는 '고승평전' 시리즈를 펴내기 시작하고, '신행총서' 시리즈도 상황을 고려해 발간을 결정할 방침이다.

여시아문도 '주머니속 대장경' 시리즈 6종과 〈원각경 강의〉(이제열 법사) 등 지난해와 비슷한 10여종을 펴낼 예정이다. '주머니속 대장경' 시리즈의 경우 알찬 양서로 자리매김시킬 계획이고, 일반인들에게도 폭넓게 읽힐 수 있는 〈라다크 구도기〉를 통해 일반 출판시장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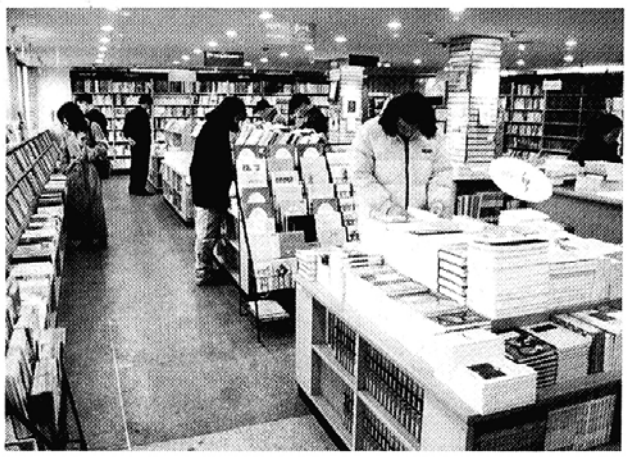
대원정사는 1월중 현대불교신문에서 연재됐던 고은 시인의 소설 〈수미산〉을 두 권으로 묶어 출간하는 등 6~7종의 출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불광 역시 〈청소년 포교지침서〉(성일스님) 등 10종의 책을 펴낼 예정이다. 시공사도 마찬가지로 〈정선 아함경〉(이연숙) 등 7~8종을 발간할 계획이다.

운주사는 '불교와 동양전통사상 비교' 시리즈 등 지난해보다 3종 정도 늘어난 10종의 책을 출간할 예정이며, 불교시대사 역시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20여종의 책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출판사는 건강·명상 서적 등 20여종을 올해 출판계획으로 잡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관련 도서도 2종 정도 펴낼 생각이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각 출판사들도 장담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조계종 사태로 상처받은 불심들이 오히려 불서를 통해 위로받으려할 가능성도 있다는 역설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물론 경기 회복조짐도 한몫 할 것이라는 기대다.

또 '독자들은 언제든 양서를 찾게 돼있다'는 출판가 정설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그리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는 좋은 책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과 애정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서다. 결국 올해 교계 출판계는 각 출판사들의 노력과 불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가 사실상 최대 변수인 셈이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불서에 대한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은 불교의 바른이해를 통한 개인의 신행생활에 도움을 줄뿐아니라 불교출판문화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

관심끄는 올해의 불서

민족사
하반기부터 20권예정으로 '고승평전' 시리즈를 펴낼 계획이다. 원효, 경허, 만공스님 등 우리 불교사에 뛰어난 족적을 남긴 스님들을 재조명한다.

여시아문
5월을 전후해 펴낼 〈라다크 구도기〉는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양서로 읽힐만한 책이다. 인도에서 태어난 영국 시인 앤드류 하비의 구도기인 이 책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불교시대사
'불교의 수용과 변화' 시리즈는 인도, 동남아, 티벳·네팔, 중국, 한국, 일본 편 등 전6권으로 구성된다. 학술서이자만 쉽게 설명해 누구라도 읽기 편하도록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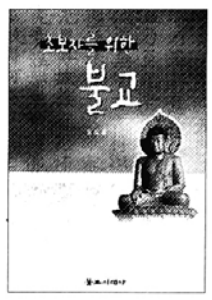
불광
상반기중 나올 김기추 거사의 〈유마경 강의〉는 〈유마경〉 뿐만 아니라 김기추 거사의 불교사상을 깊이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운주사
〈불교와 유교〉 〈불교와 현학〉 등 불교와 동양전통사상을 비교하는 내용의 시리즈를 전6권으로 상반기 중에 선보일 예정이다. 불교와 동양사상의 접목으로 불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시공사
4월중 펴낼 〈정선 아함경〉은 9백여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부처님의 생애·삼보·열반 등을 주제별로 뽑아 읽기 쉽게 엮을 것이다. 〈아함경〉과 불교를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책이다.

초보자를 위한 불교 | 도후스님 지음

교리·사찰예절 등 초심자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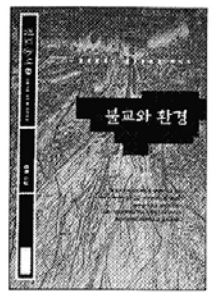
'맹구우목(盲龜遇木)'. 불법을 만나기란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 떠다니는 나무판자를 만나는 것만큼 어렵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고사성어다. 하지만 불법을 만나더라도 그 요체를 바르게 아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 첫발을 잘못 디딘 탓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초보자를 위한 불교〉는 불교를 처음 만난 초보자들에게는 안성맞춤인 입문서. 교리 및 사찰예절과 의식, 선 등 불교에 대한 기초지식과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 세계불교의 역사와 현황, 한국불교의 역사와 명찰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 궁금해 할만한 것들은 문답식으로 풀이했으며, 중요한 용어도 풀이해 실었다. 〈불교시대사, 7천원〉

화제의 책

불교와 환경 | 법륜스님 지음

환경문제 해결책 불교서 찾아



환경문제는 단순히 공기와 물이 오염되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사회 내부에 축적된 모순들이 밖으로 드러난 문제이자 현대문명의 문제다.

이 책은 환경문제를 서로 연관되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만의 삶을 위해 자연을 파괴한 과보로 본다.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 인간에 의해 파괴된 자연환경을 복구하는 일은 자연과 인간이 일체라는 관점에서만 가능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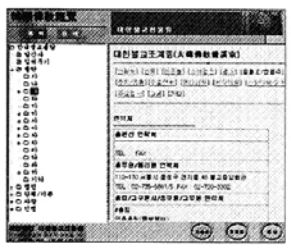
불교가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상이라는데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접근방법이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는 책이다. 〈정토출판, 5천원〉

한국불교총람 CD롬 발간

〈한국불교총람〉을 CD-ROM으로 볼 수 있게 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총 1천1백여쪽에 달하는 〈한국불교총람〉의 내용을 담은 CD-ROM을 4일 발행했다.

98년 6월 발행된 개정판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이 CD-ROM은 초기화면에 종단, 법인, 단체/기관, 사찰, 인명 등의 항목을 설정해 놓고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면 가나다순의 목차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목차별 검색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 명칭, 주소, 소속 등의 항목 중 찾고자 하는 단어의 일부를 입력해 일괄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내장돼 있다.

조계종 등 50개 불교종단에 대해서는 총무원, 종지, 소의경전, 주요사업, 산하단체, 교세 등을 정리해 놓았으며, 1백50여 불교관련 각종 법인의 설립목적과 주요연혁 등 각 특성에 따른 역사와 현황을 실었다. 총 5천여 불교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신행/포교, 청년/학생, 교육/연수, 사회/복지, 언론/출판, 학술/문화 등 성격별로 분류해 그 특성에 따라 원하는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국내 1만3천여 사찰은 도별 분류 및 소속종단, 소장문화재 등을 명기해 놓았다. 값 6만원.

'존재의 의미' 詩로 기록



임완숙 시집 '바다에 내리는 비'

조계종 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인 임완숙 시인(이화여고 교사)의 시집 〈바다에 내리는 비〉(오감도 刊)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성찰의 기록이다. 기계 문명의 노예가 된 현대인을 인간성 회복의 장(場)으로 나아가게 하며, 공(空)의 공간에서 소멸과 생성으로 윤회하는 존재를 바라보게 한다.

'눈 비비는 봄/일찍이/잔설의 틈 비집고 일어나/…/삶의 마지막 끈/툭툭 털며 춤추는 민들레/슬프도록 흥겨운 잔치 한마당'(시 '민들레를 노래함'의 일부)

민들레와 눈은 언제나 순환의 과정에 놓여 있을 뿐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공(空)의 공간에서의 윤회. 시인에게 있어서 소멸은 영원한 존재의 전체에 속할 뿐이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순수로 지향해 가려는 시인의 의지가 드러난다.

'반가사유상' 등 몇 편의 시는 영역을 해 놓았다. 시어머니 고옥남씨(79·전 숙명여대 영문과 교수)가 며느리의 불심을 고스란히 옮겼다.

임완숙시인은 71년 '시세계'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했다. 값 5천원

한명우 기자

새로나온 책



▲멀리 가지 않고 꿈꾸기=탈 현실의 충동이 시 세계 저변에 깔린 최미순 시인의 두번째 시집. "세상 속에 섞여 잘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시적 자아는 끝없이 세상 바깥을 떠돈다. 그것은 대체로 여행의 형태를 띤다. 세상과 오랫동안 불화하고 있는 시인은 "세상 밖으로 세상을 지나 세상 속으로 가는 길"을 꿈꾼다. 그리고 그 길은 해탈의 길과 겹쳐져 있음을 보여준다. 〈불일, 5천원〉

▲쿤달리니 탄트라=이 책은 요가가 인간의 의식 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철학, 사회·문화적 구조, 과학적 입장에서 다차원적으로 다루고 있다. 쿤달리니란 산스크리트어로 '잠재된 상태에 있는 힘'을, 탄트라는 '확장'의 의미다. 저자는 요가와 탄트라의 현대화에 힘썼던 스와미 사티아난다 사라스와티.〈양문, 1만5천원〉

▲신 토정비결=한자문화의 영향으로 어렵게 구성돼 있는 토정비결을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책. 하지만 토정비결은 운명의 노예가 아닌 미래에 대비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한국 역술인협회 중앙회장 백광씨. 〈관음출판사, 7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에는 꽃이피네	법 정	동쪽나라
2	참선요지	대 성	여시아문
3	산은 산 물은 물	정찬주	민 음 사
4	한국불교 기도성지	정성운외	불교시대사
5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6	자기를 바로 봅시다	성 철	장경각
7	영험도량에서 소원성취한 이야기	진현종	대원미디어
8	불교신행의 주춧돌	우 룡	효 림
9	있는 그대로	마하리쉬	한문화
10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홍사성	장 승

구입문의:(02)737-0695

염불 禪 주말 수련회 (토요일 저녁9시 / 일요일 아침7시)

외서 보라! 수행비전의 완벽한 테크닉을!

- 목탁치지 않고 자성의 운률에 맞춰 힘차고 박력있게 경쾌하고 신명나게 재미있고 리드미컬하게 행주좌와 동정간에 자동으로 염불되고 단전호흡되는 한국불교 전래이래 처음 공개되는 염불禪 수행법
- 큰소리로 장시간 염불해도 절대 목이 아프거나 쉬지않고 오히려 목소리가 트이며 말더듬, 실어증이 극복되고 가슴이 탁트여 시원해지며 피로감을 모르는 용맹정진시 용이한 수행법
- 염불 수행시 허가 이완되어 입천장을 탁탁치면 대뇌가 각성되어 또렷또렷해지며 졸음과 혼침이 극복되고 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전의 맺힌 기가 풀리며 스트레스는 저절로 해소되고 올곧은 자세가 계속 이어진다.

♣ 근심 걱정의 악업이 가슴에 맺힌 한이, 병고액난의 괴로움이 번개치듯 녹아내리고 문제해결의 지혜가 순간 떠오르며 긴절한 소원은 즉각이루는 기도 수행시 가장 용이한 염불법이다.

- 독경을 잘하려면 세로쓰기 한글 경전을 한줄씩 읽고 왼손가락을 하나씩 헤아리면 오른뇌의 직관이 열리며 집중력 기억력 좋아지고 번뇌망상의 잡념이 현저히 줄어들고 또렷또렷하고 정신맑은 상태로 독경삼매 이른다.

※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들숨과 날숨과 숫자를 절 동작에 대입하면 자동단전호흡되고 또렷하게 숫자가 헤아려지며 삼천배를 하여도 절대 숨차거나 헐떡대지 않고 몸살나지 않으며 힘들지 않는 가장 진보된 수행법이며 최고의 건강법이다.

- 시중의 단전호흡은 부처님 호흡법이 아니며 수련을 잘못하거나 몸에 맞지 않으면 멍치 아프고, 옆구리 결리고, 혈압 오르며, 머리 무겁고, 위장 병 생기며 얼굴 노래지다 걸어지며 병이 되니 돈낭비, 시간낭비 하지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저절로 단전호흡되고 기도되는 염불禪으로 불자답게 수행하십시오.

- 수행내용 : 한글금강경 봉독, 석가모니불 염불정근, 참선, 와선, 행선, 호흡에 맞춰 108배, 도인건강법, 축원기도 7회
- 예약수련 30명, 넉넉한 복장, 초심자 기본수행법교육(7시~8시)
- 불자기업 오스트세이빙테크(주)에서 수련회비 일체를 후원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금강지혜보궁, 두타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7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통신과정 - 수시입학
-학력, 연령 제한없음
-교리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 불자가 아니라도 관계없음

※교재+테이프"
집에 앉아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정규과정
3월 8·9일 주·야간반
(선착순 3,000명)

■일반 강의: 우학스님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이며 주지스님

■특별 강의:
박삼중 스님,
인환 스님 등 큰 스님

☞문의는 영남불교대학
053)474-8228

애독자 사은 생활 기공지도

독자 여러분의 요청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은 수련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생활 기공 지도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 내 용 ·
가. 변성의식 상태수련
「보이지 않는 것을 과학한다」
도서출판 물병자리 박희준 옮김 참조
나. 공기공과 원극공
「고차원 치료 능력자들의 세계」
도서출판 단. 박희준 지음 참조
다. 정심조식법(正心調息法)
(소망성취에 도움이 되는 염력 개발 특수 호흡법·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임)
라. 오라 충전법 기타.

· 일시와 장소 ·
가. 일 시 : 1999년 1월부터 수시접수
나. 장 소 :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학회 교실
(전화 02)720-5682/ 725-2311)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 B/D 809호
다. 지도자 :
번역저술가·레이키 마스터·티쳐 박희준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도로 레이키법도 전수합니다.

뜻대로 사는 길 아·봐·타

Avatar.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까?
'나'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깨달음이 당신의 소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봐타를 경험하세요!

- 아봐타는 신념이 경험에 우선한다는 일체유심조의 원리에 기초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현재 61개국, 14개 언어로 전수되고 있다.
- 아봐타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체계를 자유자재로 관리하여,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 원치않은 삶의 부분은 소멸하고, 원하는 삶만을 창조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 아봐타 코스는 종교색이라곤 전혀없이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로부터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으로 구도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 아봐타 코스는 불교 심리학을 실용화했으며 참선 수행등을 좀 더 보편화하여 평소 안고 있던 화두를 참구하는데 느낌을 보태어 깨달음을 점수케 한다.

"아봐타 코스는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이 코스는 인간의식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해탈을 이루게 하는 힘을 넣어준다."

아봐타는 당신이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당신을 찾아갑니다. 아봐타의 이름으로..

- 아봐타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영축 아봐타센터에서는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9시에 코스를 시작합니다.
- 아봐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주십시오.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영축 아봐타 센터 0523)381-1143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474(통도사 근처) 011)882-1149

'99 건축문화의 해
THE YEAR OF ARCHITECTURE

'99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현재의 사찰건축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건축은 단순한 건조물이 아니라 그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총체적인 종합예술품이다. 불교는 불국사 부석사 수덕사 등 각 시대마다 견고하면서도 독특하고 찬란한 건축유산을 남겨 시대를 선도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해 왔다.

그러나 지난 70년대 부터 일어난 대규모 사찰건축 붐은 IMF가 발생되기 전까지 활발하게 이어졌는데 어설프게 전통건축을 흉내내거나 무조건 크고 조급하게 지어 주위와의 조화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조악한 건물들이 양산돼 뜻있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따라서 올해 건축문화의 해를 우리 불교 건축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잘못된 건축불사의 관행은 무엇이고 사찰건축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사찰건축불사 현주소

무조건 크게 짓고 어설픈 전통모방 자연경관 무시

●김개천씨(이도건축 대표)=문화적 정체현상에서 비롯된 어설픈 전통흉내내기로 지난 날의 향수에 젖어 과거의 시간속에 안주하려 드는 행위의 나태함은 이 시대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수천년 길이 후손에 물려주어야 할 기존의 전통건축과 문화의 파괴행위에 다름아니다. 또 옛날과는 다른 새로운 건축환경인 도시 한가운데에 사찰을 지으면서도 3~4층의 화강석 박스건물위에 지붕은 기와로 덮어야만이 마치 전통불교건축의 자랑스러운 계승이라는 강박관념도 타파되어야 한다. 전통건축의 복제나 어설픈 모방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시대의 불교건축은 더이상 건축문화의 발전적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며 이 시대 주체적 문화창달자로서의 기능까지 상실할 수 있다.

●홍윤식 교수(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사원은 불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무어냐에 따라 형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불교건축에는 우리 사회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고 신앙행태와 양상, 시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불교건축이 예전과 같이 시대를 선도하려면 신앙결사운동과 같은 근본적인 신앙행태에 대한 반성과 대안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범하스님(통도사 박물관장)=목조가 대부분인 사찰은 무조건 크게만 짓기보다는 목조만의 조형미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보수를 통해 원형을 그대로 살려야 함에도 비용이 더 든다는 이유로 차라리 새로 짓자는 생각때문에 고유의 아담한 아름다움을 지닌 목조건축들이 사라져 버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러한 의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장충식 교수(동국대 고고미술사학)=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과거에 지어진 전통불교건축은 최고의 기술자가 동원돼 불교교리에 맞춰 산세와 지형 그리고 주위와의 조화를 고려해 지어진 건축물인데 반해 현대에 지어지는 사찰건축은 기능적인 면만 강조되어 조화미는 없이 무조건 커지는 경향이 있다. 탑의 모양이나 새기는 조각들도 불교교리에 의한 상하개념없이 값에 따르거나 형태만을 보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불교교리에 맞아야 한다.

●김봉렬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과거시대처럼 불교건축이 시대를 선도해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주지등 스님들의 안목이 과거 사찰건축자로서의 스님들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성을 창조적으로 살리지 못하기에 허울만 전통사찰인 경우가 많고 도심사찰도 도시에 어울리지 못하는 어정쩡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불교건축을 아는 전문설계사에게 의뢰하거나 종단차원에서 스님들을 위한 건축교육이 꼭 필요하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건축문화의 해' 이광노 조직위원장

"고건축 전통 계승에 역점"



"일반인들이 건축에 대한 상식을 넓힐 수 있도록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특히 사찰건축 등 고(古)건축물에 대한 상식과 중요성 인식은 보존을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99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장 이광노 서울대 명예교수(71)는 '건축문화의 해' 기념 사업계획을 설명하며 "고건축의 보존과 전통계승을 통한 현대화를 기조로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새롭게 가꾸어 나가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특히 사찰측의 관리 부주의로 전통건물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또 사업계획과 관련해 "화재나 충해(蟲害)로 인한 소실, 관광객에 의한 파손과 낙서 등은 모두 고건축물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가 99년 한 해동안 전개할 사업으로는 △한국건축 5천년사 전시회 △고건축 탐방회 △문화의 거리 조성 캠페인 △고건축 관광안내도 제작 △건축문화 정보센터 설립 등이 있다.

특히 '한국건축 5천년사 전시회'에 대해 이위원장은 "한국건축 5천년사에서 불교건축이 차지하는 위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며 "오는 6월 열리는 전시회를 통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je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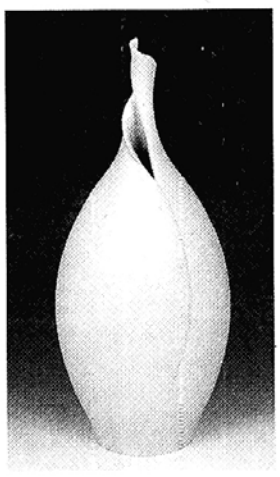
'태우고 또 태워 한국의 얼굴로 남았다'

설봉스님 도자기전

설봉스님(강화도 무애원 주지)의 도자기 전시회가 18일까지 서울 신라호텔 옆 서울클럽 한라산홀에서 열린다.

'태우고 또 태워 한국의 얼굴로 남았다' 주제로 열리는 이번 도자기전시회에서는 갯벌흙, 논흙, 마사토, 황토, 소나무재, 쑥재 등을 원료로 스님이 유일하게 개발한 유약을 사용한 도자기 1백여점이 전시된다. 스님이 오랜 인고와 연구끝에 개발한 천연유약을 사용한 도자기들은 명주 옥양목 삼베 등에서나 볼 수 있는 자연스럽고 친근한 색깔로 만들어져 마음에 촉촉히 젖어드는 한없이 포근한 백자의 세계를 열고 있다.

설봉스님은 "새로운 재유약을 성공시키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열번 실패하면 열한번 일어서는 끈기와 집념으로 작업에 매달렸고 끝내 상식의 틀마저도 깨뜨리고 난 후에야 재유약의 신비로움에 젖어들 수 있었다"며 "모시나 명주처럼 부드럽고 푸근한 우리 옛 옷감에서 느끼는 색과 감정을 백자에게서 느끼게 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02)238-7666



◇갯벌흙, 황토, 소나무재 등을 이용한 천연유약으로 만든 설봉스님의 도자기.

벽응스님 범패CD 발간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기능보유자 장벽응스님(김포 문수사)이 범패 CD를 펴냈다.

김포문화원(원장 유지만)이 벽응스님의 업적을 기려 제작과 출간을 맡은 이번 CD 1집에는 벽응스님 특유의 훗소리, 상주권공 중에서 할향(喝香), 등게(燈偈), 정례(頂禮), 창혼(唱魂)과 지옥게, 합장게가 벽응스님 목소리로 수록되어 있고 2집에는 상주권공중에서 화청, 회심곡 등이 들어있다.

박범훈교수에게 배우는 전통음악

EBS, 14~28일 방송



TV 프로그램의 배경 음악이 국악으로 편성된다면 우리 음악이 한층 친근하게 다가오고 쉽게 배울 수도 있지 않을까. EBS-TV가 14일부터 2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방영할 '박범훈의 세계로 가는 우리 음악'(담당PD 강영숙)은 그 가능성을 시험하는 무대다.

국립국악관현악단장인 박범훈 중앙대교수가 진행하는 이 프로에서는 '생활 속의 국악'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창작 국악, 한·중·일 3국의 전통 음악 등을 소개하며 21세기 우리 음악이 나아갈 방향을 찾는다. 또 오느름 국악 실내악단과 최진숙명창, 개량악기인 22현 가야금 등의 연주도 곁들여진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20분부터 40분간 방영될 '박범훈의…'는 △14일=새로운 시도! 국악의 창작 음악 △21일=한·중·일 음악-아시아의 화음 △28일=대중 속의 국악, 생활화된 국악 순으로 방영된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해외소장 한국문화재 조사보고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이정빈)이 해외소재 3만5천여점의 우리 문화재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도록 8권의 마지막편인 일본편을 펴냈다. 재단은 세계 3대 박물관이라는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영국 대영박물관, 프랑스 기메 박물관 등에 독립한국실을 마련하기도 했다.

10여년 동안 14개국 1백10여 박물관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조사를 마무리한 재단은 '해외소장 한국문화재 조사사업 결과보고 세미나'를 구랍 23일 개최했다. 조사사업에 참가했던 김광언교수(인하대)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현지 전문학자 양성과 유물 구입에 대한 정부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덴마크 국립박물관, 함부르크 민족학박물관 등 조사되지 않은 곳에 대한 추가 조사와 일본 소장 우리문화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 파견 전문 큐레이터 양성도 지적됐다.

강지연 기자

명비고탁전 삼국~고려 금석문 희귀탁본 120점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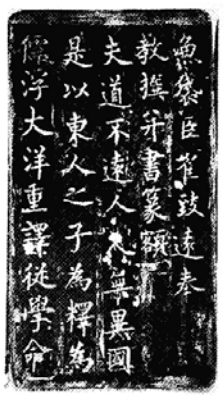
묘향산 보현사비첩등 20여점 첫 공개

예술의 전당 서예관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금석문중 희귀탁본을 모은 '한국의 명비고탁전(名碑古拓展)'을 개최한다.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고탁전에서는 어눌한 서풍의 삼국시대부터 서체가 정형화되고 국제화되는 통일신라, 구양순계통의 서풍이 주도하는 나말여초, 탄연을 중심으로 한 왕희지 복고의 고려중기, 조맹부서체가 유입되는 고려말까지 우리나라 1500여년간의 서풍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 금석문중 가장 많이 채탁된 신라 최고 명필 김생의 '태자사낭공대사백월서운탑비' 6종7점을 비롯, 최치원의 '쌍계사 진감선사대공탑비' 고려시대 조각의 세련미극치를 보여주는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비' 등 모두 120여점이 선보이는데 대부분 불교관련 탑비들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일연선사의 인각사비 4종도 전시되며 북한 소재 유물로 국내소장 희귀본인 '묘향산보현사비첩(규장각)' 등 20여점은 처음으로 전시되는 것이다.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명(887년 제작). 최치원이 글을 짓고 구양순체로 쓴 것으로 온아하고도 독특한 필체속에 굳센 기상을 느낄 수 있다.

갓바위부처님 캐릭터 사업 대구동구청-경산시 '대립'



기도처로 이름높은 팔공산 갓바위부처님이 대구 동구청에 의해 캐릭터(사진)로 형상화됐으나 경산시가 경산지역 문화재를 도용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산시는 대구 동구청장에게 보낸 항의공문에서 갓바위의 소재가 경산시 관할이며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를 임의로 형상화해 캐릭터로 하는 것은 문화재 보호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대구 동구청은 갓바위 캐릭터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인 반면 갓바위 선본사 스님들도 갓바위 부처님을 희화화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우룡큰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Ⅰ. 지성(至誠)으로 살자
Ⅱ. 불자의 살림살이
Ⅲ. 불자의 축원
Ⅳ. 불자의 기도
Ⅴ. 일체고액을 벗어나는 길
Ⅵ.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알기쉬운 불서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신국판 / 7,000원

관음신앙·관음기도법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B6 / 값 3,500원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많은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불문 속에 우리나라 불교신앙의 진수가 담뿍 담겨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이요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이런저런 궁금증들……. 이 땅에 정착된 불교신행의 전수를 이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담았습니다.

Ⅰ. 새벽예불
Ⅱ. 오분향례
Ⅲ. 부처님이시여, 크나큰 ...
Ⅳ. 거룩한 사대보살
Ⅴ. 영산회상의 ...
Ⅵ. 불법은 승보가 호지한다
Ⅶ. 자타일시성불도

... 5,000원

법보시는 위 이사는 분은 ... 하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팔정도의 정념 禪의 원류

경전 속의 禪 사상 2

잡아함경 〈상〉

글쓴이

김 정 빈
〈작가〉

'팔만대장경'이라고도 불리는 한역대장경(漢譯大藏經)은 매우 방대하여 여러 부(部)로 분류되고 있는데, 아함(阿含)은 그중 한 부를 이루어 아함부(阿含部)라고 일컬어진다. 그리고 아함부는 다시 잡아함(雜阿含), 중아함(中阿含), 장아함(長阿含), 증일아함(增一阿含) 등 사아함(四阿含)으로 나뉜다.

그렇다면 이들 네 아함은 단일 경전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잡아함경은 무려 1362경이나 되며 중아함경은 224경, 장아함경은 30경, 증일아함경은 472경을 모아놓은 경전군인 것이다.

근래에 들어 아함경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다. 그것은 아함경들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아함경을 철저하게 재음미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승경전들을 등한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함경에 대한 철저한 이해없이는 대승경전의 의미 또한 애매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함경은 사성제(四聖諦)의 체계 안에 모두 수용되어 있으므로 잡아함경 또한 사성제의 틀 안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 가운데 아함경이 선사상과 관련된 부분은 도성제(道聖諦)의 부분이 될 것이다.

아함의 도성제는 일곱 체계로 짜여져 있으며(내용은 생략), 그것을 모두 합하면 서른 일곱이 되므로 이를 삼십칠도(三十七道)라고 부른다. 그리고 일곱 체계를 대표하는 것이 널리 알려진 팔정도(八正道)이다(잡아함경 785 廣說八聖道經). 팔정도는 다시 계·정·혜(戒定慧) 등 삼학(三學)으로 정리되며, 팔정도와 삼학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정견(正見) 정사(正思)=혜학(慧學)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계학(戒學)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정학(定學)

삼학으로 구성된 아함의 수행체계는 3층 피라밋을 구축해 올라가는 것과 같다. 1층이 계학이요, 2층이 정학이며, 혜학은 3층에 해당된다. 팔정도에서는 혜학이 앞에 있지만 실제 수행에 있어서는 계-정-혜의 순서가 되는데, 선사상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2층에 해당되는 정학, 그중에서도 팔정도의 일곱 번째 덕목인 정념이다.

위빠사나는 정혜쌍수 수행
사마타 삼매 성취에 그쳐

정념은 다시 사마타(Samatha)와 위빠싸나(Vipassana)도 나뉜다. 한역 아함에서는 사마타를 지(止), 위빠싸나를 관(觀)이라고 번역하고 있다(잡아함경 187 止經). 아함에 의거할 때 부처님께서는 사마타 수행법으로써 모두 서른여덟 가지를 제시하셨고, 위빠싸나 수행법으로서는 오직 한 가지를 제시하셨을 뿐이다. 이 때문에 위빠싸나는 일승도(一乘道), 즉 '오직 한 길'이라고 불린다(잡아함 535 獨一經 1). 사마타를 닦은 수행자는 여덟 가지 삼매(팔정도의 여덟 번째 덕목)를 성취한다. 그 말은 사마타 수행자는 삼매, 즉 정(正)만 얻을 수 있을 뿐 깨달음, 즉 반야지(般若智)는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비해 위빠싸나를 닦은 수행자는 삼매를 거쳐 깨달음을 성취한다. 따라서 위빠싸나야말로 정혜쌍수(定慧雙修)의 수행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선(禪)이라는 말은 본래 범어 드야나(Dhyana)를 음역(音譯)한 말이다. 그리고 드야나는 정려(靜慮), 선사(禪思)라는 의역(意譯)으로서도 알 수 있듯이 '생각을 고요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드야나는 팔정도의 여덟 번째 덕목인 정정과 유사한 뜻을 지닌다.

그런데 중국에서 발흥한 선의 경우 '선'이라는 말이 '생각을 고요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도리어 선은 생각을 끊거나, 마음을 넘어서거나, 한생각 하기 이전을 지향하는 수행법이다. 다시 말해서 선은 순수직관(純粹直觀)을 통해 자신과 세계 사이를 가리는 모든 망념(妄念)을 타파하는 것이다.

에드워드 콘즈의 지혜의 길

우리의 깨달음은 다섯 가지 기본적인 덕(德)인 믿음(信), 정진(精進), 마음챙김(正念), 선정(定), 지혜(慧) 등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평범한 속인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감각에 근거한 본능과 충동의 지배를 받는다. 만약 우리가 정신적인 삶을 향해 보다 노력한다면 우리의 정신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우세해지고 결국은 다섯 가지 덕이 탁월해질 것이다. '덕'에 의해 우리의 모든 행위, 생각, 감정들을 올곧게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산스크리트어에서 이러한 덕목들은 'indriay(인드리야)'라고 총칭되며, '감관' '정신적 능력'이라는 뜻을 갖는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 바라보고 느끼는 현상(現象)의 세계, 즉 유위(有爲)의 세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니르바나(Nirvana)라고 불리는 열반, 즉 깨달음은 무위(無爲)에서조차 벗어남으로써 완전히 증득할 수 있다.

불교학자 뿐만 아니라 불교를 접했던 많은 사상가들은 '무위'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데 주력해 왔다. 또 사상가들은 "고(苦)는 고통이나 괴로움을 뜻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실존적 불안이라고 알려진 근심, 불안 등을 뜻한다" "인간은 자신이 본질상 영원불멸하며 모든 것을 마음 놓고 충분히 지배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하기 때문에, 고(苦)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은 전혀 만족을 모르는 채 세간을 살아가며, 자신의 미움과 분노를 발산하고 싶은 대상들도 찾아낸다" 등 우리가 무위의 세계로 향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의 본래 자성이 경험적 세계에서 따로 떨어져 있다는

"믿음 선정 등 5덕 개발
깨달음 이룰 수 있다"

자성 찾아 무위에서도 벗어나야

것이고, 그것을 알게된 우리는 본래 자성을 찾고 싶어하는 '갈망'으로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본원적인 청정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믿음, 정진, 마음챙김, 선정, 지혜 등의 덕목을 개발함으로써 스스로 혁신해가야 한다. 믿음과 정진은 불교적 사고가 지닌 종교적 성격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마음챙김과 선정은 요가적인 근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지혜는 철학적인 이해의 중요한 원천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덕을 개발하고 혁신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덕들이 충분히 성숙된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무위의 세계로 발전을 접근할 수 있고, 공(空)·무상(無相)·무원(無願)이라고 하는 해탈의 문을 통해 열반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열반은 모든 언어와 개념을 초월하여 자아가 정지된 무여열반의 상태를 말한다.

불교란 본질적으로 깨달음을 찾는 종교이다. 부처님의 8만4천 법문은 바로 우리에게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문들은 하나같이 법문을 듣고 있는 개개의 모든 대상들의 정신적 발달, 즉 '근기'를 살펴 설해진 것이다.

영국의 전통 철학인 경험론의 지지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떤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말을 스스로 검토하고 시험해서 그것을 깨닫고 보고 느꼈을 때만 받아들여라"고 강조한다. 이 뜻은 불교를 실제로 '알기' 위해서는 얼마나 깊고 성숙한 통찰력이 요구되는 가를 강조하는 것이다.

번역=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에드워드 콘즈는 英 대표적 불교학자

에드워드 콘즈(Edward Conze 1928~1979)는 반야계 경전을 연구했던 영국의 대표적인 불교학자. 독일 출생. 런던대학에서 박사학위, 본과 함부르크대학에서 인도의 예지와 서양의 철학을 강의했다. 1933년 영국으로 망명한 그는 런던 옥스포드대학에서 심리학, 철학, 비교종교학을 가르쳤다. 영국의 서머셋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불교를 주제로 단행본 18권, 논문 92편 그리고 2백여편에 달하는 서평과 수상을 남겼다. 〈한글세대를 위한 불교〉, 〈불교-지혜의 원천〉, 〈인도불교사상사〉 등 저자 국내 소개. 〈지혜의 길- 다섯 가지 정신적 기능(The Way of Wisdom-Five Spiritual Faculties)〉은 1964년 영국과 1980년 스리랑카에서 출간됐고, 1993년 인터넷 달마넷(DharmaNet)에서 전자출간됐다.

과학산책 우주는 왜 무에서 탄생했나 ①

■ 우주에는 시작이 있었다

우주론(Cosmology)은 20세기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학문의 하나이다. 그 성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주는 진화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생물의 진화는 19세기부터 다윈 등에 의하여 주장되어 왔다. 그 생물이 존재하는 지구도, 태양계를 비롯한 모든 천체도 모두 진화해 온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천체가 존재하는 우주 공간 그 자체도 진화해 왔다. 그리고 생명에도 탄생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주 공간에도 탄생의 순간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우주는 왜, 그리고 어떻게 하여 탄생한 것일까?

우주 공간의 진화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진화보다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 좀더 적절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이론적으로는 아인슈타인(A.Einstein:1897~1955)의 '일반 상대성 이론(一般相對性理論)'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우선 구체적인 현상부터 설명하기로 하자.

우주에 흩어진 은하를 관측하면, 은하는 서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만 들으면 우주의 모든 은하는 한 곳에서 사방팔방으로 날아가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주에는 은하가 거의 균등하게 흩어져 있어서 우주의 중심인 것 같은 장소는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은하는 실제로는 움직이고 있지 않으며, 단지 은하가 존재하는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공간(無) 요동서 우주 태어나
상대성이론 우주팽창 예언

빵 반죽 안에 들어 있는 건포도 알이 빵이 부풀어 오름에 따라 서로 멀어지는 모습을 생각해 보자. 빵의 반죽, 즉 건포도가 존재하는 공간이 팽창하므로 건포도는 움직이지 않지만 서로 멀어지는 것이다. 2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막 위에 그려진 점은 막이 팽창하면 서로 멀어지는 현상과 같다.

아인슈타인은 공간은 팽창하거나 수축하거나 일그러진다는 이론, 즉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다. 이것은 중력(만유 인력)의 새로운 이론으로서 제안된 것이다.

처음에 이 이론은 우주와는 관계가 없었는데 프리드만(A. Friedman)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우주 전체에 적용하여 우주 공간 전체는 팽창 또는 수축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공간이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일을 '공간의 운동'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 운동은 보통 물체의 운동과 완전히 같아서 그것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의 세기, 결국 관성(慣性)에 의하여 결정된다. 공간에 작용하는 힘에는 공간 자체의 구부러짐, 공간 내부에 존재하는 물질의 양, 그리고 공간에 내재하는 에너지의 세가지가 있다는 것을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알게 되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 은하가 흩어져있는 우주모습.

현재의 우주는 팽창하기 시작한 세력으로서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 단계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공간 자체의 구부러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투명하다.

현재의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결국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수축한다는 것이 된다. 모든 천체가 서로 접근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천체가 서로 접촉하면서 수축한다면, 우주는 현재의 모습과 같지 않다.

실제로 물질의 성질에서 그리고 현재의 우주 공간의 팽창 비율에서 백수십억년 전의 우주는 모든 물질이 그 구성 입자로 분해된, 초고온·초고밀도의 수프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대의 우주를 '빅 뱅 우주'라고 한다.

물질은 무수의 원자가 모인 것이다. 원자는 그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에 하나 또는 여러개의 전자가 움직이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원자핵은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인 것이다. 양성자나 중성자는 쿼크(quark)가 세 개씩 결합하여 형성하고 있다. 현재 물리학에서는 쿼크와 전자를 가장 기본적인 입자로 보고 있다. 〈계속〉

월간 〈과학 Newton〉서 발췌

佛紀 2543年 (己卯年) 謹·賀·新·年

시작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大韓佛教 曹洞宗
종 정 박 운 파
부 종 정 정 영 봉
승정원장 윤 지 명
총무원장 윤 송 정
종회의장 신 법 련
감찰원장 강 연 봉
선 원 장 석 덕 운
포교원장 박 달 제
교육원장 강 범 해
호법원장 한 학 봉
문화원장 안 송 봉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2동 570-6번지
TEL : 02)642-2090, 20910(FAX 겸용)

대한불교 삼론종
종 정 대 산
부종정 석 봉
승정원장 각 화
총무원장 혜 공 종앙종회의장 대 아
부 원 장 진 봉 사정원장 신 수
총무부장 청 봉 재정원장 혜 광
교무부장 인 봉 포교원장 법 진
재무부장 지 연 호법원장 대 운
사회부장 암 도 교육원장 정 봉
홍보부장 지 겸 수선원장 대 심
문화원장 우 담
교리연구원장 현 강
삼론종 종도스님들께서는
모든 신분증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2동 4-8
전화 : 02)3216-0165 / FAX : 02)3216-0166

한국대승불교 여래종
종 정 석 인 왕
원로원장 김 무 공 총무원장 신 혜 안
종회의장 신 명 안 호법원장 김 법 우
교육원장 김 해 동 포교원장 홍 법 룡
강원교구 종무원장 허 법 성 경북교구 종무원장 권 도 연
충북교구 종무원장 추 월 산 경기교구 종무원장 최 법 일
경남북부교구 종무원장 조 법 성 광주교구 종무원장 이 동 화
강원영동 분원장 김 법 성 경북북부 분원장 김 태 인
종립정법불교대학학장 명 안 성남불교연꽃유치원원장 신 순 복
▶ 총무원: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 72
(경북 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앞산 약사사)
전화 : 0475)731-2261
▶ 서울·경기종무원: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산 7 약사사
전화 : 0342)734-3205 / FAX : 0342)734-3205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龍谷藝家 조기동거사 가족

아버지와 2남4녀 佛心-藝心의 도반



◇지난해 여름 전국을 무대로 활동중인 용곡 조기동씨의 가족들이 '가족 7인전'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뒷줄 왼쪽부터 장남 재호, 장녀 정아, 차녀 영랑, 차남 진호씨. 앞줄 왼쪽부터 4녀 정아, 어머니 차정애, 아버지 조기동, 3녀 화영씨.



◇장남 재호씨의 '고뇌속의 깨우침'.



◇장녀 정아씨의 '옛것으로부터'.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용곡예가(龍谷藝家). 거침없이 달리는 자동차 광음으로 세간의 소음 가득한 1번 국도와 마주선 시골마을에 자리한 용곡예가가 보인다. 이곳에서 서예가 용곡 조기동(69) 선생과 여섯 자녀들은 불심(佛心)과 예심(藝心)으로 기묘년 새해를 맞이했다.

전남 화순 북면 용곡리 태생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붓글씨를 시작, 일평생 붓과 더불어 살아온 용곡선생은 행초서에 능한 원로서예가이자 광주 금광사(주지 증궁스님) 신도회장이다. 불우이웃돕기에 서슴없이 작품을 쾌척하는 보살심으로 넉넉한 노년을 보내는 예술가 불자다.

"일흔이 다 돼 갑니다. 매년 회향한다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주력하고, 수천가닥의 털이 모인 붓 끝에 힘을 모으고 '반야심경'을 쓰고 있습니다. 99년에도 이러한 마음이 흩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용곡선생의 여섯 자녀들도 아버지의 혼(魂)을 그대로 이어 받은 탓일까. 용곡예가의 기운은 불심(佛心)과 예심(藝心)으로 뒤엉킨 채 예사롭지 않다. 장남 재호씨(42·목포대학교 강사)는 도자기의 일상적 쓰임새에서 벗어나 현대적 미감과 조형성을 살린 도예작품에 매달리고 있다. 거치른 질감의 도자기에 수없이 빗살무늬를 수놓고 혹은 손끝 가는대로 으깨놓은 '살아가는 모습' '고뇌 속의 깨우침' 등의 작품에서 모든 유위(有爲)의 법칙에서 벗어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을 수 있다. 그는 L.A. 북경, 독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초대전을 연 실력파다. 장녀 정아씨(39·전남대학교 강사)는 불교전통 문양을 모티브로 활용, 태고의 신비를 느끼게 하는 현대적인 작품을 즐겨하는 한국화가. 경전, 다라니 등 불교 고문서도 그녀의 작품 소재로 자주 등장한다.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강의하고 있는 차녀 영랑씨(38)와 삼녀 화영씨(36)는 용곡선생의 뒤를 이어 서예와 문인화에 예술혼을 붙고 있다. 사녀 성옥씨(34·난곡서예원 원장)는 불화와 본청사기의 접목을 꾀한 도자불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을 발표해 중앙무대에서 호평을 받았던 도예가이다. 차남 진호씨(32·동신대학교 사진학 전임강사)는 순수미술과는 다소 성격이 다른 광고사진을 전공하고 있다. 큰며느리 이계화씨(38)도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성악을 가르치는 예술인이다.



◇'만가태평춘'(온 가정이 봄과 같이 태평하리라). 용곡 조기동거사의 현대불교 독자를 위한 신년 휘호.

옛말에 '문장(文章) 집안에 문장 나고, 장사 집안에 장사 난다'는 말이 있다. 피내림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타고난 재능과 감각만으로 출용한 예술가가 될 수 없다. 그만큼 예술가의 길은 험난하고도 고달프다. 부단한 자기모색과 남다른 노력이 보태져야 한다. 해서 많은 예술인들은 험난한 창조의 길에 자녀들이 합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런데 용곡선생은 여섯 자녀가 예술가의 길을 택할 때마다 적극적인 지지자였다. 그는 자녀들에게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사당식으로 한문과 서예를 지도했다. "예술적 소양을 기르기에 앞서 무엇보다 예의바르고 참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며 "모든일이 그렇듯 예술 역시 사람이 된 다음에 예술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용곡예가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예술인 가족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가족 모두 금광사 법회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독실한 불자이기도 하다. 누가 등떠밀어 예술가가 되라고 하고, 사찰에 가라 한 것도 아니지만 아버지의 예술 세계를 공경하다보니 자연스레 여섯 자녀 모두 불교의 길을 스스로 택해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매일 반야심경을 씁니다. 결코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글을 쓸 수 있도록 마음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예술가는 깨끗한 품성을 지녀야 하고, 그 품성의 토양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갈고 닦는 것입니다." 작품활동과 수행이 결코 둘이 아니라는 것은 용곡선생의 지론이다.

그래서 그런지 용곡예가 사람들의 작품에는 가족의 사랑과 믿음이 한호흡으로 일궈져 한가정의 예심과 불심의 극치를 만끽케 한다.

"서로의 예술세계를 철저히 존중하고 이해해주는게 관례화돼 있어 가족들은 자유분방하게 자신의 영역을 개척할 수도 있고, 또 서로의 예술혼도 나눌 수 있습니다."

모친 차정애씨의 회갑을 맞아 마련했던 '회갑기념 가족전'에서는 용곡선생의 '금강경', 장남 재호씨의 '고뇌 속의 깨우침', 사녀 성옥씨의 '지장보살' 등의 작품들이 한자리에서 하모니를 이루었고, 당시 예술가 및 일반 가정에도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가족의 끈끈한 유대감과 불심으로 피안의 세계, 화엄의 세계를 빚은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40년간 붓끝에 불심(佛心)과 예심(藝心)을 모아온 원로서예가 용곡(龍谷) 조기동씨(翁).

■ 가족작업장 '용곡예가'

집안전체가 전시장 주민들엔 문화공간

용곡선생과 그 자녀들이 최근 전남 나주시 남평 수원리에 지은 용곡예가는 온 가족이 한 곳에 모여 작품에 몰두하고 싶어했던 소망을 실현한 공간이다. 아버지와 여섯 자녀들의 그림과 글씨 그리고 도자기들이 어우러져 집안 자체가 하나의 전시장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 지역주민들에게도 활짝 열려있는 문화공간이다.

용곡예가는 당초 용곡선생의 고향인 화순에 세워질 계획이었으나 산속으로 들어가면 작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남 나주시 남평읍 감나무 농장부지 5백평을 확보하고, 수개월간의 공사 끝에 지어졌다.

용곡예가에는 용곡선생의 문하생들이 공부하는 20평 규모의 서예원, 대작(大作)도 가능한 1.5루베 가스가마실을 비롯, 벽면이 유리로 처리된 8평공간의 소규모 전시실 겸 차 마시는 공간이 있다. 또 30여평의 도예공방도 갖췄다. 암실을 갖춘 20평 규모의 스튜디오도 서예원 옆에 자리하고 있다. 정원에는 감나무 10그루와 상추며 쑥갓이 자라고 있고, 장남 재호씨의 도예작품 15점이 전시되어 있다.



◇차녀 영랑씨의 '반야심경-탑'.



◇3녀 화영씨의 '맹호연에서(孟浩然辭書)'.



▲4녀 성옥씨의 '지장보살'.



▶차남 진호씨의 광고 사진작품.



◇용곡 조기동거사의 가족은 최근 남평 수원리에 '용곡예가'라는 가족전시실·작업장을 마련했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③

華嚴經 立爲法界 交徹融攝故
화엄경 입위법계 교철융섭고
金剛經 號爲如來 無所從來故
금강경 호위여래 무소종래고
般若經 呼爲涅槃 衆聖所歸故
반야경 호위열반 중성소귀고
金光明 號曰如如 眞常不變故
금광명 호왈여여 진상불변고
淨名經 號曰法身 報化依止故
정명경 호왈법신 보화의지고
起信論 名曰眞如 不生不滅故
기신론 명왈진여 불생불멸고
涅槃經 呼爲佛性 三身本體故
열반경 호위불성 삼신본체고
圓覺中 名曰總持 流出功德故
원각중 명왈총지 유출공덕고
勝鬘經 號曰如來藏 隱覆含攝故
승만경 호왈여래장 은복함섭고
了義經 名爲圓覺 破暗獨照故
요의경 명유원각 파암독조고
由是嵩禪師 唯心訣云 一法千名
유시수선사 유심결운 일법천명
應緣立號 備在衆經 不能具引
응연입호 비재중경 불능구인

〈화엄경〉에서는 법계라 했으니 서로 사무치고 융통하여 포섭하기 때문이요, 〈금강경〉에서는 여래라 했으니 온 곳이 없기 때문이요, 〈반야경〉에는 열반이라 했으니 모든 성인이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이요, 〈금광명〉에는 여여라 했으니 항상 진실하고 불변하기 때문이요, 〈정명경〉에서는 법신이라 했으니 보신(報身)과 화신(化身)이 의지하기 때문이요, 〈기신론〉에서는 진여라 했으니 생멸이 없기 때문이요, 〈열반경〉에는 불성이라 했으니, 삼신(三身)의 본체이기 때문이요, 〈원각경〉에 총지라 한 것은 공덕을 흘려나가게 하는 때문이요, 〈승만경〉에 여래장이라 한 것은 숨겨 덮고 포섭하기 때문이요, 〈요의경〉에 원각이라 한 것은 어둠을 부수고 홀로 비추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으로 수선사는 〈유심결〉에서 '하나의 법에 천 가지 이름이 있는 것은 인연을 따라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다' 하였다. 여러 경전에 두루 있으므로 다 인용할 수는 없다.

或曰佛敎已知 祖敎何如
혹왈불교이지 조교하여
曰祖師門下 杜絶名言 一名不立
왈조사문하 두절명언 일명불입
何更多名 應感隨機 其名亦衆
하경다명 응감수기 기명역중
有時自己 衆生本性故
유시자기 중생본성고
有時名爲正眼 鑑諸有相故
유시명위정안 감제유상고
有時呼曰妙心 虛靈寂照故
유시호왈묘심 허령적조고
有時名曰主人翁 從來荷負故
유시명왈주인옹 종래하부고
有時呼爲無底鉢 隨處生涯故
유시호위무저발 수처생애고
有時喚作沒絃琴 韻出今時故
유시환작몰현금 운출금시고
有時號曰無盡燈 照破迷情故
유시호왈무진등 조파미정고
有時名曰無根樹 根蒂堅牢故
유시명왈무근수 근체견뢰고
有時呼爲吹毛劍 截斷塵根故
유시호위취모검 절단진근고
有時喚作無爲國 海晏河淸故
유시환작무위국 해안하청고

물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미 알았는데, 조사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대답했다. "조사의 문에서는 이름과 말이 끊어졌기에 하나의 이름도 붙이지 않는데 무슨 많은 이름이 있겠는가. 그러나 마음에 응하여 느끼는 그 근기에 따라 이름이 많게 된다. 때로는 자기라 했으니, 이는 중생의 본성이기 때문이요, 때로는 정안(바른 눈)이라 한 것은 모든 모양을 바로보기 때문이다.

때로 묘심(현묘한 마음)이라 한 것은, 비었으되 신령스러우며 고요하지만 우주를 비추기 때문이며, 때로 주인옹이라 하는 것은 예로부터 걸머지고 온 것이기 때문이요, 때로 무저발(밑이 없는 발우)이라 한 것은 처소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요, 때로 몰현금(줄 없는 거문고)이라 하는 것은 금시라도 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때로는 무진등(다함이 없는 등)이라 했는데 이는 잘못된 마음을 비추어 부수어 버리기 때문이요, 때로는 무근수(뿌리없는 나무)라 했으니 뿌리와 꼭지가 견고하기 때문이요, 때로 취모검(불어서 날리는 털도 자를만큼 예리한 칼)이라 한 것은 번뇌의 뿌리를 절단하기 때문이요, 때로는 무위국(무위의 세계)이라 하였으니 이는 바다가 고요하고 강이 맑음과 같기 때문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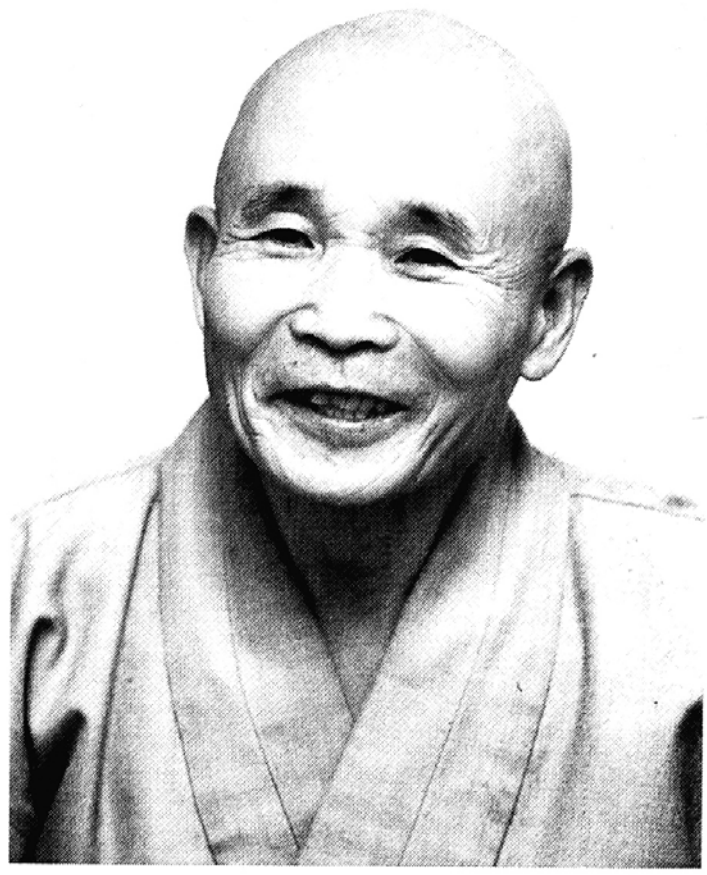
김원각 〈시인〉

보리 법계 여래 등 진심의 천가지 이름은
'하나의 법'을 인연 근기따라 보기 때문

큰스님 수행한담

"미워하는 마음 푸세요

도윤스님 〈쌍용사 주지〉



약력
- 1931년 경북 경산 生
- 1958년 동국대학교 사학과 졸업
- 1960년 관응스님을 은사로 출가
- 1965~72년 정암사 적조암 오세암 봉정암 백담사 주지
- 1980년 중앙승가대 2대 학장 및 이사장
- 1988년 강원도 인제 영시암 창건
- 現 의정부 쌍용사 주석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집안 당숙어른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른이 동국대학교 대학원 원장을 하셨던 고(故) 뇌허 김동화박사님인데 그분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요. 학교 다닐 때 4년동안 한 집에 산 적이 있는데 꼭 부처님을 대하는 것만 같았어요. 훌륭한 스님들을 많이 만나 보았지만 그때 그분 밑에서 느낀 감화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졸업할 즈음 4·19가 났어요. 사회가 어지러웠던 때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분위기였고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산중 사찰에는 훌륭한 선지식들이 계시리라 여겼지요. 김동화선생님은 복천암의 관응스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속리산 복천암을 찾아가 관응스님께 3년동안 공부하고 싶은데 거두어 주시겠느냐고 여쭈었지요. 스님은 허허 웃으시면서 3년 있고 싶냐며 평생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입산을 해도 3년 있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내가 처음 산사에서 공부하고 싶었던 것은 한문에의 욕심이 있어서였습니다. 동양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한문 서적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불교 경전은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경전을 배우면 한문 문리도 트이겠다 싶었습니다.

당시 복천암에는 7명 정도 스님이 계셨는데 서로 무릎을 맞대고 〈서장〉 강의를 들으니까 머리 속에 쏙쏙 들어오고 벌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행복을 느꼈지요. 스님께 머리를 깎고 먹물옷도 한벌 얻어 입었습니다. 행자 생활을 시작하자 참된 삶을 사는 것 같았어요. 낮에는 나무하고 장작패고 밤에는 공부하며 살았지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관응스님께서 직지사로 옮기시는 바람에 우리도 덩달아 직지사로 따라 나섰습니다. 거기에서 1년간 스님은 나전을 가르치시고 나는 전공인 사학을 가르쳤어요. 동양사 국사 문화사의 세 과목을 가르치며 내전 강의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찰에서의 불교 현대화 작업의 시초였습니다. 60년대엔 전국 사찰 어디에도 사학을 가르치는 곳은 없었습니다. 관응스님은 불교의 현대화를 주장하시며 법당 안에 책상과 의자를 놓고 칠판에 분필로 써가며 강의를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모름지기 출가수행하는 이는 내전 외전을 모두 겸비해야 한다는 생각이셨습니다. 부처님이 인도에서 태어나셨는데 인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지요. 아는 것이 힘이고 곧 수행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시며 영어 공부도 시켰어요. 지금도 불교계에서는 교육을 강조하는데 사실 불교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불교가 내분없이 올바른 정법의 길을 가려면 제대로 교육을 시켜 공부가 밑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절 사무를 보고 행정처리를 하는 사판승들도 일정기간은 공부를 해 기초를 잘 닦아 놓아야 합니다. 너무 세속적인 사무에 노출되어 있으면 수행자의 본분을 잊기 쉬워요. 그래서 가끔씩 자신을 돌아보는 공부에 정진해야 합니다.

나는 대학을 나온 덕에 관응스님께 귀염 많이 받았습니다. 스님 밑에 있던 상좌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5·16이 터졌고 나는 은사스님의 허락을 받아 강원도 정선 정암사 위에 있는 적조암에 머무르게 되었지요. 적조암은 내가 제2의 출가를 한 곳입니다. 이미 경전은 어느 정도 배운 상태였기에 가져 갔던 경전이며 책들은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옷 한벌과 바리때 한 벌만 챙겨서 떠났지요. 마음닦는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행안된 사람에게
돈과 권력을 주는 것은
미친이에게 칼 주는것 같아"

적조암은 말이 암자지 그야말로 토굴생활이었습니다. 혼자서 나무하고 농사짓고 살다보니 자연히 묵언을 하게 됐지요. 낮에는 채소키우고 나무하고 밤에는 앉아서 참선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주경야독(晝耕夜讀) 아닌 주경야선(晝耕夜禪)이었지요. 밤에 잠을 자지 않다보니 낮에 졸지 않기 위해 열심히 몸을 움직이며 일을 했습니다. 1년여 만에 적조암에서 정암사로 내려와 혜진스님께 참선지도를 받았습니다. 혜진스님은 청담스님, 향곡스님과 도반이셨던 분이죠. 한 3년정도 참선 수행을 했지요. 화중생련(火中生蓮)이라고 불 가운데 연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선(禪)입니다. 선이란 자신의 능력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고, 참선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선정에 들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참선은 깊은 산중에서 가부좌를 튼 스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자 여러분도 꾸준히 참선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합니다. 물론 산중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네처럼 할 수야 없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씩, 자기 전에 아니 자면서도 자신만의 화두를 찾아 참선을 하시면 우선 생활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정암사에서 선수행을 하고 설악산 백담사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빈터만 남은 오세암에 올라가 그 터에 이불을 천막처럼 치고 살게 됐습니다. 또다시 토굴생활을 시작한 거지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참선에 몰두하는 장좌불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적조암에서 참선하던 때와는 달리 이젠 참선의 묘리를 어느 정도 깨친 뒤라 참선하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자연생활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낮에 딴 잣 약초 등을 주변 화전민에게 주고 양식과 바꿔 먹었어요. 3일 정도 약초랑 잣을 따면 1년은 너끈히 살 수 있는 양식이 마련됐지요. 백장청규를 꼭 따르지 않더라고 내 먹을 것 정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수행하는데 좋아요. 혼자 그렇게 살다보니 옷이 깨끗하든 더럽든 염려없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45㎝

◎ 보급가 : ~~₩ 300,000~~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시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백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자내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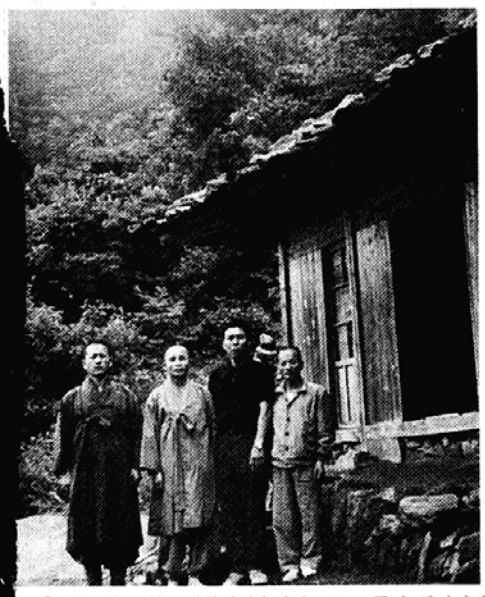
책자내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큰스님 수행한담

그게 일체유심조예요"

"불교는 맺힌것을 풀고 죽은것을 살리는 종교 '업장소멸·생사일여' 그런뜻"



◇새로 짓기 전 봉정암에서 법련스님과 함께 찍은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도윤스님.

고 촛불도 필요없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때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곳에서 답답한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에서 묵언을 하려고 해봐요. 그게 어디 마음먹은대로 됩니까. 힘들지요. 그래서 산중선정시무난(山中禪定是無難)이요 대경부동시위난(對境不動是爲難)이라. 산중에서 참선하여 정에 들기는 쉬운 일인데 모든 경계에 다달아서 흔들림없이 살아나가기란 실로 어려운 일이다 라는 말이 있나봅니다.

그 이듬해 겨울에는 봉정암으로 올라가 2년간 혼자 지냈어요. 봉정암에 머물면서 백일기도를 했는데 영가 천도 위령기도였어요. 봉정암은 6·25 때 수복지구였습니다. 설악산은 치열한 전투지여서 오세암 일대에는 6·25 때 죽은 유해들이 많았어요. 낮에는 유해들을 모아 다비해주고 〈반야심경〉을 독송해 줬습니다. 하루는 절에 찾아온 보살이 이 사실을 듣고 선뜻 50만원을 보내줘서 인부를 사서 유해를 한데모아 다비를 해줬지요. 일종의 천도재였습니다. 함께 왔던 보살 두분은 남아서 백일기도를 하겠다고 해서 낮에는 유해를 치우고 밤에는 보살들과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우스운 말이지만 산 사람하고 살면 갈등이 생기지만 유해들하고 사는 데야 어디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불교에는 모든 원한 맺힌 것을 푸는 해원결진언이 있지요. 불교는 푸는 종교예요. 모든 이 마음을 괴롭히는 번뇌망상이 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업을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타종교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지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는 참으로 어려운 일 같아요. 검은 것을 희게 만들고 흰 것을 검게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마음 속에 원수라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보다는 '원수를 해결하라'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미운 마음을 다 풀어 보세요. 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입니다. 남을 괴롭히고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살생입니다. 화를 내고 찡그리면 세포도 스트레스를 받아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활생을 해야지요. 설악산에서 죽은 사람 영혼 천도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죽었던 것을 살리는 것이 불교입니다. '생사일여(生死一如)'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봉정암에 있을 때 겨울이면 산악인들과 대학 산악부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60년대만 해도 산악 장비가 빈약해서 죽을 고생들을 많이 했지요. 1백여명이 넘게 산 속에 몰려 죽을 뻔한 것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눈에 빠진 학생들을 업고 밤새도록 쫓아다녔는데 두꺼운 옷 안입고 다녔어도 동상 한번 안걸렸습니다. 되려 산악인들은 죄다 동상에 걸렸지요.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 뿐이었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했습니다. 불법을 받드는 수행자가 어찌 자신의 목숨만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때론 눈 속을 30km 이상 걸을 때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산악인 박철암씨는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자기들은 아마추어고 내가 프로산악인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산을 잘 탄다는 거였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산을 정복하러 오는 것이지만 산에서 사는 나는 산을 나와 따로 구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산과 내가 한 몸이었지요. 분별이 생기면 수행에 걸림이 되는 것이지요. 산때문에 내가 있고 나로 인해 산이 있었죠. 이게 바로 연기의 법칙에 다름 아닙니다.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멸하므로 저것도 멸한다는 불교 본연의 진리인 연기법이지요. 이 연기법을 알아야 불교를 알 수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것도 살생 화내고 찡그리면 세포도 죽습니다"

백담사에 내려와 주지 소임을 4년 정도 보니 자연히 떠날 시기가 오더라구요. 71년 쯤인가 의정부 쌍용사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내가 할 일은 뭘까 생각하다가 의정부지역 포교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불교새마을운동도 벌이고 사찰 정비도 하고 경제생활등 개선작업에 들어갔지요.

그러다가 석주스님, 덕암스님, 최영희 장관 등과 함께 불교방송 불교병원 등을 망라한 불교문화원을 추진했는데 결국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후에 중앙승가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스님들 중에는 학교 다니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스님들이 일반 대학에 다니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에 중앙승가대라는 정규대학 과정을 만들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동국대가 있었지만 동국대를 다니면 환속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스님 옷입고 다닐 수 있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 싶었습니다. 석주스님 등과 힘을 모아 승가대를 만든지 3년 정도 됐을까 10·27 법난이 일어났습니다. 그 때 큰스님들은 불교에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 없어 이런 법난이 일어났다며 교육 부재를 한탄하셨지요. 덕분에 종단차원에서 중앙승가대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우리 불교는 받는 불교보다는 주는 불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불교가 되어야 합니다. 불교인들도 불교관련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종교가 되도록 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 하구요. 또 스님들은 어느 정도 수행을 튼튼히 한 후 일을 해야 해요. 물질을 단순하게 보지만 말고 어떻게 인간에게 유익하게 쓰게끔 만들 수 있나로 봐야 합니다. 수행없는 사람에게 권력 돈 등을 쥐어 주는 것은 미친 사람에게 칼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 종단이 시끄러운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기반 있어야 불교가 제대로 될 것입니다. 종단 분규는 다 집착에서 오는 것이에요. 명주재장(明珠在掌)이라고 여의주가 손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의주는 굴리면 뭐든지 이루어 지는 구슬인데 이를 손에 쥐어줘도 굴려먹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손에 쥐어진 것을 모르고 먼데서 찾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뜻이지요. 불교가 바로되기 위해 노력하는 스님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불교의 장래는 밝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남북통일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사상은 불교 뿐입니다. 다른 것은 다 변했어도, 정치는 달라도 마음 속에 심어져 있는 종교심은 변하지 않아요. 민족의 동질성을 불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불자들이 앞장서 남북통일과 민족화합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리=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황남수 〈부산 동백아트센터 관장〉

나는 우리나라 금융사상 최초로 퇴출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동남은행 해운대 지점장직을 지난해 6월까지 맡았었다. 그러나 내 생을 걸고 투신했던 은행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약 4개월여 동안 휴식기간을 거치면서 11월부터 부산 해운대 달맞이 언덕에 자리잡은 미술관 동백아트센터의 관장직을 맡게 됐다. 은행과 미술관이라는 그 직업적 연결고리가 잘 맞지 않는 생경스런 변화였지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이 화려한(?) 변신도 모두가 부처님 그늘아래서 이루어진 길이었음을 고백한다.

고등학교시절부터 나는 산행을 해왔다. 결혼후에도 계속된 나홀로 주말산행은 아이들이 자라자 가족들의 불평을 샀고, 급기야 한달에 한주만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적 답사 여행을 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이후 해운대 달맞이 언덕문화 관광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일반 관람자를 상대로한 '한국의 석탑과 전통문화'란 제목의 슬라이드 강의를 우연히 맡게됐다. 나는 이 강의를 통해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맞았다는 것을 강의에 참관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확인했다. 탑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되고, 우리 석조미술의 우수성을 짧은 시간이었으나마 이해했다고 하니 나로서는 무척 기쁜일이었다. 또한 내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미술관의 대표(前 이수정 관장)도 나의 탑파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를 관장으로 천거했다는 뒷얘기를 들었을때 10여년간 불교유적을 찾아 다녔던 지난날의 행보가 모두 부처님의 손길따라 움직이고 부처님의 크나큰 공덕의 그늘이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제2의 인생을 열어준 부처님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나는 우리 전통예술의 바탕위에 우뚝서 있는 불교문화를 배워나가며, 보다 많은 이들과 공유해 나가는 작업을 계속 할 것이다.

채 스쳐 지나만 가고 있다.

나는 직장이 문을 닫은 이후 마음의 정리도 할 겸 지금껏 모아둔 슬라이드 오천여장을 가지고, 부산근교 작은 암자인 수암사에 들어갔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양식인 석탑을 주제로한 한권의 책을 만들어 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탑파는 도자기, 회화, 서예 및 전적류들과는 달리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깊은 수장고에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전국 어느곳이든 노천 현장에서 바로 볼 수 있다는 즉시성이 있다. 이러한 탑파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바로 볼 수 있는 눈만 뜨게 해줄 수 있다면 나 자신이 느끼던 그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불자로서의 의무감까지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이 정리되고, 원고작업과 사진작업을 계속 하던 중 '제1회

불교유적 답사로 신심 다지고 석조미술 우수성 대중과 공유



전국의 사찰과 암자, 폐사지 그곳에 있는 석탑, 부도탑, 석등, 당간지주, 석조, 마애불 등 성보를 찾아 다닌지 10년. 여행때마다 목적지에 대한 불교문화적 가치와 역사등에 대한 사전공부를 했고, 그곳에서 슬라이드사진을 촬영했다. 그 사진을 여행후 가족이 함께 모여 환등기로 다시 비춰보는 즐거움이란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행복의 시간들이었고, 나름대로 불자로서의 신심을 발현시키는 소중한 기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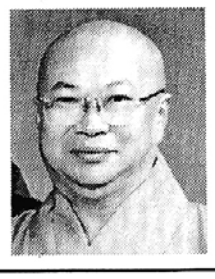
천년의 숨결을 이끼속에 감춘채 석양을 받고 선 경주 장항리 5층석탑이 있는 폐사지에서, 탑신과 지대석이 나뒹굴고 있는 건봉사 부도밭에서, 경주 남산 곳곳에서 만나는 목없는 석불상에서….

이 모든 불교유적들과의 만남은 참으로 큰 놀라움과 외경심을 불러 일으키게 했다.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에 가면 절이 있고, 절에는 석탑이 있고, 부도가 있고, 석등이 으레 있는 것인양 알뿐 진정한 불교적 의미와 아름다움, 전통미술로서의 가치를 모른다.

세시미숨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범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솔선식(松仙食)」,「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

머무름 없어 유유자적… 無常 일깨워

월 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22 구름



◇구름처럼 물처럼, 이곳 저곳을 만행하며 수도하기에 스님들을 '운수납자'라 지칭한다. 〈사진=안장헌〉

저 우뚝 솟은 푸른 산이
떠가는 흰구름을 바라보며 웃고 있네
바람 따라 이곳 저곳을 정처 없이 떠돌지만
마음은 언제나 여기 푸른 산에 있네.

호를 '백운(白雲)'으로 삼은 고려 경한스님의 선시 '흰구름'이다.

선사들의 선시에는 '구름'이 자주 등장 한다. 구름이 나타내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자유롭게 떠돌아 다니는 자재함을 잘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니며 수도하는 스님을 '운수납자(雲水衲子)'라 지칭하고 있다. 이런 불교적 상징성 때문인지 구름은 선사들의 법명 또는 호와 고운사(孤雲寺) 운문사(雲門寺) 등 사찰의 이름에도 많이 등장한다.

구름은 비, 바람과 더불어 우순풍조와 자연의 순조로운 조화를 상징하기도 하며 신화나 서사시에서는 천상의 권능, 하늘과 땅사이를 왕래할 수 있게 하는 탈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구름에 간교함, 허무, 초월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한시나 시조를 통해 노래했다.

물, 바람과 마찬가지로 '구름'은 형체가 없고 빛깔이 희며,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어디로든지 떠돌아 다니기 때문에 세속을 떠난 초월의 경지를 나타내기도 하며 무상, 무심 무아, 탈속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구름은 바람과 함께 인생의 풍랑을 상징하기도 한다. 특히 오색 구름은 상서로움을, 먹구름은 흉변의 징조나 인생에 있어 재난이 일어남을 나타내며 청운(靑雲)은 입신출세와 젊은 꿈을 나타내고 있다.

■백운(白雲)

이규보는 '백운거사 어록'에서 구름의 구속되지 않는 모습과 측량할 수 없음, 거동이 군자 같고 지사의 취미 같음을 언급한 뒤 "구름을 사랑해 그의 덕을 배워가면, 첫째로 만물에 혜택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마음을 가볍게 하여 구름의 백(白)을 지키며, 구름의 상(常)에 처하여 무아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구름이 나를 닮았는지 내가 구름을 닮았는지 모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보우스님과 해원스님도 구름을 소재로 노래했다.

구슬은 산 위에 희고
산속의 물은 흑러 흑러 가고 있네
내 여기 살려 했더니
천구슬은 낮 위해 산 한자락을 영었네
저 천구슬에게 내 마음 속 다 말하려 했더니
어떤 때는 비를 내려 오래 머물지 않네
또는 멀은 바람을 타고
혼 누리 두루 돌아다니네

고려 시대의 선승 태고 보우스님이 산 위에 떠 있는 구름을 음미해 시로 읊은 '운산음(雲山吟)'이란 선시다. 유유자적하고 정처없이 떠돌아 다니는 구름을 본받아 걸림없이 살라고 권하고 있다. 또 큰 강물처럼 흐르는 구름의 시정은 보석처럼 영롱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옷은 천구슬 더불어 이 세상에 났노라
마음아 명월 따라 어디메로 가느냐
오고 가는 것, 오직 이 구슬하고 닮아라
구슬 흘어지면 저 달빛 누리에 차리

조선초 선승 천경해원(1691~1770)스님이 노래한 '구름과 달'이다. 이 선시는 육신을 '구름'에 마음을 '달'에 비유해 몸은 늙고 병들어 가지만 마음은 영원불멸 하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구에서는 달빛을 가리는 게 구름이듯 마음의 빛을 가리는게 몸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이 시는 육신에 애착을 두지 말며 동시에 육신을 함부로 내던지지 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달을 가리는 것은 구름이지만 그러나 달을 신비롭게 해주는 것 또한 구름이다.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는 상서로운 오색구름을 타고 자비로운 일곱 여래가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하강하고 있다. 자수박물관 소장 감로탱중 부분(18세기 중엽 작).

운수납자 비유…절이름·법명 많아

구름문양 내세 극락왕생 뜻 담겨
白雲은 가벼운 마음과 무아 상징



◀청자상감운학문매병(국보 제68호)에 나타나 있는 점운.



▼법주사 대웅전 수미단의 구름무늬.

■청운교·백운교

경주 불국사에 있는 청운교와 백운교(국보 제23호)는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 된 다리이다. 이 다리의 조성은 경덕왕 10년(751) 김대성이 불국사를 조영할 때 함께 만든 것으로 구름다리를 통해 불국토로 들어감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 다리와는 달리 계단 형식의 다리로 이것을 통해 오르면 다보여래의 불국 세계로 통하는 자하문에 연결된다. 이 두다리는 중앙에 긴 돌이 설치돼 있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지는데 아래의 계단이 청운교이고 위의 계단이 백운교에 해당된다.



◇구름다리를 통해 불국토로 들어감을 상징적으로 조영한 경주 불국사 청운(아래)·백운교(위).

■구운몽(九雲夢)

성진과 여덟 선녀의 일화가 담겨있는 고전소설 '구운몽'은 인생의 부귀공명이 일장춘몽이란 교훈과 함께 불교적 깨달음의 경지인 '공(空)' 사상을 소설화 했다.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 성진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뜻을 양소유라는 이름으로 꿈속에서 실현하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와 꿈속의 일이 허망한 일임을 깨닫는다.

작가 김만중은 소설 '구운몽'에서 인간의 사심(邪心)과 대비되는 초월적 원리로서의 무상함과 무아심을 표상하는 구름의 양면적인 속성을 등시에 상징화 했다. 인간 만사로 비유된 구름의 의미는 성진 쪽에서는 무상함으로, 양소유 쪽에서는 입신 출세를 뜻하는 것으로 함께 사용되었다.

■구름문양

구름은 부동(浮動)하는 기체로 내재적 기세와 강약 허실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환상적 경지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옛 사람들은 현세에 덕을 쌓으면 사후에도 성불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런 구름을 형상화한 문양들이 고분 벽화를 비롯해서 종교의 제단 장식 등 여러 곳에 보이고 있다.

△괴운문(怪雲紋): 고구려 고분 벽화중에는 추상화한 운문이 보이는데 감신총, 각저총, 무용총, 천왕 지신총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구름 무늬는 신라 칠기 편에서도 보인다.

△당초 운문(唐草 雲紋): 고구려 고분 벽화 중에는 천장 굉을 측면에 여러 가지 모양의 당초 구름 무늬가 표현되어 천상계와 벽면계를 구분하고 있다. 당초 운문의 기본 형식은 'S'자형의 파상 당초문 형식인데, 구름 줄기에 고사리손 모양의 작은 돌기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사신도 고분 등 후기 고분 벽화에서는 인동초화(忍冬草花) 형식으로 발전해 인동 당초문 형식의 구름띠가 특징을 이룬다.

△유운문(流雲紋): 고구려 고분 벽화중 진파리 1호분 현실 네 벽면에는 사신도가 그려졌는데, 그 사신의 배경에는 인동초(忍冬草)와 천화(天花) 등이 물결처럼 율동감 넘치는 유운 사이를 떠돌고 있는 모양이 묘사되었다.

△보운문(寶雲紋): 통일 신라의 불화에 도식적으로 나타나는 이 문양은 구름 머리 부분이 심엽형(心葉形) 또는 여의(如意)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꼬리 부분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

△점운(點雲): 점점으로 흩어져 있는 구름 모양으로 13세기 고려 시대의 상감 청자 중에서 운학(雲鶴), 운봉(雲鳳) 등에서 볼 수 있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여시아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대로 이곳님도 같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종로구 견지동 109-33 전화 (02)737-0665 팩스 (02)737-0606

참선요지(參禪要旨)

선(禪)은 가장 궁극적인 일이며,
모든 부처님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이다.
이 일은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길이 소멸해 버린 자리(言語道斷 心行處滅)이며,
생각으로는 미칠 바가 아니다.

그러나…

허운(虛雲)화상 법어 대성(大醒)스님 옮김
96변형 278쪽/ 값5,500원/ 여시아문 펴냄



주머니 속 대장경 301-선(禪)

허운 화상(1840~1959)은 1840년 중국 복건 천주에서 출생하였다. 13세 때 처음 관음보살의 일대기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았으며 19세 때 출가, 고산 용천사의 고련화상에게서 구족계를 받았다. 27세에는 모든 스님을 놓고 3년간 일념으로 관조와 염불을 하였으며 31세에는 천태산 용천암 융경 노화상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

스님은 젊은 시절 온갖 고행을 마다하지 않고 오직 불법을 구했으며, 갖은 병고와 액난에도 굴하지 않고 계율을 엄수하고 근고정진한 끝에, 종문의 심인(心印)을 길이 계당아 단절되다시피 한 5종 가풍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외세의 침략과 공산 정권하에서도 승도를 수호하고 사찰, 불당의 파괴를 막았으며 대소 수십개소의 가람을 복원하는 한편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를 주고 불문에 귀의시켰다. 그의 문하에서 출가하거나 수계한 제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허운(虛雲)화상의 참선 수행 요결

초심자는 공부를 해도 향상되지 않고,
구참자는 중간에 머물러 게을러지게 되니
선수행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스님의 일생은 진정한 수행자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준 귀중한 모범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깨달음의 법(法)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통째로 던지는 하나의 거대한 실천임을 웅변하는 것이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안일과 나태, 그리고 온갖 이집과 자기 합리화에 대한 통렬한 질타이기도 하다. 결국 스님의 가르침은 스님 자신의 이러한 치열한 수행의 체험이 그대로 결정화된 요긴한 알쏭들로 가득차 있는 것이다.(옮긴이의 말 중에서)

수록 내용

제1부 참선요지
제1장 참선의 선결 조건
1. 참선의 선결 조건
2. 성불(成佛)의 방편
3. 화두 참선법
4. 공부의 어려움과 쉬움
제2장 선방 법문
1. 이끄는 말
2. 공부의 입문 방법
3. 공부의 두 가지 어려움과 쉬움
4. 결론
제3장 참선경어
제4장 제석보다시중(除夕普茶示衆)
제5장 수행과 불수행
제2부 선철법문
부록
1. 허운 화상 약전(略傳)
2. 어휘 해설
3. 인명 해설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마음의 선장 진실로 믿는다면 無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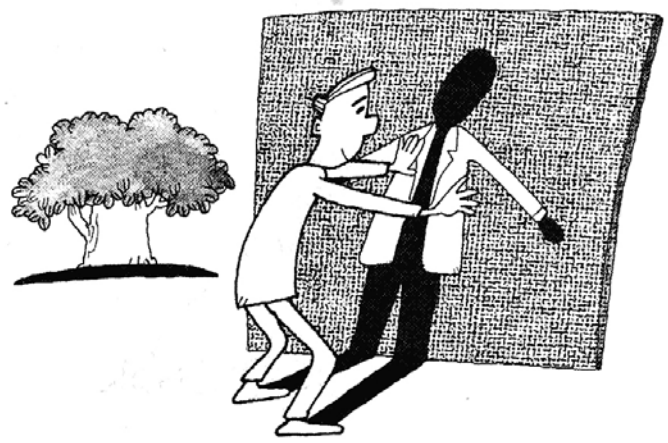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기 이끌어주고 작용케 해주는 자기 근본 보배 뿌리 무시하니 사랑 · 도의 · 충성 나겠습니까

여러분과 더불어 한자리 하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불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진리가 바로 불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어느 한군데에 국한돼 있는 걸로 알고들 계신데 그것이 아닙니다. '불(佛)'이라는 것은 일체 만물만생이 불이요, '교(敎)'라는 것은 일체 만물만생이 살아오면서 진화되고 형성되고 또 자비를 알고 물리가 터지고 지혜를 얻고 하는 것이 교입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는 헤아릴 수 없이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두뇌 하나가 그렇게 끊임없이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 시쳇말로 말하자면 자동적인 컴퓨터와 같은 거죠. 이 자동적인 컴퓨터는 정수봉에 있다고 봅니다. 이름해서 정수봉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 머리 위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애를 쓰고, 그래야만 되는 시초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이 지구가 버스 하나라면, 버스 하나에 함께 앉아서 네 걸상이니 내 걸상이니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제일 첫째 중요한 건데 한철 살다 갈 인생을 왜 그렇게들 네 것, 내 것 하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한철 사는 자체에 바로 자기의 차원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있고 미래의 차원이 주어지고 삶이 주어지고 권리가 주어지고 모습이 주어집니다.

정말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는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 한식구가 들어있으면서, 온갖 생명들이 다 들어있으면서도, 그 버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싸운단 얘기죠. 싸움 뿐만 아니라 욕심, 관습, 착, 또는 인간의 도리가 고독한 탓으로 인해서 오는 그 역경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문제들을 놓고 볼 때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는 마음을 개선해서 참다운 진실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부 정신계를 무시합니다. 자기를 리드해나가는 정신계를 우습게 생각한다면 자기 몸뚱이 싹이 어떻게 푸르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뚱이를 싹으로 비유하면 자기 불성의 주인공은 바로 뿌리인데, 요만한 이파리 하나 붙어 있는 것도 다 뿌리에 달려있거늘 그렇게 자기를 리드해나가고, 이끌어주고, 지켜주고, 작용케 해주는 그 근본 자기 보배를 무시하고, 자기 깝데기 자기만 자기라고 하니 이것이 진정코 사랑이 나가겠습니까. 실천이 나가겠습니까? 의리가 나가겠습니까. 도의가 나가겠습니까. 충성이 나가겠습니까. 효자가 나가겠습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저 껍데기만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소리치면, 그 음파가 퍼져서 다시 오므라들면서 자기한테 다시 들리는 소리 말입니다. 공을 치면 자기한테 다시 튀어온다 이런 원리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겉으로는 아무리 욕을 안하고 밖으로 아무도 듣지 못하게 욕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벌써 그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 뜻을 몰라요 사람들이. 벌써 알고 있다는 것을 말이예요. 내가 마음내고 생각하는 대로 상대도 알고 있다는 것! 상대의 소리도 속으로만 나오다가 나중에 터지면 문제가 크게 생기는 거죠. 이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지금 자라나는 애들에게도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합쳐져서 인생도 수레같이 굴러간다고 가르쳐줘서 귀를 틔게 해줘야 될텐데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이거 교육계에서 어떻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싸움도 없어지고 부모에게 망나니짓 하는 것도 없어지고, 강도도 없어지고, 도둑도 없어지고, 사기도 없어질텐데 말입니다. 이 모두가 자기가 자기를 리드할 수 있는 사람만 된다면 아무것도 겁날 게 없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근본이 수억겁을 거치면서 자기를 형성시키고 진화시키고 왔기 때문이죠.

마음내고 생각하는 대로 상대도 알아 자기 리드하는 사람되면 겁날 게 없어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대사의 인연을 맺은 그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뼈 한 무더기를 놓고 절을 하셨습니다. 거기다 절을 하시니 제자들이 "사생자부이신 부처님께서 어찌 그런 하찮은데다 절을 하십니까?" 하고 여쭈니 "아니니라, 내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수억겁을 거치면서 미생물에서부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고 이렇게 거치면서 진화되고 형성된 장본인이 지금 여기 모두 앉아들 계십니다. 나로부터 말입니다.

우리는 그 수억겁을 거치면서 얼마나 찢어지는 아픔을 견뎌왔겠습니까. 자기 몸을 찢어서 바로 자기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꺼내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아픔을 무릅쓰고 찢는단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매미는 천날을 땅 속에 있다가 나와서 자기 집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기다리면서, 그 아픔을 찢고 나와서 얼마나 살다가 갑니까. 또 여인네들이 어린애 낳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화돼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는데 조상이 자식한테 태어나기도 하고, 자식이 죽어서 또 부모한테 태어나기도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껍데기를 찢고 나옵니다. 일거수 일투족 다, 어떠한 생명체든지 다 그렇습니다.

어느 때 산길을 걷다 보니까 소나무 하나가 이렇게 배들배들 하면서 땅에 뿌리를 못박고 그냥 걸려 있습디다. 그래서 "너 혼자는 뿌리를 땅에 딛지 못하니?" 이렇게 그냥 심심하니까 말 답변을 하고서는 흙을 갖다 좀 이렇게 고여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몇 달만에 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뿌리가 아주 땅 속으로 콱 박혀있더라구요. 하물며 그런 것도 그렇고 또 하다못해 옥수수도 보세요. 그 해에 앞으로 태풍이 불고 아주 험난하게 된다 하는 생각이 들면 그냥 사방으로 뿌리를 퍼지게 해서 아주 깊이 잡습니다 틀을. 그래서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쓰러지지 않게끔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은 고등동물인데 부처될 수 있는 가능성이 99% 안되겠습니까? 부처는 이미 돼있는데 자기가 모를 뿐이죠. 본래 불성 즉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본래 갖추어져 있어서 그냥 여여하게 살게끔 돼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들이고 내고 들이고 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음에 따라서 여여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쉬운 말이지만 가장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인간까지 그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얼마나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런 아픔을 견뎌왔을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금 IMF 때문에 뭐가 어떻다구요. 과거에도 이런 경제 혼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만 그렇게 온 건 아니죠. 지난 역사를 본다면 나라를 뺏기고 거리를 헤매기도 하고 일제시대 때는 그냥 하다못해 뭐라도 목숨을 연명하려고 토마토 한 소쿠리도 안되는 거 가지고 가다가 들키면 그걸 발길로 차서 나뒹굴어지고 내던지고 그럴 때도 살았어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해주셨죠. 우리의 인생이 허허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아서 배에 탄 사람은 선장을 믿고 모든 것을 흔들지 말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고 온통 찾고 야단법석을 하니까 배는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뒤집히게 돼 있죠. 오직 자기의 마음이 선장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냥 하나로 믿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는 생각으로 하나가 된다면 무사히 갈 수 있을텐데 말이예요.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격이죠. 침착하게 자기 정신계의 과거 자기를 믿고, 수억겁을 거쳐오면서 자기를 진화시킨 장본인을 진짜로 믿고, '너만이 이 모든 국난을 다 극복하게 할 수 있어' 하고 맡기고 또 가정일도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또 됐으면 '감사해' 하고 이렇게만 한다면 빨리 극복이 되고 마음도 안정될 것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이 점심을 굶고, 또 많은 노인들이 자식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자식을 고생 안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감추고 뒤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볼 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다 내버리는데 자식은 그게 아니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신계를 무시하고 물질로만 치닫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처가 자긴데 자기는 믿지 않고 타의에서 구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고 상대가 있는 거지 자기가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대성인들이 '너부터 알아라, 너가 바로 네 주처다'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딴데서 찾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부처님 형상도 내 형상이요, 부처님 마음도 내 마음이요, 부처님 생명도 내 생명이다. 둘이 아닌 까닭에 항상 한마음으로 등글려서 그저 삼배를 올리든 일배를 올리든 그것이 삼백배도 되고 삼천배도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200)

내 집안 보물부터 찾아서 잘 간수하라



행함이 없는 공부, 실천이 따르지 않는 공부는 생명이 없는 지식을 쌓는 데 불과하다. 백 번 보는 것이 한 번 행하는 것만 못하니 참 지혜란 실천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가령 올챙이가 개구리에게 흙 냄새에 대해 물었을 때 개구리가 수천 마디의 말로 설명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올챙이가 개구리 되어 뭍에 올라가 보는 경우만 못한 것이다.

부처님 법이 아무리 어마어마하고 광대 무변하다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다. 열 번 아니라 백 번을 보더라도 내가 집어먹을 줄 모르면 보나마나이다. 자기 생활, 자기 몸, 자기 마음으로의 체험을 하찮게 여기고 어디 가서 불법을 찾았다 할 것인가. 실천이 아니라면 부처님께서 정법을 가르치시지 않았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놓으셨어도 지금 시대의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진수성찬이 내 앞에 차려져 있어도 직접 먹어 보지 못하여 그 맛을 모른다면 그 음식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남의 목장에서 놀고 있는 젖소를 하루종일 세어 본다 하더라도 내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의 보물을 세고 있다 하여도 스스로는 한푼어치도 가질 수 없다면 그 또한 무엇이겠는가.

팔만 대장경을 달달 외우고 이론으로 가로 꿰고 세로 짼다 해도, 멋진 비유와 결구를 아무리 많이 기억한다 해도 가르침을 단 한번 실천한 사람만 못하다. 목이 마를 때 어떤 물이 몸에 좋고, 어떤 그릇으로 떠먹어야 마시기 좋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한 모금 시원하게 마실 수 있어야 한다.

경전의 구절들은 영원한 진리이지만 그것을 얻어듣고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사람에게는 유한한 지식에 불과하다. 마음안으로부터 얻어야 비로소 말다운 말, 행다운 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니 얻어들은 지식은 몸 떨어지고 입 떨어지면 함께 떨어진다.

집을 짓는데 벽돌, 기둥, 대들보, 서까래 등 재료의 이름은 줄줄 외면서 막상 집을 지을 줄 모른다면 그 재료들이 무슨 소용이 닿겠는가. 불법은 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부처님의 거룩하심에 진실로 감동했다면 그분이 하신 대로 해야 할 것이다. 억대 조사들이 초개같이 몸을 던져 공부하신 것이 숭고하다 하면 그분들이 하신 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고 그냥 기분만 좋고, 알음알이로만 참되고 아름다운 듯이 보이는 그런 불제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부처님이나 선지식들은 진리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체험한 것이다.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부처님이 내앞에 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먹고 배부르지 않으면 그 분의 배부른 도리를 알 수 없다. 부처님이라도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러므로 마음 내지 않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제 나무에서 열매 익어야 맛을 알게 된다.

체험을 해보지 못하고 억대 조사나 선지식들의 말을 응용하여 '이러저러하더라'고 한다면 설사 말이 당당하다 해도 허공으로 떨어진 것이니 빈 맷돌질과 같다.

남의 집 보물을 탐내지 말고 내 집안 보물부터 찾아 간수하고 닦고 빛내라.

협찬: 주인공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부딪침 없고 어려움 없다면 공부 못해

☞ 15면에서 계속

된다. 왜냐하면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요. 우리 마음은 체가 없어서 빛보다 더 빠르거든요. 어떻게 마음이 빛보다 더 빠르겠느냐 이러겠지만 빛보다 더 빠른 게 사실이예요. 빛은 착오가 있지만 대신 이 마음은 착오가 없어요. 물 속이고 불 속이고 간에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 자신을 이끌어 가는 정신계의 나 자신을 모르는 척 하고 만날 바깥에다가 빌고 기도를 한다면 언제 자기를 알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이 몸뚱이를 오신통이라고 한다면 오신통을 벗어나야 바깥에서 통을 굴릴 수 있는 거지, 이 통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네가 어떻게 네 통을 굴릴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자기 마음이 벌써 자기를 리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남도 리드하고 다스릴 수 있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줄 안다 이겁니다. 요만한 것 하나도 스승 아닌 게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죠. 꽃이 핀 것도, 돌이나 나무나 또 물 흐르는 걸 본

부처님 형상도
내 형상이요
부처님 마음도
내 마음이며
부처님 생명도
내 생명입니다

다 하더라도 내가 있기 때문에 보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살아있는 생명이예요. 이런 물컵 하나도 그냥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스승 아닌 게 하나나 있겠습니까. 그걸 보고 배웠으니 스승이요, 또 그것들은 날 보고 배웠으니 또 스승이요, 그러니 이게 평등공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람이 정말 실천을 해나가고 자비하고 사랑하는데 역점을 둔다면 만민이 다 '당신은 정말 진짜 사람이야' 할 겁니다. 죽어도 이름을 남기고 죽을 겁니다. 그런데 한철 살다가 갈 때 깨진 바가지가 구르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만들어 놓고 간다면 그게 어디 회향입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이 모두가 사람이 자기 한 대로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정수봉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와 같습니다. 부처님만 계신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있지만 자기가 그걸 모르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살았어요. 그게 입력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된 대로 또 현실에 나오게 돼있거든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걸 없애려면 지금 현실에 나오는데다 재입력을 한다면 바로 앞의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입력이 들어간다 이 소립니다. 쉽게 말하자면 소멸된다 이 소리죠.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물질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는데 아이들을 키우더라도 옛날 방편으로는 키우기 어렵죠. 그러니 현대의 방편으로써 가르쳐야 되는데 이러면 어때요? 식탁 위에라도 '과거 너를 믿어라, 진짜 너의 주인공을 믿어라' 이렇게 써붙여놓고 의욕이 없다거나 아플 때도 '너만이 의욕있게 할 수 있어,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고 아프면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하고 또 집안이 편치않을 때도 '너만이 집안이 화목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 자기 마음자리에다 관하게끔 가르치세요. 거기가 원동력이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이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안보이시죠? 불이 꺼지고 켜지는 건 보이는데 전력은 안 보이시죠? 그렇다고 전력이 없다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죠. 부모자식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다 자식이다 하면 본래 가설이 돼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마음을 그렇게 쓰면 상대방까지 불이 들어오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면 그쪽에도 불이 들어와서 잘못을 뉘우치고 화합해서 잘 살게 되는 거죠. 마음의 작용이니까요. 마음의 장난 아닙니까, 우리 사는 것이요.

과거 나 즉 불성이라는 것은 체가 없어 움죽거리지도 않으면서 힘을 배출해 줍니다. 바퀴가 굴러갈 때 이탈되지 않게 끔 그 힘을 배출해 주죠. 그러니 그걸 믿고 모든 것을 이탈되지 않게 한생각을 잘해라 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은 허공에 그림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한생각이라는 것은 내면세계의 자기 근본과 이 몸뚱이 속에 잔뜩 들어있는 생명들의 의식과 더불어 같이 공용이 됩니다. 불가에서는 용무라고 그러죠. 용무의 행이라고 그러지만 공용이라고도 합니다. 공용의 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심이 되고요. 공심이 되면 공용으로서의 온갖 마음 의식을 다 내서 바깥에서까지 즉 원자에서 입자가 나가서 다처리를 하고 다시 원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심성과학이기도 하고 심성천체물리학이기도 하고 심성의학이기도 합니다. 일체 심성문화도 되고 어떤 게 아니 되는 게 없죠. 그런데 머리깎은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다못해 요런 돌 하나 굴러가는 걸 봐도 내 스승이거늘 어찌 머리깎은 중이라고 업신여겨서야 되겠습니까. 머리를 깎는 것은 일체 무명초를 말하는 겁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말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깎아버리니까 끊임없이 나오고 끊임없이 나오면 또 깎아버리고 나오면 또 깎아버리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고 뭐가 되는 게 없어요. 노력하고 그만큼 진실하게 실천하는데서 모든 게 오는 겁니다. 하다못해 요만한 벌레도 자기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그 살을 찢는다고 그랬잖습니까. 몇 겹을 찢어요. 그런 걸 볼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는 참 사람만 불쌍한 게 아니예요. 미물의 짐승이나 또는 미생물에 대해서도, 역시 물에서 사는 거든 질척한데서 사는 거든, 허공에서 사는 거든, 우리 인간들이든, 다들 보면 그만한 고통이 따르고 그만한 괴로움이 따르고 그런 아픔이 따라요. 그럴 때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그림 · 최주현

하는 세상을 볼 때 우리 인간도 지금 정신계에서 정신을 잡아먹고 정신을 잡아먹히고 살고 있죠. 그러니 인간은 사람을 잡아먹고 그러진 않아도 역시 정신계에서 정신을 잡아먹고 정신을 잡아먹히고 이렇게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 결국은 자기를 리드해나가는 자기의 주인공을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믿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데 다가오는 것은 칼을 들고 와도 그걸 대치를 못할 거니까요. 몽둥이를 들고 와도 대치를 못해요. 병이 닥쳐와도 대치를 못하고 염계성이 닥쳐와도 대치를 못해요. 그러니 꼭 자기를 믿고 중심을 잡으면 들에는 오방신장이요 또는 호법신장이요 뭐 모두가 그 한생각에 더 다 진화돼서 나오는 거죠.

부처님 마음 속에서 보살들이 다 낳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물에 가면 주해신이 돼주고 산에 가면 주산신이 돼주고, 또 좋은 데로 못가면 지장이 돼주고, 명이 짧을 때는 칠성부처가 돼주고, 아플 때는 약사가 돼주고,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고난을 받을 때는 관세음이 돼주고, 자기 한마음 속에서 천차만별로 다 나가는 겁니다. 갈래갈래로 말입니다.

이것은 체가 없는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합이 없이 하는 거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걸 몰라가지고는 고난을 극복하기 어렵죠. 보이지 않는 걸 무시해선 안되죠. 혼자서만 극복하라는 게 아니예요. 다 더불어 같이 극복하려면 내 몸속에 있는 생명들도 다 한데 합쳐야 되겠

마음자리가 원동력이니 거기에 관해야
고개 숙일줄 모르면 자기승화 못시켜요

기에 주인공 불성을 믿고 '주인공, 너만이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어' 하고 맡긴다면 모두 살 길이 열리죠. 이것도 어렵다면 마음을 하나로 둥글려서 딱 묶어서 거기다 내던져서 태우세요. 거기다 놓고 태우면서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만 하세요.

닥쳐오는 대로 말이예요. 그러면 국난 극복도 될 수 있고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보이지 않는데 마음과 마음으로 다 퍼져요. 이건 자동적이예요. 퍼져서 퍼져서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 나쁜 일들을 많이 했으면 고난이 더 오고, 덜 했으면 덜 오고 이렇게 연방연방 아주 질서정연해요. 내가 한 대로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마음을 이렇게 쓰세요. 나쁜 꿈을 꿨더라도 '너와 내가 둘이 아닌데, 둘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요. 내 마음이 영아 라면 수만개의 영을 갖다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영이지요. 개수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조계종사태 어떻게 보시는지

문 저는 본원 법형제회의 김광현입니다. 조계종단 사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종단이 왜 저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또 오랜 수행정진으로 원력이 크신 스님이 많이 계시는데 저런 건 사전에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 그것은 결국 발전하기 위해서 지혜를 넓히기 위해서 생긴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구요. 부딪침이 없으면 공부할 수 없거든요.

문 그런데 공부가 된 사람은 알겠지만 많은 사람 중에는 이해를 못하고 불교는 저런 것이다, 스님네가 저러니 불교는 믿지 말자 이런 마음이 많이 났을거라고 염려가 됩니다. 방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부재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받은 상처는 어떻게 아물게 할 수 있을까요?

답 그것은 스스로 자기네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죠. 한생각 잘 내면 정말이지 그 사람네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 수 있겠지만, 만약 한생각을 잘 내지 못한다면 바로 즉각적으로 자기가 생각한 것이 자기한테 미치는 거니까요.

문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국토가 되면 그런 것이 없어질텐데, 그래서 포교일선에서 우리 불자들을 많이 만들어서 불국토를 만들면 좋을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 불국토라는 것이요, 불자들만 불교인으로 만들어서 사는 게 불국토가 아닙니다. 불교라는 것은 생명의 근본은 불(佛)이요, 우리가 살면서 배우면서 진화하고 또 지혜롭게 물리가 터지고 하는 것을 교(敎)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어떠한 한 곳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가는 진리의 그 이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기독교 믿는 대로 또 불교 믿는 사람은 불교 믿는 대로, 자비하면 그대로 다 알게 돼요. 전체 모습을 봐야지 한쪽면만 보고 비난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어떤 수녀 한 분이 그러더군요.

'스님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만약에 고생을 해서 농사를 짓지 않고 부딪힘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한 해에 추수를 해들일 수 있겠느냐고. 그런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들였기 때문에 남도 주고 나도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듯이 이것은 마음공부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부딪치면서 발길로 차면서 문도 떨어져 나가고 온통 이렇게 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남득이 된다 이 소리죠. 이런 걸 한번 겪어보면서 '아, 이것이 아니로구나' 할 수도 있고, 욕심도 없어지고 지혜가 넓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도 수없이 바뀌죠. 우리 사는 것이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듯이 사람도 나쁜 일만 하는 사람이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일만 하는 사람도 고정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바뀐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당해봐야 그 습성을 놓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게 부딪치다 보니까 '아, 이런 욕심을 부려서 좋은 게 아니로구나' 하는 걸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바람에 단번에 그 습이 딱 떨어져 나갔으니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하하하…. (대중웃음)

안거수행을 하는 이유

문 불가에서는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 불법만나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뭘 알고 가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묵동정 행주좌와가 모두 선인데 무슨 특별한 선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많은 스님들께서 요즘 안거 행을 하시는 그런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답 동안거든 하안거든 그것은 우리 사람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이 마음공부하는데 선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제를 했다 하더라도 선이고 안거를 했다 하더래도 선이기 때문이죠. 해제했을 때는 지구가 안 돌아가고 또 안거했을 때는 지구가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것도 그래요. 안거했을 때는 우리가 죽나요? 그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공부하는 데는 누워서 잘 때는 와선, 서서 다닐 때는 입선, 또 일을 할 때는 행선, 앉아서 있을 때는 좌선, 이것이 전부 네 가지가 송두리째 그냥 요만큼도 끊어지지 않고 그냥 참선이 된다 이 소리죠.

이 몸뚱이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부모가 그렇게 아픔을 겪고 나온 게 이 몸인데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진짜 소중하게 생각지 않고 그냥 걸레같이 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도 우주떡 하나에다 과일 세가지, 향, 초, 흰 꽃, 물 한그릇 이렇게만 놓고 합니다. 없어도 되는데 그것도 방편이란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도 안해주면 안되니까요. 그런데 왜 꼭 해야만 하느냐. 그건 자손들에게 은혜를 알게 하는 교훈도 되고 이건 참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그 삼혼이 하나는 태어나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돌아다니는데 그걸 못보는 거죠. 물론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조상에게 감사한 마음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이 괘씸한 놈!' 하고 뒤돌아서서 후적후적 갈 거예요, 절을 한다 안한다 이걸 떠나서 사람이 자기가 고개를 숙일 줄 모르면요 자기가 자기를 승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고개숙이게 할 줄 알아야만 된단 얘기죠. 벼이삭도 익으면 고개가 숙여지듯이 사람이 권리가 많아지고 좀 그렇게 될수록 고개는 더 숙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야만 더 지혜가 풍부해져서 전체 바다가 돼서 수증기로 올라가서 그 물을 정화시켜서 하다못해 요만한 벌레, 풀 한포기라도 남김없이 다 먹일 수 있는 바로 그런 청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손수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이 꼭 시켜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룻대로거든요. 우리가 사는 것이 천차만별이다 할 때 시장에 가서 그릇 좀 보세요. 종지에다가 밥 담습니까, 간장밖에 못 담죠. 접시는 접시대로 담을 물건이 따로 있죠. 그러나

주인공 불성을 믿고
"너와 내가 둘 아닌데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맡긴다면 국난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건 큰 바다가 되라는 겁니다. 큰 바다에 정수로서 요만한 거 하나 버리지 말고 다 먹일 수 있는 물을 삼켜서 토해낼 수 있는 그 작용을 용무로서 해봐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너는 이름해서 여래인 것이다 라는 거죠.

집에 들어가서 아이가 '아빠' 하고 부르면 금방 아빠가 돼죠, 그런데 또 '여보' 하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남편이 되죠 자동적으로. '얘, 아무개야' 하고 안방에서 부를 땐 '예, 어머니' 하고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거 할 때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아들이 됐을 때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됐을 때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남편이 됐을 때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너무 자기가 하는 게 많기 때문에, 함이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 사람이 했다 하고 지목할 수가 없으니까 부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는 이름없는 것이 부처다 이거죠. 아주 없는 것이 부처인 것이죠.

나는 여러분한테 직접 실험 안해보고는 절대로 여러분한테 말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을 때 실천에 옮겨지면서 모두 배우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느껴지는 것이 모두 있거든요. 나는 그저 길만 인도해줬지, 그 길까지 가서는 네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네가 알아서 해라. 대신 죽어주고 아파주고 깨우쳐주고 잠자주고 밥먹어주고 똥눠주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이만할까요. 그러면 오늘 국난도 국난이 아니고 고(苦)도 고가 아니다 라는 게 다 해명이 됐습니까. 그것만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국난도 없어질 거고 재난도 없어질 거고 어떤 생활 속에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또 네 종교 내 종교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라도 싸울 생각하지 마시구요, 비난할 생각 말구요, 어떤 스님네들이나 어떤 종교인들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어도 이것은 사람이 그런 잘못이 없다면 커질 수가 없고 지혜로와질 수가 없으니까, 항상 물이 한군데서 고여 있으면 썩으니까 저것이 바깥으로 튀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다 좋을 것입니다.

협찬 주인공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해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代),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지국 에서도 접수 가능 합니다.

• 건 강 •

암 ·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당뇨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치료비 전액무료

무료시술 · 심요법

TEL : 0552-585-8118 · 8128
H.P. : 011-559-811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

암, 중풍, 당뇨등

오랜세월 민초들의 삶속에 전해 오던 치료의 비방을 연구 집약하여 최단시일내에 체질을 전환시켜 완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고저 합니다.

다솔 민방 연구원
0431)292-9090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598-1015

간 병 인 이

마음과 정성으로 보살펴드리는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 환자 간병 - 산모 도우미
◇ 12시간 (주간, 야간)
◇ 24시간 (상주근무)
◇ 서울 - 무-제-98-1호 허가

☎ 02)363-7884/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 강 좌 •

자미두수교실

신령스러운 자미경의 저자 김석훈 선생의 자미두수 수강생 모집.
★자미두수란★ 동양의 점성학 · 북극성(자미)을 중심한 남북두의 별로 인간의 미래를 내다보는 학문

동서점성학 연구실
☎(02)3413-0232,1
※개인상담 문의도 전화 바랍니다.※

중국 정통 한방 입문 강좌 회원 모집

본 동우회는 원서 원문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심도있게 가르침.
· 교재는 원문을 알기쉽게 풀이한 번역서 임
· 교재내용: 상한론(일명고방) 금궤요략(후세방)
· 기 간 : 상한론(6개월) 금궤요략(6개월)
· 대 상 : 1) 한방 기초를 터득하려는자
2) 한방을 체계있고 심도 있게 배우려는자
3) 정통 한방을 배우려는 자
· 자 격 : 1) 스님, 법사, 포교사 2) 불교 교양대학 수료자 3) 일반불자
* 지방에 계신분은 통신교재 강좌 후 월 1회 특강을 실시함.
· 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사진1매
· 수강일 : 매주 월, 수, 금(오전, 오후, 야간)
· 특강 : 난치성 질환 처방 공개
· 강사 : 한방 20여년 연구 정진중인 현오스님
017)558-3450

불교 수·맥·강·좌

1. 신비의 추 사용법
2. 현장실습
3. 기균형 전문
4. 수맥관련 상담

02)734-2118
011)239-6817
대붕 氣 살림

풍수학, 동양철학, 침술 수강생 및 통신생 모집

◇모집기간 : 현재 접수중◇연령, 학력 제한없음
◇수업시간 : 3개월(24시간)
- 이수자 졸업장 수여
- 주간 : 오후 3시~5시-야간 : 7시30분~9시30분
◇개인지도 수강자는 시간 및 진도 특별조정함
◇강사 : 스님(철학박사, 승가대교수)
◆풍수, 운명, 침술, 감정시무하고 있음
(철학관 및포교원 개원시 지원 배려함)
(출가관심자 승려 수계득도 지원함)
0331)264-4582
대 · 불광사, 승가대학 교무처
(위치: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 39번지)

氣 기공 · 혈도술

몸과 마음 함께 수련

행복한 삶! 복됨의 도법 – 건강한 삶, 건강비법!
기공대법 · 단전호흡법 · 혈도술법
기력증진 정신통일 창의력개발 대인관계개선 정력회복법
이런분 환희 권함 1. 디스크 난치병등 현대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2. 사업 및 직장등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 3. 대학등 진학 · 취직시험 · 고시등 준비하시는 분 4. 피부 미용 및 비만등으로 고민하는 분 5. 단전호흡법 · 기공 · 혈신기법을 익히고자 하는 분
(※단체지도 등 희원, 컨수생 모집)
대용도원 ☎0336)643-9051, 0446)877-9051
진종기공(氣功) 道 협회

전통불교의식 학인모집

●기본과정 : 도량석, 종송, 예경, 불공, 시식등
●중급과정 :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특별의식
●어산작법 : 초급과정:바라무, 나비무 작법, 어산초급과정
●원왕생과정 : 불교식 장의 장례(다비의식)
출가상담및 교육과정<기본의식 교리, 습의>
반야심경, 금강경<10폭 병풍> 사경법회
※각 과정 통신생 모집 ※ 학인스님특별반 모집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1 원방BD 4층 (봉은사옆)
☎ 02)511-0108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의식연구원**

• 구 인 •

구 직

사찰 운전
종무 입주원함
53세 충청도
박처사
02)444-9348
019)334-3388

절 운영 맡겨 주실 분

기공치료 및 침술환자 치료에
아주 능통한 스님
MBC TV 에 기공시범이
방영된 스님
원각 011)871-9092

미국에서 포교 및 불사에 동참하실 스님 몇분을 모십니다.

영 학 사

1323 South 4th Avenu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7-2777
FAX) 323-737-0222
서울연락처) 011-392-5206

불심 돈독한 공양주 보살을 구합니다.

경북 고령 약수정사
0543)954-6194~5
053)761-6363
016)501-2219

• 수련원 •

◆청학사 수양원◆

■ 수양 · 요양 · 기도 · 공부
■ 경전강의, 참선기도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 불교용품 •

◆보 리 수◆

취급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기 타 •



만사형통 신비의 달마상 신착순 접수
자녀 합격여부 및 사업체직 취업, 승진
사주, 궁합, 작명등 육효로 100% 알수있음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1번지 송주
전 화(02) 446-2446~7
수 석 역 학 원 장 이 수 성

전통사찰 건축 불사

문화제 등록 제 962호
기둥은 육송으로만 하고 그외도 조각 장여부연이며 4미터 이하는 거의 육송을 사용합니다.
▶시공사찰
진관사 승가사 용화사 용주사 성남사 지장사
구원사 대연사 보광암 비봉사 현재 은선사 불사중
■공장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주소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28번지 가든아파트 가동 202호
0572)636-2509/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달마보급 안내



연락처 : 달마보급 선양회
죽림사 051)361-6662

全國 佛子님께
氣龍 達磨圖를 나눠드립니다.



혜월 회향 당암 합장
0564) 33-2037
017) 531-2929

사주 명리학 배우실분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작명, 진로선택등을 정확하고 자신있게 간명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합니다.
▶ 강의기간: 주2회 매회 3시간씩 3개월
▶ 강의시간: (오전반, 저녁반도 있음)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 강 사 : 7년여 강의 경력이 있으신 원장직강으로 종강후 개업보장
서울 마포구 대흥동 801-57
한국명리연구원
☎ 02)713)4852~3

벽지 ◑ 바닥재

버티칼 · 페인트

도매시장 가격으로 시공해 드립니다.
※ 출장견적 환영
해인 인테리어
02)201-1470
019)369-8000

현대자동차 신차판매 안내

스님과 불자님들의 차량문제
"믿고 맡겨 주시면 불자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 원응 곽영순
대표전화 : (053)627-6616
휴 대 폰 : 011-509-9456
호 출 : 012-494-6181

기적의 피라미트 파워

기공연구회
(代) 02)
455-6944

• 사찰안내 •

사찰 운영안내

◇위치 : 천안시
◇법당 : 25평 ◇요사 : 30평
◇부지 : 600평
◇가액 : 2억 5천만원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 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포교원(급) 안내

◆소재지: 충남 홍성군 광천읍 774번지(시내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조건: 대지 98평 내 목조 기와 단독 주택(등기 있음)
◆방4칸, 방범창 설치, 법당(임법당)1칸, 삼존불 탱화4점, 보일러실 및 욕실 1칸, 현관 및 넓은 마루 있음. 창고 및 화장실 1동
◆급매특가:3천만원(법당시설 일체포함)
상기 동일 소재지내 775번지 대지 93평(법당부지) 등기 있음. 특별 매가 8백만원
-774,775, 2필지 총 3,800만원
0451) 641-7569/011)401-8529

포교당 임대

◆부산 최고요지: 약 50평
◆보증금: 1천만원(월40만원)
◆시설비: 2,300만원
◆방 3칸, 주방, 법당, 창고, 사무실, 금동삼존불, 에어컨
◆시설 A급
051) 441-6773
011)825-1662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복현동 (주차시설완비)
◇ 법당 : 2층 43평, 옥상사용가능
- 개금3존불(넉자),
- 후불신중탱화 집기일체 포함
- 주지실 공양실 욕실등 완비 (입주즉시 법회가능)
◇ 가격 : 2천 5백만원 (보증금+시설비일체) 월 40만원
016)519-9551/053)957-9551

寺, 꼭 필요하신 분

◆ 울산 경주간 7번 국도변 분지형의 길상지
◆ 법당, 산신각, 요사3동(방사12),옥외 석조대불
◆ 경내지 350평, 매가 절충가능
◆ 향후 발전가능성 많음
0561)775-0545

사찰안내

■위치 : 양평군 양수리근역
■건평 : 총7동 140평
■대지 : 2천평
■매가 : 13억원
※ 강남에서 30분거리에 위치한 산세수려한 사찰로서 서울-양평간 4차선 국도에서 300m거리에 위치
■특징: 중개인사절
011)659-8538
0338)771-5737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창녕군 창녕읍
◆대지: 430평
◆ 전 : 760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3동, 5층석탑
아왕산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좋은 위치(잔디가 깔려 있음)
◆가액 :3억
0559)533-6321

귄 달마사

◆사주: 대운
◆작명: 출세 문자 비법
◆관상: 빈부 귀천 학당
◆풍수: 자손 창성 번영
◆부적: 발원 소원 성취
남녀 선착순 10명 철학특별지도
상담 예약 달마사 철학원(달마스님)
02)442-3545

인연 있는 스님이나 불자님 한분 모십니다.

큰 스님의 다리불편으로 인하여 모시게 되었습니다. 경주 토함산을 마주보고 있으며 수려한 산세와 울창한 숲 송림에 둘러 싸여 있는 등 자연의 미륵 불바위가 조화된 도량, 약사도량, 기도도량 좌선등, 기운도량. 입주 즉시 법회 가능
■사찰명:경주 무학산 성불암 토굴
■성불암 대지 : 200여평 (산신당+용왕당) 합1개
■건물 : 대웅전 내 방2개, 주방 , 전체 기름 보일러 목욕 샤워시설, 주차장 완비
전세금 200만원, 답사후 절충
017-558-3450

◆ 토굴팝니다

◇ 위 치 : 경남 하동군 청학동 근처
◇ 대 지 : 90평
◇ 건 평 : 15평(황토흙방 3)
◇ 가 액 : 3천만원
◆ 최고의 명당(황토흙 방 3개)
◆ 차도 전기 미설치
0594)862-6199
015)5962-6968

포교원 안내

◆위치:강동구 길동 먹자골목 시장통
◆19년 역사 포교원
◆방 · 법당 · 부엌 · 화장실
◆가격: 3천2백만원, 월 60만원 (가격절충가능)
◆스님의 개인사정으로 급매
011)210-2561
02)482-4550

사찰안내

■위치 : 경남
■법당 : 27평 ■요사채 : 27평
■부지 : 1,700평
■가액 : 1억 5천만원
.●전국의 사찰 포교당 다량확보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경험으로 양도 운영 하실분에게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급) 안내

◆위치: 서울 노원구
(전철역 2분거리 버스정류소 2분)
◆실평수: 대지 65평
(서울 APT내에 위쳐 건평 100평)
◆2층 -법당 / 1층 -요사채
◆가 액: 3억 5천
02)3391-4845
011)752-4842

사찰안내 (大불사 가능지)

■위치:팔당댐옆(경관수려) 올림픽대로 4차선 예정 도로접
■학교 폐교건물 1동 외 건물1동
■대지:400평 잡종지:530평
■임야:1000평(내 건축허가 1동 대지 200평 가능)
■가액 : 17억(절충가능)
※토지 확보후 임야 50,000평 상당을 유리한 조건으로 확보 가능한 위치임
011)244-0433/0347)794-1141

사 찰 안 내

◆위 치 : 통영시
◆부 지 : 1,180평
◆법 당 : 25평
◆요 사 : 25평
◆가 액 : 답사후 절충
◆특 징 : 수려한 산세와 울창한 송림에 싸여있는 청정지역
012)1067-0108
0502)580-0108

포교원 운영하실분

◆위치: 서울 노원구 상계동
◆평수: 3층건물(3층) 50평
◆가액: 보증금 2,500만원 (월45만원,전세 5,000만원 가능함)
◆시설비: 3,500만원(절충가능)
◆특 징: 시설완벽함.
법및 행사 즉시 볼수 있음. 전철역 3분거리 교통편리 주변 APT 주택 밀집지역, 대나무로 수작업한 나한님 216분 모셔져 있음
02)939-3647 / 02)720-5876
012-341-3647

인연 있는 스님이나 불자님 한분 모십니다.

큰 스님의 다리불편으로 인하여 모시게 되었습니다. 경주 토함산을 마주보고 있으며 수려한 산세와 울창한 숲 송림에 둘러 싸여 있는 등 자연의 미륵 불바위가 조화된 도량, 약사도량, 기도도량 좌선등, 기운도량. 입주 즉시 법회 가능
■사찰명:경주 무학산 성불암 토굴
■성불암 대지 : 200여평 (산신당+용왕당) 합1개
■건물 : 대웅전 내 방2개, 주방 , 전체 기름 보일러 목욕 샤워시설, 주차장 완비
전세금 200만원, 답사후 절충
017-558-3450

사찰 운영하실분

◆ 위치 : 전남 고흥 ◆ 부지 : 2,413평
◆ 법당 : 21평 (전통목조) ◆ 요사 : 2동 30평(전통목조)/10평(전통목조)
◆ 시설 : 시설일체 무상 기증
◆ 가격 : 답사후 절충
◆ 특징 : 신도시 포교권에 속한 기도 및 포교도량으로 폐어난 경관과 자연 탑바위가 조화된 도량으로 입주 즉시 법회할 수 있고 하루 2번 섬으로 연결된 바다길이 진도에 이어 국내에서 2번째로 열리는 진풍경이 연출되는 천하절경의 기도 도량입니다.
※ 본 도량은 부처님 정법도량이므로 스님 외 무속인, 일반인, 특히 보살전화 절대사절합니다.
부처님의 정토세계를 열어가는 21세기 불자기업
(주)동국불사 담당 ; 조법사 합장
서울본사 : 02)351-4447 / 011)736-4447

사찰건축 및 목재 안내(전문)

· 사찰 건축 · 사찰조경 · 단청 · 목조주택(한옥,황토집)
사찰 목재 안내 ※한국에서 마지막 원시림(육송)다량확보
♣ 대웅전:12평, 20평, 24평, 34평, 54평, 108평을 지을 목재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 대웅전 기둥: 1자, 1자 3치, 1자 5치, 1자 7치, 1자 8치, 2자 2치까지
◈ 대웅전 설계, 조감도 그려드립니다.
⊙ 불사하실 스님,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0371)762-3938
011)735-4168
(주)천운 나강민 합장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 (팔당대교에서 10분거리)
◆대지 : 1천평 ◆답 : 30평
◆법당, 산신각, 목조
◆주지실 1동, 요사1동, 후원채 1동 총 연건평 90평
◆매가 : 8억 3천 5백만원
0338)771-5737
011)380-9168

사 찰 안 내

◆위치 : 전북 김제시
◆부지 : 370평(아담한산속)
◆법당 : 39평(철근콘크리트)
◆요사 : 30평(방2, 주방, 거실)
◆전세 : 5천만, 매가 9천만
◆기타 : 동불, 사리1과 발견
0658)542-5859

토굴, 암자, 선방 최적지 양도

지리산 천왕봉이 안산으로 보이는 명도 - 약 2,000평 (약간의 대지와 초막한채)
012)587-6233
(호출시 지역번호 반드시 입력바람)

포교원 안내

◆위치:총신대역 시장통 사거리
◆평수 : 15평
◆법당 : 지장보살님 1분, 약사여래불 1분,종합탱화, 산신1분, 살림가구 일체
◆가격 : 500만원(월 40만원 (전세도가능 - 2,500만원)
◆시설비 : 3백만원(절충가능)
02)592-8849/011)611-8849
(무속인 및 보살님 상담환영)

사찰터(최적지)

◆위치 : 대전시 서구 5동 청학산줄기 절터 15,600평 (임야를 닦을 때 축대를 쌓지 않아도 7천~10,000평 정도가 생김) 단, 큰도로에서 4m 정도의 작은 도로로 500m 들어감
◆가액 : 평당 2만원(급매)
017)401-2459
042)544-2459
※ 그린벨트가 아닌 자연녹지입니다. ※

건 백 서 (建白書)

귀의 삼종삼보(歸依三種三寶)하옵나이다
존경하는 귀하에게 백용성조사연보(白龍城祖師年譜)를 보내 드리면서 아래와 같이 건백서(建白書)를 제출 하옵나이다.

우리나라 8백년 국운(國運)을 받을 지침서(指針書)가 이 백용성조사 연보 안에 들어 있사오니 필히 읽어 보시고 선근인연(善根因緣)을 지어 불퇴전의 신심(信心)과 확고부동한 원력(願力)으로 크나큰 보탬이 되어 주시옵소서.
백용성조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묘년인 서기1999년도로부터 임오년인 서기2002년도 안에 우리나라 국운 8백년 대운을 받게 되어 이 복전(福田)을 형성하라 하시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운을 책임질 대통령, 국무총리, 3부요인,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문화 관광부 장관을 위시로한 제 장관, 제 간부, 제 직원, 국립 서울 문화재연구소 소장을 위시로한 간부, 제 직원, 문화재위원장을 위시로한 제 문화재위원, 국회의원, 위정자, 재벌, 장자, 거사, 학자, 선남자, 선여인 등 이시여!
관념(觀念) 세계의 승리자가 되시어 백용성조사 유훈 10사목이 잘 실현되어 우리나라 8백년 대운을 받는 복전(福田)을 이룩되게 하시옵소서.

국내적 으로는

一. 백제불교초전법륜성지(百濟佛教初傳法輪聖地)이고 기미년 3·1 조선독립운동 진원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산140번지 일대인 우면산 대성사 전통사찰이 복원 되는 인연을 지어, 백제불교가 국제불교에 이바지 하여 일본불교 전래에 지대한 공적을 남겼듯이, 이제에 이르러서도 일본·중국·네팔·인도 불교계를 위시로 하여 전 세계 불교계를 향도 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 백제불교가 세계화하여 그 은혜가 충만되게 하는 좋은 인연이 지어지게 하여 주소서. 특히, 서울 서초구 출신 국회의원과 서초 구청장을 위시로한 구청 간부 제 직원, 구의회 의장을 위시로한 제 의원, 서울특별시장을 위시로한 시간부 제 직원, 서울특별시 시의회 의장을 위시로한 제 의원,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장을 위시로한 제 위원, 그리고 연관된 분들은 백용성조사유훈 10사목 중 제3조목 백제불교초전법륜성지이고, 기미년 3·1 조선독립운동 진원지인 이 성지를 잘 가꿀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거룩한 성지 우면산 대성사 도량내에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와 관련이 있는 하도낙서(河圖洛書) 주역원리가 나온 곳인 중국 하남성 회양현의 태호복희씨(太昊伏羲氏)와, 우리나라 국호와 관련이 있는 마한·진한·변한인의 조상이신 기자조선 기자대왕과, 농사법의 창시적 조상이신 염제신농씨(炎帝神農氏), 우리나라 국태조 단군조선의 단군왕검(檀君王儉), 인문초조(人文初祖)이신 황제헌원씨(黃帝軒轅氏), 다시말해서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 동양삼국인의 조상이신 단군 기자전, 태호 염제 황제전을 지어서, 역대의 군왕과 그 충신열사, 그리고 각 씨족의 근원조, 태시조, 시조, 비조, 파조, 공덕조 등의 그 위목을 모셔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원리로 동양삼국인의 형제애의 유대로 손과 손을 맞잡을 수 있고, 발과 발을 함께 맞추어, 거보를 내디딜 수 있는 근원지를 삼아 씨족의 원류를 통하여 민족사관을 재 정립하여 온 겨레의 중흥을 도모하자는, 이 길을 가르쳐 보이는 바 입니다. 그리고 불타조사전을 지어서 철여래불과 칠십조사를 모셔서 불타조사의 원류를 통하여 세계 불교 중흥의 근원지로 삼자는 것을 가르쳐 보이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자손만대에 부끄럽지 않도록 어리석음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지혜의 안목으로 살펴 성취되게 하여 주소서.

二. 호국호법도량(護國護法道場)인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용장3리 887번지 일대의 남산인 금오산중 고위산 천룡사지(天龍寺址) 석가만일 만인동참 참선·염불·간경·주력·불사 불교 5대수행 발원 교화 참회 도량으로 복원이 성취되어 자손만대에 길이 빛나는 복전(福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경주시 출신 국회의원과 경주시 시장을 위시로한 간부 제 직원, 시의회 의장을 위시로한 제 의원, 국립 경주문화재 연구소 소장을 위시로한 간부 제 직원, 경상북도 도지사를 위시로한 도간부 제 직원, 도의회 의장을 위시로한 제 의원, 경상북도 문화재위원장을 위시로한 제 위원, 그리고 연관된 분들은 백용성조사유훈 10사목중 제6사목 제1항 남산인 금오산중 고위산 천룡사지 제4창 복원불사(第四創復元佛事)를 원만성취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찌된 연고인가 하면, 삼국유사 천룡사편에 이르시되 악 붕구(樂鵬龜) 중국 당나라 사신이 와서 보고 말하기를 「이 천룡사가 파괴 되면 곧 나라가 망하리라.」고 예언하였는데, 그 예언대로 통일신라 말엽에 이 천룡사가 파괴 되더니, 통일신라가 망하였던 것입니다. 고려초 경주 최씨의 시조 고운·해운 최 치원 (孤雲·海雲 崔致遠) 선생님의 직계후손 최 제안공이 고려를 위하여 천룡사를 중창 복원하였던 것 입니다. 고려 말엽에 이 천룡사가 파괴 되더니, 고려가 망하였던 것입니다. 조선왕조 초기, 무학대사가 노경에 이르러 그 제자를 보내어서, 조선왕조를 위해 이 천룡사를 제3창 복원(第三創復元) 하였던 것 입니다. 조선말엽에 이 천룡사가 파괴 되더니, 조선이 망하였던 것 입니다. 그리하여 백용성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단군조선 1천년 운이요, 기자조선 1천년 운이요, 마한·진한·변한에 이어 가야 5백년 운이요, 고구려·백제·발해·신라·통일신라 1천년 운이요, 고려 5백년 운이요, 조선왕조 5백년 운인데, 조선왕조 한양정도 6백년 만도인 갑술년 서기1994년도를 지나 기묘년 서기1999년도로부터 임오년 서기2002년도 안에 우리나라 8백년 대운이 오기는 오되, 세계 강대국의 종속국이 되는냐, 주인다운 주인국이 되느냐, 이 기로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인다운 주인국으로 온 겨레를 향도하기 위하여, 이 국운을 받는 동안에 천룡사 제4창 복원불사(第四創復元佛事)를 통하여 8백년 국운을 맞이하라 하시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머니 젖 먹던 힘을 다 기울여 이 국토에 책임질 만한 여러분들께 이에 이바지 하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三. 신라불교초전법륜성지(新羅佛敎初傳法輪聖地)이고 백용성조사 오도성지(悟道聖地)인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도개2리 347번지 일대인 아도모례원의 모례장자 옛집을 재현하여 신라시대의 조상의 얼을 이어받게 하여 주소서. 특히, 구미시 출신 국회의원과 구미시 시장을 위시로한 간부, 제 직원, 시의회 의장을 위시로한 제 의원, 경상북도 도지사를 위시로한 도간부, 제 직원, 도의회 의장을 위시로한 제 의원, 경상북도 문화재위원장을 위시로한 제 문화재위원, 그리고 연관된 분들은 백용성조사유훈 10사목중 제4 조목인 신라불교초전법륜성지이고, 백용성조사 오도성지(悟道聖地)인 아도모례원의 모례장자 옛집을 재현하여 우리조상의 얼을 빛내, 자부와 긍지와 자존을 가지고, 이 세계화 시대에 우리 고유 전통 가옥으로 예술의 총화를 담아서 우리 민족문화의 조화를 세계 만방에 빛낼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동시에 용성조사의 견도(見道), 수도(修道), 무학도(無學道), 오도(悟道)는 모든 스님, 모든 종교인, 온 겨레가 다 함께 용성조사와 같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하고 뜻으로 헤아리는 알음알이인 지적(知的) 미혹(迷惑)에서 벗어 버린 경지에 이르는 견도(見道)와, 용성조사와 같이 정(情)에 사로잡히지 않고 뜻(意)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수도(修道)를 마치고, 용성조사와 같이 하늘과 땅은 부처님의 몸이요, 산과 물은 그대로 조사의 마음임을 밝혀 아시고, 나는 부처님의 몸 속에서 살고, 나는 조사님의 마음 가운데서 놀고 있는데, 어이타 악을 끊지 아니하랴, 어이타 선을 닦지 아니하랴. 나다.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한다 하는, 여섯가지의 근본번뇌(根本煩惱)와 스무가지 따라 다니는 번뇌를 돌이키면 청정한 마음이니, 이 마음을 다스리는 무학도(無學道)의 경지에 노니면서 진실(眞實)의 지견(知見)이 열리어 보리도(菩提道)를 증오(證悟)한 오도(悟道)의 경지에 이르러, 이상세계로 향도 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 우리나라 국운을 책임을 질 수 있는 이가 되어 봅시다.

四. 가야불교초전법륜성지(伽倻佛敎初傳法輪聖地)이고 신라 5교9산 선문(新羅五敎九山禪門)중 제8 봉림산선문(第八鳳林山禪門)인 경상남도 창원시 봉림동 176번지 일대인 봉림산 봉림사 봉림선당지(鳳林山 鳳林寺 鳳林禪堂址)의 복원불사가 이룩되게 하여, 저 신라시대에 5백 대도인이 출현하여 통일신라불교, 고려불교를 빛나게 하였듯이 이제에도 5백 대도인이 출현하여 이 세상을 밝고 맑고 빛나게 하는 인연을 지어지게 하여 주소서. 특히, 창원시 출신 국회의원과 창원시 시장을 위시로한 간부 제 직원, 시의회 의장을 위시로한 제 의원, 국립 창원 문화재연구소 소장을 위시로한 간부 제 직원, 경상남도 도지사를 위시로한 도간부 제 직원, 도의회 의장을 위시로한 제 의원, 경상남도 문화재위원장을 위시로한 제 위원, 그리고 연관된 분들은 백용성조사 유훈 10사목중 제1조목인 가야불교초전법륜성지이고, 신라 5교9산 선문 중 제8 봉림산선문인 봉림산 봉림사 봉림선당지 복원불사를 서둘러, 창원시의 몸은 생겠는데 창원시의 정신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를 보충해야 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고 정신이 흐리멍텅하면 넋 빠진 등신이라 하고, 정신은 말짱하고 육체가 없으면 유령이라 합니다. 맑은 마음, 건강한 육체, 풍요로운 물질생활인 삼위일체의 아름다운 장엄으로 봉림사 봉림선당지를 복원하여 우리 민족의 혼으로 삼고, 그 혼의 바탕위에 신라, 고려시대처럼 왕사(王師), 국사(國師)와 같은 수많은 도승 등이 출현하여 이 국토를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계기로 삼자는 말입니다.

五. 석가여래부촉법 제68세 용성진종(白龍城)조사 탄생성지(誕生聖地)인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 252번지 일대의 생가복원 및 성역화 사업이 이룩되어 호국(護國)의 얼을 이어 받을 수 있는 선근인연(善根因緣)을 지어지게 하시옵소서. 백용성조사유훈실현후원회에서는 여러 해 전부터 백용성조사 생가 복원 및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동안 역대 장수군수등이 왜 하필이면 내 군수시절에 전(田)의 지목에다 어떻게 백용성조사 생가(生家)복원을 할 수 있겠는가. 꼭 생가(生家)를 복원하려거든 돼지 막을 짓고, 돼지를 3년 내지 4여 년간 키운 뒤에 지목을 대지(垈地)로 변경하여 복원하던지 할 일이지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법을 어겨 생가를 복원하려고 하는가? 라며 귀찮은 존재인양 회피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 상두 장수군수께서 백용성조사연보를 낱낱이 잘 읽어 보고, 백용성조사유훈실현후원회 대광 유 종혁 거사의 용성조사 유훈 열가지 조목의 해설을 상세히 잘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아 역대 장수군수등이 못한 일을 내가 하리이다 하고, 분연히 일어나 용성조사 생가복원 성역화 대작불사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나이다. 다 같은 군수이지만, 그 관념(觀念) 세계의 패배자는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고, 그 관념(觀念) 세계의 승리자는 이와 같은 일을 성취되게 하였나이다. 그리하여 기묘년인 서기1999년도로부터 임오년인 서기2002년 안에 우리나라 국운 8백년 대운을 받게 되는 복전(福田)을 형성 할 수 있는 인연을 지었나이다. 특히 장수군 출신 국회의원과 장수군 군수를 위시로한 간부, 제 직원, 군의회 의장을 위시로한 제 의원, 전라북도 도지사를 위시로한 도간부 제 직원, 도의회 의장을 위시로한 제 의원, 전라북도 문화재 위원장을 위시로한 제 위원, 그리고 연관된 분들은 백용성조사 탄생성지 성역화 사업을 통하여 기미년 3·1 조선독립운동 기념관을 건립하여, 당시의 종교계로 우리 국민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천도교,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감리회, 불교계가 조선독립 민족대표 33인을 낳게 되었습니다. 기미년 3·1 독립운동 조선민족대표 33인 서명에 있어서 제1번 서명에 천도교대표 손 병희 교주님, 제2번 서명에 기독교 장로회 길 선주 목사님, 제3번 서명에 기독교 감리회 이 필주 목사님, 제4번 서명에 불교대표 백 용성 조사님이 서명하시고, 용성조사께서 말씀하시되, 만해 한용운 자네는 저 공간을 뛰어 넘어 저 끝머리에 서명하시게 하니 만해 한용운 대사께서 흔쾌히 대답하시되, 용성 큰스님의 명령대로 하겠나이다 하면서 공간백지를 뛰어 넘어 끝부분에 서명하니, 천도교 도사, 교사, 강사 등과 기독교 장로회, 감리회, 목사, 교역자 등이 크게 감명을 받고 차례대로 서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최 린 천도교 교사의 서명란에 이르러 한용운 대사의 서명란에 맞닿으니, 할 수 없이 홍 병기 천도교 강사가 한용운 대사의 서명란을 넘어서 서명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홍 기조 천도교 도사가 서명하여 조선민족대표 33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백용성조사께서는 우리나라 국부(國父)로 추앙을 받을 조선독립운동의 막후 기동이 되신 것입니다. 이 기미년 3·1 조선독립운동이 계기가 되어서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그 정신에 이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3·1 정신을 재정립, 계승하여 우리민족이 나아갈 지표를 형성하는 도량을 이룩하자는 것이니, 백용성조사 생가 성역화 사업이 지속되어 지기를 간절히 발원하는 바입니다.

六. 백용성조사 제1차 출가성지(出家聖地)인 전라북도 남원시 산곡동 산16번지 지리산 교룡산성 덕밀암지(德密庵址)가 복원이 되어 호법(護法)의 얼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성조사의 제1차 출가성지인 남원 지리산 교룡산성 덕밀암은 동학(東學)을 창도한 수운 최 제우 대신사가 관의 탄압을 피해 포덕 2년 신유년인 서기1891년 2월 그믐날에 남원 교룡산성 덕밀암에 오시어 혜월 조실스님의 방인 은적당(隱寂堂)에서 은거 하면서 동학을 밝히는 논학문(論學文)을 집필하고,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東經大典)의 내용을 정리하여 동학을 포교하였고, 뒷날 전라도 남원지역이 동학포교의 거점이 되어 동학농민운동이 바로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학 교주 수운 최 제우 대신사께서 덕밀암 은적당에 은거 하셨고, 그 16년 이후에 용성진종(白龍城)조사가 이 덕밀암에 출가하시니 석가여래부촉법 제67세 환성지안조사의 후신(後身)이 용성진종(白龍城)조사이시고 수운 최 제우 대신사의 법손(法孫)으로서는 천도교 손 병희 교주이었으니, 뒷날 기미년 3·1 조선독립운동 당시에 백용성조사와 손 병희 교주의 만남은 선세로부터 정망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 성지 덕밀암은 우리 민족정신 개벽에 진원지의 성역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남원시 출신 국회의원과 남원시 시장을 위시로한 간부, 제 직원, 시의회 의장을 위시로한 제 의원, 전라북도 도지사를 위시로한 도간부 제 직원, 도의회 의장을 위시로한 제 의원, 전라북도 문화재위원장을 위시로한 제 위원, 그리고 연관된 분들은 백용성조사 제1차 출가성지 남원 지리산 교룡산성 덕밀암지가 잘 복원, 성역화 되어 우리 민족의 성지로 잘 가꾸어 보존 될 수 있도록 이에 이바지하는 눈 밝은 민족 지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七. 백용성조사 제2차 출가성지(出家聖地)인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가야산 해인사 극락암 도량을 성역화 하여 호국호법(護國護法)의 종소리가 온 누리에 진동되게 하여 온 겨레, 전 인류 만 중생이 대각(大覺)을 성취하는 성불인연 되게 하여 주소서. 백용성조사 제2차 출가성지인 가야산 해인사는 고려팔만대장경이 모셔져 있기에 법보도량(法寶道場)이라 합니다. 고려 팔만대장경의 권수가 6천 여권이 넘는데, 백용성조사께서는 각해일륜(覺海一輪) 한 권을 통하여 팔만사천 무진법문 6천 여권과 상통 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야산 해인사 극락암을 성역화 하여 고승대덕 스님 등이 주석 하시어 온 겨레를 묵묵히 이상적 높은 차원의 경지로 향도 할 수 있는 복전을 형성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합천군 출신 국회의원과 합천군수를 위시로한 간부 제 직원, 군의회 의장을 위시로한 제 의원, 경상남도 도지사를 위시로한 도간부 제 직원, 도의회 의장을 위시로한 제 의원, 경상남도 문화재 위원장을 위시로한 제 위원, 그리고 연관된 분들은 백용성조사 제2차 출가성지인 합천 가야산 해인사 극락암 도량을 성역화하여 민족중흥 불교중흥, 인류중흥, 종교중흥을 통하여 일체 중생 성불 인연(一切衆生成佛因緣)을 짓는 대작불사의 공덕주(功德主)가 되어지이다.

八. 백용성조사 창건도량(創建道場)이고 기미년 3·1 조선독립운동의 진원지이며 입멸도량(入滅道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1번지, 2번지, 3번지를 중심한 동·서·남·북 일대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민족정기가 함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미년 3·1 조선독립운동의 진원지인 이 서울 종로 대각사는 동편으로는 겉모습은 주택 민가이나, 그 내용은 금·은 세공 공방이 들어앉아 있고, 서편으로는 삼화페인트 건물과 그의 창고와 마당이 있으며, 남쪽으로는 가든 모텔과 백천장 등이 있고, 북쪽으로는 주택 등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대각사를 들어가자면, 삼화페인트 골목으로 직진하면 삼화페인트 창고 마당이 가로막아, 좌회전하자 바로 우회전하고, 바로 또 우회전하여, 바로 좌회전하자 일주문이고, 바로 대각사 도량 이어서 겨우 차 몇 대 세워 놓을 수 있는 형편입니다. 기미년 3·1 조선독립운동 정신을 계승 할 수 있는 전당, 이 기미년 3·1 조선독립운동 진원지를 성역화 하여 백용성조사 사상기념관을 건립하고 대각사를 원래 모습대로 복원하며, 참선·염불·간경·주력·불사·불교5대수행·발원·교화·참회 도량이 이룩되어 민족중흥과 불교중흥, 인류중흥과 종교중흥이 성취되게 할 수 있는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기획부 부장, 모든 간부진, 제 직원, 그리고 종로구 출신 국회의원과 종로구 구청장을 위시로한 간부 제 직원, 구의회 의장을 위시로한 제 의원, 서울특별시 시장을 위시로한 제 의원,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장을 위시로한 제 위원, 그리고 연관된 분들은 백용성조사 창건도량이고, 기미년 3·1 조선독립운동 진원지이며, 백용성조사 입멸성지인 이곳 대각사를 성역화 하는, 남·북 전 국민을 대표하여 책임을 지고 이에 이바지 할 것을 가르쳐 보이는 바입니다.

국외적 으로는

九. 고구려불교초전법륜성지(高句麗佛敎初傳法輪聖地)인 중국 길림성 집안시(中國 吉林省 集安市) 성문사지(省門寺址) 이불란사지(伊弗蘭寺址)가 복원되도록 중국 정부측과 외교활동을 전개하여 이룩되게 하여 주소서. 특히, 3부요인과 정부 당국자는 이 호소에 귀를 기울여 문호를 열어 그 자리에 있을 때 국제외교에 하자가 없도록 하여 주소서.

十.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인 동양삼국(東洋三國)은 근원조(根源祖)인 단군왕검(檀君王儉) 기자대왕(箕子大王) 태호복희씨(太昊伏羲氏), 염제신농씨(炎帝神農氏), 황제헌원씨(黃帝軒轅氏)의 친손(親孫) 내지 외손(外孫)임을 자각(自覺)하여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원리로 상통하여 중국 하남성 신정시 회수 시조산(中國河南省新鄭市姬水始祖山)에 동양삼국인의 인문초조(人文初祖)이신 황제헌원중천각(黃帝軒轅中天閣)을 중국측의 신정시 염제황제문화연구회(炎帝黃帝文化研究會)와 한국측의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白龍城祖師遺訓實現後援會)에서 합심 협력하여 건립중이오니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찬탄의 박수를 보내주시어 동양삼국인(東洋三國人) 모두가 다 인문초조 황제헌원공손희씨(人文初祖黃帝軒轅公孫姬氏)의 친손 내지 외손임을 잘 알아서 동양삼국인(東洋三國人)이 모두 다 형제애로써 서로 교류가 되게 하는 인연을 지으시 옵소서. 특히, 3부요인과 정부당국자는 이 도리에 귀를 기울여 그 자리에 있으면서 경제 제일주의 일변도에 흐르지 말고 문화민족으로써의 자부와 긍지와 자존심을 가지고 씨족의 원류와 문화의 근원을 밝혀서 마음의 양식이 풍요롭게 하소서. 이렇게 함으로써 동양삼국인이 씨족의 원류와 문화의 교류로써 남·북 통일의 기초를 닦고, 동·서 평화의 언덕을 삼을 수 있으므로 가르쳐 보이는 바입니다.

十一. 유사이래(有史以來) 동양삼국인(東洋三國人) 가운데 제일가는 충신 한 분을 천거하라고 한다면 기자대왕의 형님이신 상은왕손 비간공(商殷王孫比干公)이라 하겠습니다. 은(殷)나라 충신 비간공(比干公)과 같은 동양삼국인(東洋三國人)의 충신이 수 천 만명이 깨 쏟아지듯이 나와 동양삼국인(東洋三國人)이 모두가 다 충신이 되어 동·서 세계평화를 이룩하고저 중국 복건성 천주시 남안 관교진 내적촌(中國福建省泉州市南安官橋鎭內厝村)에 중국측 비간문화연구회(比干文化研究會)와 한국측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白龍城祖師遺訓實現後援會)와 교류 상통하여서 비간전(比干殿)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다 함께 찬양의 박수를 힘차게 보내주시어 수 천 수 만의 충신이 자손 만대에 이어지는 인연을 지어 태평성세가 이어지게 하여 주소서.

十二. 용성진종(白龍城)조사께서 44세, 45세 되시던 해인 정미년 서기 1907년, 무신년 서기 1908년도에 중국에 건너가셔서 중국 불교의 법맥이 끊어져 버린 것을 자탄하고, 중국 하남성 신정시 회수 시조산에 올라 헌원황제(軒轅黃帝) 자손들과 함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형제애로 상통 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중국 북경 관음사(中國北京觀音寺) 방장화상(方丈和尙)으로부터 해동(海東)조선의 제일가는 선지식(善知識)으로 존대를 받았던 것이니, 이 복경에 관음사(觀音寺)를 복원하여 국위(國威)를 선양(宣揚)하는 계기가 되는 인연을 지어 주시 옵소서.

十三. 백용성조사(白龍城祖師)께서 59세 되시던 해인 임술년 서기 1922년도와 백용성조사(白龍城祖師) 64세 되시던 해인 정묘년 서기 1927년도에 중국 길림성 조선족 자치주 연길, 연변, 용정에 대각사 포교원, 그리고 선농당(禪農堂)을 이룩하여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삼고, 민족중흥과 불교중흥을 발원하신 조선족 자치주에 대각사 포교원의 복원불사가 성취되게 문호를 열 수 있도록 중국 당국과 외교노선을 상통하여 독립운동의 진원지를 우리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영세불망(永世不忘)케 하는 인연을 지어 주시옵소서.

十四. 부처님이 탄생하신(佛誕聖地) 네팔 룸비니원 국제사원 구역내 한국사원인 대성석가사(大聖釋迦寺)가 한창 건립중이오니 부처님의 은혜를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사부대중(四部大衆), 칠중불자(七衆佛子) 모두 함께 힘을 합하여 이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연을 지어 자손만대에 길이 빛나는 복전(福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정부는 한화 1백 30억원을 지원하여 불탄성지 네팔 룸비니원 국제사원 구역내 중국사원을 돋보이게 찬란하게 지어 놓아서, 국제적으로 비록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중국 국민이 부처님의 은혜를 받아 문화민족이 되었으니, 참으로 의리가 있는 나라라고, 이 성지를 순례하는 전 세계 순례객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태국정부도, 미얀마 정부도, 가난한 처지이지만 국비 지원으로 사원을 짓고 있습니다. 이에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불탄성지 네팔 룸비니원 국제사원 구역내 한국사원인 대성 석가사 법당 건립에 있어서 국비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3부요인과 정부 당국자에 호소를 거듭 거듭 하는 바 입니다.

十五. 부처님이 성도(成道)하신 인도 부다가야 보리수원과, 부처님이 최초로 설법(說法)하신 인도 바라나시 녹야원과, 부처님이 오래도록 주석(住錫)하신 인도 슈라바스티 기원정사와, 부처님이 입멸(入滅)하신 인도 구시나가르 사라쌍수원에 한국사원이 이룩되게 하여 주시는 인연을 지어서 문화민족의 선물을 주신 부처님의 은혜를 갚아서 부처님과 보살님의 증명을 받고 하느님의 보우하심과 일체 천룡팔부 신중님의 옹호하심을 받아 생전(生前)에 수행(修行)하는 공덕으로 사후(死後)에는 기필코 저 천상세계인 하늘나라나 부처님의 세계인 정토(淨土) 안양국에 왕생(往生)하여 장차 열반락(涅槃樂)을 증득(證得)하여 지이다.
그리하여 이 용성진종(白龍城)조사 유훈 10사목(遺訓十事目) 부촉이 잘 실현되어 우리나라 8백년 국운을 잘 받아 자손만대에 길이 빛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처님과 보살님이 증명하여 주시고 하느님 신중님의 보우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이 건백서(建白書)를 제출 하옵나니, 경청 경청 지심경청(敬聽敬聽至心敬聽) 하여 주소서.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건데, 석가여래부촉법 제68세 용성진종(白龍城)조사연보를 잘 받아 읽어보시고, 잘 생각 하시어서 마음으로 잘 간직하여서 말과 몸의 행동으로 정성을 다하여, 본심(本心) 가까운데에서 일어나는 마음으로 복덕과 자비와 지혜를 내어 주시어 건백서의 내용이 성취되게 간절, 간절히 부처님께 기원 하옵고, 간절, 간절히 하느님께 기도 드리고, 간절, 간절히 천룡팔부 신중님께 간구 하옵고, 건백서를 받아 보시는 힘있는 분들께 간절, 간절히 호소를 하옵나이다. 백용성조사유훈 열가지조목이 낱낱이 잘 실현되게 도와주시어 8백년 국운을 잘 받아 가져 자비(慈悲) 복덕(福德) 청정(淸淨) 진실(眞實) 지혜(智慧)로운 국토가 전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8백년 대운을 맞이하는 첫 해인 大覺應世 己卯年 서기1999년 1월 1일
백용성조사창건도량 기미년 3·1 독립운동진원지 백용성조사입멸성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2번지 대각사(大覺寺)
조실겸주지 불심도문 임윤화 합장
전화: 02-765-0972 팩스: 02-742-2126 우편번호 : 110-390
백제불교초전법륜성지 기미년 3·1독립운동진원지
서울 특별시 서초구 서초 3동 산 140번지 전통사찰 우면산 대성사지(牛眠山 大聖寺址)
조 실 불심도문 임윤화 합장
주 지 범망 정윤성 합장
신도회 회장 대광 유종혁 합장
거사림회 회장 월광 김용석 합장
백용성조사유훈실현후원회 회장 수승행 한명옥 합장
전화: 02-583-1475 팩스: 02-583-2700 우편번호 : 137-073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용장3리
석가만일만인동참 참선, 염불, 간경, 주력, 불사 불교5대수행 발원 교화 참회 도량
남산인 금오산중 고위산 천룡사지(天龍寺址)
조실 겸 주지 불심도문 임윤화 합장
원감 금강업 강순자 합장
화주 무량화 강금련 합장
백용성조사유훈실현후원회 부회장 관음주 김희자 합장
총무 법왕자 정미자 합장
기도부전 겸 노전 보승 백진환 합장
전화 : 0561-748-8815~7 팩스 : 0561-748-8818 우편 번호 : 780-850
백용성조사 유품 보존처 겸 고려대장경 신수대장경봉안도량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2동 443번지
경주 남산인 금오산중 고위산 천룡사지 부산 포교원
조 실 불심도문 임윤화 합장
주 지 각현법신 강호숙 합장
신도회 회장 정혜월 백옥순 합장
명선회 회장 명선행 배영심 합장
전화 : 051-242-4234 팩스 : 051-244-8468 우편 번호 : 602-022
신라불교 초전법륜성지 백용성조사 오도성지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도개2리 347번지
아도모례원지(阿道毛禮園址)
원장 겸 조실 불심도문 임윤화 합장
반야회 회장 원일화 김금화 합장
총 무 묘법화 김경희 합장
전화: 0546-474-0839 우편 번호 : 730-860
불탄성지 네팔 시타르타 나가르 루판데히 룸비니원국제사원구역내
한국사원인 대성석가사(大聖釋迦寺)
석가여래부촉법 제70세 보리달마조사전법 제43세
석가여래부촉법 제68세 용성진종(白龍城)조사 법손
조실 불심도문 임윤화 합장
주지 각현법신 강호숙 합장
Korean Buddhist Mahabodi Society
Daesung Shakya Sa-Temple
Siddhartha Nagar Rupandehi Lumbini Nepal
전화 : 001-977-71-80123 팩스 : 001-977-71-80124

사람다운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랴,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 사람다운 사람이 들어서 남·북 문제, 동·서 문제를 가르쳐 보여야 할 것이요, 이 사람다운 사람이 출가(出家)하여 견도(見道), 수도(修道), 무학도(無學道), 오도(悟道)의 경지에 이르러 참회(懺悔) 발원(發願) 교화(敎化) 하여야 하지 않겠소?!
이 양심(良心)의 소리없는 소리를 조용히 들을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하는, 의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의리를 지키는 사람다운 사람, 본심(本心) 가까운 마음으로 알음알이인 지적미혹(知的迷惑)을 벗어 버리고 정(情)에 사로 잡히지 않고 뜻(意)에 얽매이지 않으며 물든 마음(染心)에 흐릿하지 않는 사람다운 사람, 설사 알음알이의 지적미혹에서 헤메인다 하더라도 정에 사로 잡히고 뜻에 얽매이고 물든 마음으로 행동한다 하더라도 불교의 우주관, 불타의 세계관, 불타조사의 인생관, 용성조사의 국가관을 요해하여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고 진리의 어버이 이신 불타조사(佛陀祖師)님에게 효행(孝行)하며 씨족(氏族)의 원류(源流)를 확립하여 민족사관을 재정립한 바탕 위에 불타조사원류(佛陀祖師源流)의 흐름을 따라서 불교사관을 재정립(再定立)하여 불교의 생활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지성화(知性化)인 참선수행 의단독로(參禪修行疑團獨露), 주력수행 업장소멸(呪力修行業障消滅), 간경수행 혜안통투(看經修行慧眼通透), 염불수행 삼매현전(念佛修行三昧現前)의 사람다운 사람, 이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근본 수행을 찬탄하는 학자인, 사람다운 사람을 찾아 모시고저 합니다.
용기있는 학자, 사람다운 사람은 저 신라시대의 김 유신 장군님처럼, 저 고려시대의 균여 법사님처럼, 저 조선시대의 서산대사님처럼, 근세의 만해 한 용운 대사님처럼, 유 관순 열사님처럼, 매헌 윤 봉길의사님처럼, 이 건백서와 용성조사의 연보와 사람다운사람을 찾습니다의 이 호소를 들으시고 분연히나서 주시기를 간절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바입니다.
또는 이러한 사람다운 사람, 훌륭하신 학자님을 보신 분이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천거해 주시면 아래와 같은 논제(論題)를 드려서 온 겨레, 전 인류, 만 중생을 향도하는 밝은 등불로 모실 것을 간절 간절히 서원하고, 거듭 거듭 호소하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 건백서를 보시고 석가여래부촉법 제68세 용성진종(白龍城) 조사의 연보를 보시고저 원하시는 분은 위에 기록된 절로 신청하여 주시되, 받으실 분의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스님의 경우에는 법명, 신도의 경우에는 법명과 성명, 일반인의 경우에는 성명을 잘 기록하여 보내주시면, 바로 우편이나 인편으로 공손하게 올려 드리겠습니다.

· 논 제 (論題) ·

1. 석가여래불타님의 인행(因行)과 용성진종조사님의 인행(因行).
2. 석가여래불타님의 최후 인행인 도솔천 내원궁 호명보살.
   용성진종조사님의 최후 인행인 석가여래부촉법 제67세 환성지안 조사.
3. 석가여래불타님의 룸비니동산 탄생과 용성진종조사님의 죽림마을 탄생.
4. 석가여래불타님의 카피라성 성장과정과 용성진종조사님의 죽림마을 성장 과정.
5. 석가여래불타님의 사문유관(四門遊觀)과 용성진종조사님의 몽중수기(夢中授記).
6. 석가여래불타님의 유성출가와 용성진종조사님의 덕밀암 출가.
7. 석가여래불타님이 육사외도의 가르침을 받음과 용성진종조사님이 혜월화상의 가르침을 받음.
8. 석가여래불타님이 가야산의 수행과 전전각산의 사유와 우르벨라아촌으로 하산하심과 용성진종조사님이 가야산의 수계와 등운산의 주력하심과 금강산의 참선수행.
9. 석가여래불타님이 보리수하 금강보좌위에서 사마(四魔)를 항복받고 보리도(菩提道)를 이루심과 용성진종조사님이 도솔암에서 견도(見道)와 수도(修道)를 마치고 신라불교초전법륜성지 아도모례원에서 보리도를 증오한 오도(悟道)를 하심.
10. 석가여래불타님의 三·七 일 동안 해인삼매의 자수용 법락과 용성진종 조사님의 三·七 일 동안 보림정진 환희용약.
11. 석가여래불타님의 녹야원 초전법륜과 용성진종조사님의 금오산 정진수행.
12. 석가여래불타님이 연기 화엄부, 소승 아함부, 대승 방등부, 공혜 반야부, 실상 법화부, 원적 열반부를 설하셨고, 용성 진종조사님이 불사수행, 주력수행, 참선수행, 간경수행, 염불수행을 제창.
13. 석가여래불타님께서 불타원류를 설해 주시고, 마하가섭존자에게 전법하시어, 조사원류를 이루게 하시니, 그러기에 용성진종조사님께서 불타조사원류를 확립, 전법의 밝은 길을 여셨음.
14. 석가여래불타님이 카피라성 백성을 구하고저 잎이 다 떨어진 마른 나무 밑에 앉으셨고, 용성진종조사님이 우리나라국민을 구하고저 기미년 3·1 독립운동 막후기둥 되심.
15. 석가여래불타님께서 보리수 아래의 금강보좌를 여의지 않고 7처9회로 연기대방광불화엄경을 이설하시고, 용성진종조사님께서는 연기대방광불화엄경을 번역하고, 발간 유포 하심.
16. 석가여래불타님께서 왕사성 영축산에서 실상묘법연화경을 강설하시고, 용성진종조사님께서는 실상묘법연화경을 번역하고 발간, 유포 하심.
17. 석가여래불타님이 기원정사에서 공혜(空慧)금강마하반야바라밀경을 강설하시고, 용성진종조사님이 공혜(空慧)금강마하반야바라밀경을 상역과해 하여 발간, 유포 하심.
18. 석가여래불타님이 방등 대방광원각경을 강설하시고 용성진종조사님이 방등 대방광원각경을 상역과해 하여 발간, 유포 하심.
19. 석가여래불타님이 도리천상에서 어머니를 위한 설법으로 지장보살본원경을 강설하시고, 용성진종조사님이 위모설법(爲母說法)인 지장보살본원경을 번역하여 발간, 유포 하심.
20. 석가여래불타님이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 제보살만행 수능엄경을 강설 하시고, 용성진종조사님은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 제보살만행 수능엄경을 번역하여 간행, 유포하심.
21. 석가여래불타님이 정토삼부경을 강설하시고, 용성진종조사님이 정토삼부경을 번역하심.
22. 석가여래불타님이 공삼매, 무작삼매, 무상삼매인 금강삼매경을 강설하시고, 용성진종조사님이 공삼매, 무작삼매, 무상삼매인 금강삼매경을 번역하심.
23. 석가여래불타님이 팔상성도 하시고, 용성진종조사님은 팔상록을 편집하심.
24. 석가여래불타님께서 8만4천 무진법문을 설하시고, 용성진종조사님께서는 고려대장경 판식, 보수 불사를 하심.
25. 석가여래불타님께서 그 조상의 원류인 포오탈라카의 일종씨(日種氏)임을 밝히시고, 용성진종조사님께서 그 조상의 원류인 중원 신정 시조산의 헌원씨(軒轅氏)임을 밝힘.
26. 석가여래불타님께서 법계(法界)의 성품(性品)을 관(觀)하고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밝히시고 용성진종조사님께서 천하의 모든 종교를 사성(四聖) 육범(六凡), 십법계(十法界)로 회통 일체유심조를 밝힘.
27. 석가여래불타님이 죽림정사와 기원정사를 이룩하듯, 용성진종조사님은 대성초당과 대각사를 이룩하심.
28. 석가여래불타님은 말먹이 보리를 드시는 수난을 겪으시고, 공자님은 상가집 개새끼의 수난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 당하시고, 용성진종조사님은 독립동지의 배반과 상좌 제자의 배신과 국민이 창씨개명으로 돌아가는 수난을 당하심.
29. 석가여래불타님의 성상(聖像)을 우전국 대왕이 전단향나무로 조성하니 불세존님이 그 등상불을 보시고 희롱하듯, 용성진종조사님의 진영(眞影)을 동호거사가 탱화로 조성하니 용성조사님이 그 진영을 보시고 희롱하심.
30. 석가여래 불타님이 석란도(錫蘭島) 능가산(楞伽山)에서 능가경을 설하시고, 용성진종조사님이 백운산 화과원과 중국 북간도 연길 용정에 대각사 포교원과 선농당을 이룩하여 선농병행(禪農竝行)을 제창하심.
31. 석가여래불타님이 세계국토의 조직, 기원, 성립, 파괴 등의 연유와 세계창조론의 그 과정을 말씀하신 기세인본경(起世因本經)을 설하시고, 용성진종조사님은 이 우주간에 있는 삼라만상인 만유, 곧 부처님, 하느님, 사람, 지옥 등 모든 존재, 이 십법계(十法界)는 마음으로 지은 바 이기에 심조만유론(心造萬有論)을 지어 발간, 유포 하심.
32. 석가여래불타님이 인행시에 막내 왕자로써 주린 어미 호랑이에게 몸을 보시하니, 그 부왕이 애절하게 그 사리를 봉안, 그 국토를 장엄하였고, 용성진종조사님이 불타불적성지 가꾸기의 호법대왕이신 스리랑카 출신 인도 고승인 담마파라대사와 일본 고승인 후지(富士)대사로부터 불사리(佛舍利)를 받으심.
33. 석가여래불타님이 입멸하시어 다비 하시니 그 불사리(佛舍利)가 8곡4두과(八斛四斗顆)가 나오셔 인천복전(人天福田)이 되시고, 용성진종조사님이 생시에 간경차 치아사리1과(一顆)가 나오시고 입멸하시어 다비 하시니 그 승사리1과(僧舍利一顆)가 나오시다.
34. 석가여래불타님이 20여년간 기원정사에 주석하시어 4부대중 7중불자를 수도, 교화, 발원, 참회로 인도하는 모범을 보이셨고, 용성진종조사님이 도봉산 망월사에서 석가, 관음, 지장, 삼존성상을 모시고, 만일참선결사 도량(萬日參禪結社道場)을 열으시고, 장차는 신라고도 남산인 금오산중 고위산 천룡사 석가 만일 만인 동참, 참선, 염불, 간경, 주력, 불사, 불교5대 수행의 문호를 열어 호국호법의 언덕으로 삼으라 유훈하심.
35. 석가여래불타님이 바라나시 녹야원에서 야사 비구의 아버지에게 불, 법, 승 3보귀의계, 5계수계를 최초로 하시어 유연국토 중생에게 이어졌고, 용성진종조사님이 서울 서초동 우면산 대성초당(大聖草堂)에서 군수를 지낸 강영균(康永均) 거사에게 3보귀의계, 5계수계를 최초로 하시고 30여년간 3만여명에게 수계하여 마치시고 임종에 다달아 유훈하시기를 백만명이 넘도록 수계하라 부촉하심.
36. 석가여래불타님이 빈바사라 부왕을 죽이고 위데휘 모후를 옥에 가둔 패륜 아사세 대왕을 교화하셔 호법의 대왕으로 만드셨고, 용성진종조사님이 조선총독부 총독에게 범계생활 금지(犯戒生活禁止)에 대한 제1차, 제2차 지계건백서(持戒建白書)를 제출하여 교화하심.
37. 석가여래불타님이 푼나비구의 목숨을 건 불퇴전의 신심과 확고부동한 원력을 증명하시고, 오랑캐 남방 교화에 문호를 열어 주셨으며, 용성진종조사님이 매헌 윤봉길 의사의 목숨을 건 구국일념을 보시고, 상해임시정부 김 구 선생에게 보내어 구국의 문호를 열으시다.
38. 석가여래불타님은 임종에 다달았을 때 아라한, 비구, 비구니, 국왕대신, 장자, 거사, 학자, 선남자, 선여인, 4부대중, 7중불자의 존중을 받고, 용성진종조사님은 임종에 다달았을 때 제자와 상좌가 배신하고 비구, 비구니는 비방하며, 독립동지가 배반하고 국민대다수는 창씨개명(創氏改名)으로 머리를 돌리는 박대를 받음.
39. 석가여래 불타님께서 입멸(入滅) 하시면서 이렇게 유교(遺敎) 하셨습니다. 다문제일 아난다 존자가 묻기를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은 늘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을 스승님으로 보시고 살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입멸하시면 어디에 의지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누구를 스승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오리까. 부처님께서 응대하시되, 4념처(四念處)에 의지하고, 부처님이 탄생(誕生)한 룸비니원과 부처님이 성도(成道)한 보리수원과 부처님이 최초로 설법(初傳法輪)한 녹야원과 부처님이 입멸(入滅)할 사라수원을 잘 가꾸고 꽃이라도 한 줌 흩으면서 부처님의 열반을 그리워하라. 그리하면 너희들도 장차 열반의 즐거움을 얻으리라 유교하셨고, 용성진종조사님은 유훈 10사목을 부촉하셨음. 용성조사의 연보에 자세한 기록이 있으므로 생략함.
40. 불타 탄생성지 네팔 룸비니원과 가야불교초전법륜성지 창원 봉림산 봉림사에 대하여
41. 불타 성도성지 인도 보드가야 보리수원과 고구려불교초전법륜성지 중국 집안 성문사 이불란사에 대하여
42. 불타초전법륜성지 인도 바라나시 녹야원과 서울 서초동 백제불교초전법륜성지 우면산 대성사에 대하여
43. 불타 장구주석성지 인도 쉬라바스티 기원정사와 구미 선산 신라불교초전법륜성지 아도모례원에 대하여
44. 불타 입멸성지 인도 구시나가르 사라쌍수원과 호국호법도량인 경주 남산 금오산중 고위산 천룡사에 대하여

그 외 33가지 논문제목이 있습니다만, 지면 관계로 실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아래와 같은 사람을 구합니다.

①공양주(女) ②채공(女) ③사무장 겸 서사(女) ④사무장 겸 수행비서(女) ⑤사무장 겸 중국어통역관(女) ⑥사무장 겸 영어통역관(女) ⑦사무장 겸 일어통역관(女) ⑧사무장 겸 관리장(女) ⑨순수 관리장(女) ⑩순수 사무장(女)

■근무처 : 1. 세계불교성지보존회 네팔 근무, 인도 근무, 중국 근무 2. 재단법인 대각회 3. 서울 종로 대각사 4. 서울 서초동 우면산 대성사지 5. 경주 금오산중 고위산 천룡사지 6. 경주 천룡사 부산 포교원 7. 구미(선산) 아도모례원지 8. 창원 봉림사지 9. 백용성조사 생가복원 성역화사업 장수 죽림정사 대웅보전 창건 현장.

■ 직통 연락처

경주 천룡사지 원감	011-558-8815
서울 대성사지 정광	011-714-1476
백용성조사유훈실현후원회 회장	011-345-2509
경주 천룡사지 대화주	051-245-3405
경주 천룡사지 백용성조사유훈실현후원회 부회장	016-558-3138
천룡사 부산포교원 신도회 회장	019-567-46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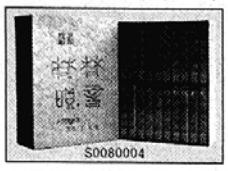
만해 기념관의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무원의 생리는 안되는 쪽도 알고, 되는 쪽도 알고 있는데 그 생각이 협조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등이 민족사관이 정립이 되어서 환희용약하여 되는 쪽으로 생각의 물결구부를 틀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불사를 계기로 하여 전 공무원 등이 민족중흥의 횃불이 되어서 안되는 쪽의 관념을 훨훨히 벗어버리고 되는 쪽으로 관념을 돌리어 온 겨레가 되는 쪽 한물결로 도도히 흘러가기를 바라며 이에 뒷받침 할 수 있는 능력있고 활동력이 왕성한 사무장을 찾습니다.

이 일에 함께 종사할 분들께 다시 부탁드립니다. 하루 하루가 힘겹고, 고달프고, 어려웁고, 알아주지 않는 생활은 복을 짓는 시간이요, 하루 하루가 힘이 덜 들고, 즐거웁고, 쉽고, 알아주는 생활은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복을 짓는 시간이 5분의 4의 생활이요, 복을 받는 시간은 5분의 1의 생활이니, 이 소식을 미리 아시고, 확고부동한 신심과 불퇴전의 원력으로 그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일 할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면서, 그 훌륭한 분을 구합니다. 국내·외적으로 백용성조사의 유훈실현을 위하여 헌신해서 촛불이 자기를 연소하여 빛을 발하듯이 향이 자기 몸을 태워서 향내를 풍기 듯이 하는 분을 구합니다. 선세로부터 금세에 이어지는 불사수행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분은 학력은 상관없으니, 사진1매를 첨부한 자필 이력서 1통으로 신청하시고 대면 상담하여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산140번지 백제불교초전법륜성지 전통사찰 우면산 대성사
주지 범망 정윤성(대성사 복원불사 상담), 대성사 거사림회 회장 월광 김용석(용성조사유훈실현 건축분야 상담), 대성사 신도회 회장 대광 유종혁(용성조사탄생성지 성역화사업 상담)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 회장 수승행 한명옥(중국, 네팔, 인도 성역화사업 상담 및 중국, 네팔, 인도 사무장 겸 통역관으로 오실 분과 사무장 관리장으로 오실분 상담), 대성사 사무장 이은정, 대성사 사무장 이종은(사무장으로 오실 분 상담)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2번지 대각사 사무장 민경제(사무장으로 오실 분 상담), 반야회 회장 원일화 김금화(신라불교초전법륜성지 모례장자 옛집 재현 불사 상담)
세계불교성지보존회 이사겸 네팔 카투만두 코네코 사장 보광 정현일(불적 5대성지 창건 건축 상담), 룸비니 개발위원회 고문 겸 네팔 총 불교 신도회 회장 녹다 산(불탄성지 네팔 룸비니원 개발상담)

세계불교성지보존회 이사겸 부설 불타조사원류 연구원 용성조사편 연구위원겸 불타성지 네팔 룸비니원 대성석가사
주지 각현 법신(룸비니원 대성 석가사에 오시는 성지순례자를 대하여 학자 논문 상담), 용성사상 기념관 건립 추진 가야산 해인사 전 주지 봉주, 가야산 해인사 주지 보광, 가야산 해인사 한주 만운
세계불교 성지보존회 부설 불타조사원류 연구원 용성조사편/ 연구고문 광복회 전 사무총장 유홍수(학자 논문 상담)/ 연구고문 부산 사하구 국민회의 지구당 고문 전태수(운영상담)/ 연구위원 한국불교통신대학 학장 전용만(학자 논문 상담)/
부산간사 한국부인회 사하지회 회장 박이자(운영상담)/ 서울간사 도서출판 "우리아이들" 전 대표이사 여법행 김 선미(학자 논문 상담)
경주 남산인 금오산중 고위산 천룡사 원감 금강업 강순자(운영상담) 화주 무량화 강금연(운영상담), 천룡사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 부회장 관음주 김희자(운영상담), 총무 법왕자 정미자(운영상담), 경주 천룡사 부산포교원 신도회 회장 정혜월 백옥순(운영상담)

문구암스님 범음·범패집



S0080004

인간문화재 문구암 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카세트 테잎 1집

· 불공의식, 삼신이운, 영산작법, 대령, 관욕의식등 분야별로 녹음되었습니다.

가격 : ₩ 50,000

1. 불공의식 2. 삼신이운 3. 신장청 · 신중권공 4. 상단청
5. 상단권공 · 거욕 6. 대령 · 관욕의식 I 7. 대령 · 관욕의식 II
8. 대령 · 관욕의식 III 9. 영반 · 복청소리 · 대천수소리
10. 영산작법 I 11. 영산작법 II 12. 영산작법 III
13. 영산작법 IV · 지장청사 I 14. 지장청사 II · 지장권공 I
15. 지장권공 II 16. 전시식 17. 배송 18. 운심게
19. 법시이운 · 영전점안 20. 증성 · 천수작법 · 요잡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자신에 맞는 체질 처방으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얻는다.



S0090012

저자
· 경희대 한방병원 원장 송일병 교수
· 경희대 물리요법과 신현대 교수
· 경희대 사상의학회 회장 고병희 교수
· 상지대 체질의학과 정달래 교수

가격 ₩ 70,000 (가방 포함)

제1부 나는 어떤 체질일까?
· 체질이란 무엇인가?
· 왜 체질을 알아야 하는가?
· 일반인도 체질의학을 활용할 수 있는가?
· 사상의학이란?
· 체질 감별법
· 자신의 외모,심성,병증으로 체질 진단
· 체질별 특징

제2부 체질처방 건강 장수법
· 체질에 맞는 섭생이란?
· 체질에 맞는 보약과 운동은?
· 체중조절에 도움이 되는 보약
· 체중감량에 좋은 운동
· 체질에 맞는 육류,곡류,채소, 과일,해물,차 등
· 건강 장수 비결

제3부 체질처방 다이어트
제4부 자연처방 식이요법

대나무 잔



S0090002

완전 자연산 대나무로 가공한 제품 .대나무 한 마디를 가공 하므로 크기(지름)는 일정치 않으며 차와 대나무 향이 어우러진 차 맛이 일품 입니다.

크기 : 9(세로).5~7(지름)㎝ 가격 : 낱개 ₩ 8,000

법성게 걸망



S0010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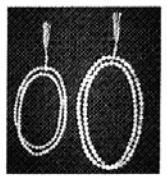
S0010011

S0010010

크기 500×460 (㎜)
색상 : 회색, 밤색, 진베이지색

가격 : ₩ 15,000

건강 옥 염주



옥을 지니고 있으면 여러 질병을 예방해 준다고 하였다. 이미 알려진 사실로서 몸에 지니면 기를 발산하여 고혈압,두통,소화불량,신경통 등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며 보석에 버금가는 대단한 아름다움을 겸비하고 있다.

종 류 청옥 · 백옥염주(小) ₩ 30,000 청옥 · 백옥염주(大) ₩ 40,000

수월관음좌상

여래의 경지에 들지않고 중생제도에 원을세운 관음보살을 항상 염송하고 의지하며 공경하면 고난과 불행이 사라지고 해탈을 얻게된다. (본좌상은 수월관음 좌상으로써 연꽃위에 앉이계시며 물에 비친 달은 관하고 계시는 모습이다.)



S0020006

크기 260×300(㎜)
종류 수월관음좌상(금색) 가격 : ₩ 99,000

S0020005

크기 260×300(㎜)
수월관음좌상(채색)

가격 : ₩ 120,000

거산죽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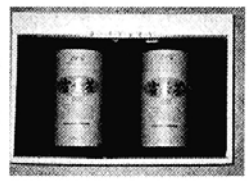
선조들의 비전 비방



S0090013

죽염은 우리 선조들이 애용한 健康鹽(건강염)제조 비방에서 전래된것으로 생명유지의 필수 불가결한 鹽性(염성)을 강화시켜 주고 인체내에 부족하기 쉬운 각종 천연미네랄이 풍부하게 구비되어 있는 신비의 건강 염입니다.

원산지 : 국산 가격 ₩ 3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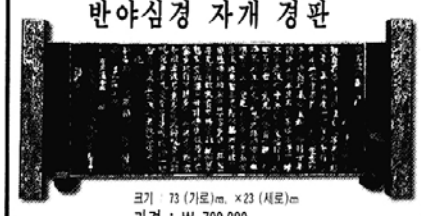
(지리산 야생 수제녹차)

작설차

지리산 화개동 청정지역의 맑은 이슬을 머금고 자란 이생 찻잎을 정성껏 채취하여 수천년동안 이어온 전통 제다법 그대로 빚어낸 최고급 수제(手製) 녹차입니다.

우전 : ₩ 80,000 중작 : ₩ 60,000 (2통 1세트)
세작 : ₩ 45,000 대작 : ₩ 40,000 (2통 1세트)

반야심경 자개 경판



크기 73 (가로)㎝, ×23 (세로)㎝
가격 : ₩ 700,000

선화로 가는길 四君子



"사군자"를 통하여 선화의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는다.
국내 최초의 사군자 기법의 체계화. 단순화 기법의 안내서가 아닌 배우는 분의 창의력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주는 동반자격인 책.

가격 : 최고급 양장
₩ 120,000 (부록포함)
타블로이드 판 / 253쪽

묘법연화경 (전7권)



S0100004

가격 : ₩ 140,000 (복장용)

묘법연화경 책자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수 있는 포켓용 경전 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경우 원하는 문구를 책 뒤에 넣어 드립니다.



S0100001

크기 45 (가로)㎝, 62 (세로)㎝, 547책

가격 : ₩ 4,0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한국 전통 미술의 백미를 현대 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미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골동품형 S0020001 개금형 S0020003 브론즈코팅형 S0020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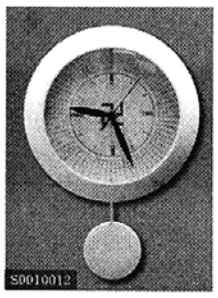
가격 (코팅형, 골동품형) ₩ 350,000
(개금) ₩ 580,000

•재질 100% 청동
•종류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크기 40.5 ㎝

http://mall.buddhapia.co.kr

육바라밀 벽시계

항상 보는 시계에서 정진의 힘을 얻는다!



S0010012

부처님의 말씀 육바라밀과 보왕삼매론을 시계에 접목시켜 디지인하였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기정에 두시고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수 있는 기회가 되실것입니다

· 육바라밀 : 생사의 고해를 건너 이상경인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실천 수행법인 육바라밀(六波羅蜜)은 보시(布施) · 지계(持戒) · 인욕(忍辱) · 정진(精進) · 선정(禪定) · 반야(般若)라고 하는 여섯 가지 실천덕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50개이상 주문시 원하는 경간문구 삽입 및 디자인 해드립니다.

색상 백색원판에 4도칼라
크기 200×260×60㎜
원판내용 육바라밀 보왕삼매론

가격 ₩ 15,000

강력한 신소재 전자파 제거장치

인체의 뇌파는 미세한 마이크로 웨이브 이지만 핸드폰은 900메가헤르츠의 전자파를 발신하여 뇌중앙 유산등의 병을 유발합니다. 본 제품을 붙이기만 하면 안심! 핸드폰을 들고, 붙이기 전에 오링테스트 해 보고 붙이고 나서 오링테스트 해 보시면 깜짝놀랄 정도로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S0090004



S0090005



S0090006

강력한 커릴리안(KIRILIAN)이 유해전자파를 흡수 용해합니다.

모든 전자기기의 성능이 좋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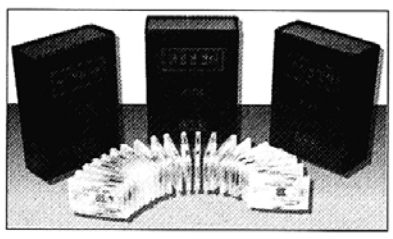
용도 휴대폰, 헤어드라이기,컴퓨터, 전기면도기, 진공청소기, TV 믹서 등과 수액파

규격 2개 1세트

S0090007

가 격 : ₩ 9,000

무비스님 특강 녹음테잎



무비스님의 경전강의를 접해 보셨습니까?
바쁜일상 생활이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넘수 없다면 혼침한 마음을 조용히 하고 꼭 들어 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 주는 감로수 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금강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 지장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 진심직설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앞치마

연꽃을 이용하여 디자인한 실용 앞치마

원안 내부그림 S0090008

S0090009 내부그림

• 색상 : 자주색 • 재질 : T/C (면 혼합) (100장 이상 주문시 원하는 인쇄 가능)

가격 ₩ 5,000



서옹 큰스님 불(佛)자 액자

서옹 큰스님의 불(佛)자를 궁예작가 범오선생이 동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소장하시면 큰스님의 맑은 기운을 느낄실 수 있습니다

재질 : 동
특징 : 수공제 작품
규격 : 39㎝×43㎝

S0030004

가격 : ₩ 50,000



"7년 묵은 병에 3년 묵은 쑥을 먹어라"

(중국 철학자 맹자)
-해종래 3년 말린 사자발 약쑥 액기스-

• 피부미용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으며, 술 담배 많이하는 남성은 더욱 좋습니다.
• 팩으로 쑥팅의 느낌을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기술제휴 한의학 박사 한택현(韓醫學博士韓澤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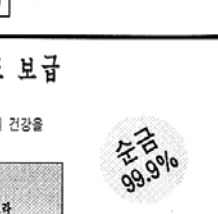
가격 : ₩ 50,000 (100g×60개입) S0090011

홍삼

구정 선물용

세계적으로 그 효능을 인정받는 우리의 홍삼

진귀한 홍삼의 효용성에 각종 한방원료를 농축하여 만든 홍삼 대보정은 현대인의 건강에 활력을 드릴수 있는 홍삼 농축 액기스 제품입니다.
· 원산지 국내산
· 중 량 80ml/50포입
· 제조원 개성인삼협동조합



가 격 : ₩ 98,000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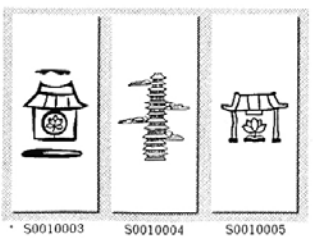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이 32가지 모습으로 나투시어 지비로 중생의 재난을 구제하고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절대신앙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이 널리 독송되는 다음과 같은 까닭이 있는데, 이 경전을 외우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일곱 가지 모진 재난을 피하고, 탐, 진, 치의 삼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소원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관세음보살은 32가지의 모습으로 화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색상 : 진녹, 검정
바탕색에 금색 인쇄
크기 : 55㎝(가로) 140㎝(세로)
재질 : 후로킹
특징 : 변색이 없음

S0030001 검정
S0030002 녹색

가격
₩ 30,000
(족자걸이 포함)



S0010003 S0010004 S0010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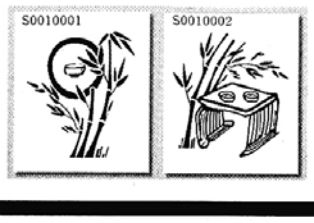
기도포

다양한 불교적인 문양과 그림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기도하실때 힌결 더 부처님과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대(大)
기장 84㎝ 폭 39㎝

가격 ₩ 1,600

※ 원하시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100장 이상 주문시)



S0010001 S0010002

다포

기장 50㎝ 폭 39㎝
재질 면

가격 ₩ 800

• 원하시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100장 이상 주문시)



S0010006

반야심경 종 차걸이

앞은 중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제품입니다 (종에 반야심경 인쇄)

가격 (낱개 ₩ 9,000) ※ 금색등

단주 열쇠고리



S0010020(검정 등)
S0010021(밤색 등)
S0010022(투명 등)
종 류 검정, 밤색, 투명
가격 : 낱개 ₩ 3,000

반야심경 향로



청동제품으로 향로 주위에 반야심경 경전 문구 인쇄

가격 : ₩ 25,000

S0010007

한국불교의 현황을 집대성한 1998년 판



S0100002

1) 한국불교의 현황 : 최근의 한국불교계 흐름을 약술
2) 종단 불교종단 50여곳의 현황을 수록.
3) 법인 불교관련 법인 150여곳의 현황을 수록.
4) 불교단체 / 기관 불교단체 및 기관 4,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5) 불교관련업체 불교관련 업체 1,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6) 사찰 국내외 사찰, 포교당 13,000여곳의 목록을 수록.
7) 인명 승가 및 재가불자 여명의 개인 인명자료를 수록.
8) 불교문화재 초판 이후 추가 지정된 200여건의 불교관련 문화재 목록을 수록.
9) 불교도서논문 초판 이후 추가 간행된 3,200여건의 불교관련 단행본 및 박사학위논문 목록을 수록.
10) 한국불교연표 초판 이후 한국불교 관련 사건을 수록.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가격 ₩ 120,000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S0090001

• 독특한 향+부드러운 촉감 +미용과 면역기능
• 피부미용에서 이백호과는 물론 자연면역기능까지
• 한방 재료 추출물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99.9% 천연 소재 사용

•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증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탄력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 강원대학교 축산가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현
세연비누는 이중필수물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Mall buddhapia 불.부다피아

찾아오시는 곳
http://mall.buddhapia.co.kr

인터넷 불교 백화점 부다피아 쇼핑몰이 새로운모습으로
99년 1월 6일 개점 했습니다.
싸고 다양한 불교 용품과 더불어 각종 정보란, 천불전 사이트 법당등 쇼핑을 하시면서 볼 수 있는 볼거리도 제공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십시오.
문의전화 : 02)732-1522 / 02)737-8881

五福臨門 猛虎圖(오복림문 맹호도)



S0090010

산죽 푸르른 산중에
맹호 노하여 위풍 떨치니
뭇새들 놀라 흩어지고
여러 짐승들도 달아난다
산비탈 치달리는 맹호앞에
찬바람 휘몰아 치니
여러 짐승들은 두려움에 떤다
사방의 산야는
싸늘히 푸르르고
해질녘 찬바람은
댓닢은 흔날리는데
어지러운 세파에 맹호의
웅대한 기상은
천만리에 위풍을 떨친다
많은 사람을 진동한다지만
맹호는 구름과 같이 어울린다
호풍이 한번 힘차게 불 때
친하의 사악한 우리들은
모두 놀라 쥐 구멍을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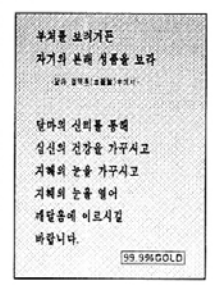
옹 도 액자옵크 기 92㎝ × 61㎝ 가 격 : ₩ 6,000

화엄큰스님의 祖師西來意 달마도 보급

(순금 페스포트로 만들었습니다)

화엄큰스님 달마도를 항상 가까이 두고 공부한 덕으로 심신의 건강을 기꾸시고 지혜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부처를 보려거든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라

달마의 신비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가꾸시고
지혜의 눈을 가꾸시고
지혜의 눈을 열어
재탄올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99.99%GOLD

순금 99.9%

S0090003

•특 징
순금을 최대한 얇게 펼아 주머니속 지갑속에 넣어다 닐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재 질 순금99.9%
•크 기 5.2㎝ × 7㎝

가 격 : ₩ 20,000

재봉틀 박사

IMF시대
간편하게 집에서 옷 등을 수선할 수 있는 재봉틀

재품규격
• 정격전압 220V/60Hz
• 규 격 23.5㎝(가로) ×13.5㎝(세로) ×16.5㎝(세로)
• 소비전력 10W
• 보증기간 구입일로 부터 12개월

가 격 : ₩ 39,000



경전카드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원력이 항시 지켜드릴 것입니다.
각 사찰이나 단체에 맞는 별도의 도안과 글씨도 가능 합니다

순금 99.9%

가격 : ₩ 15,000



S0090014



S0090019

http://mall.buddhapia.co.kr

불교유치원에 오세요

비용 적고 불심 키워…예절·명상교육도

IMF 한파로 줄어든 가계소득에다 치솟은 물가로 미취학 아이들을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는 것도 살림살이에 주름이 커진다. 이럴 때 사찰이나 교계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을 이용하는 것도 절약하는 한 방법이다.

교계 어린이집·유치원은 일반 어린이집·유치원과 보다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스님들에게서 사찰예절, 다도(茶道), 명상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천시 서구 부루나유치원(원장 선일스님)은 5~7세 아동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포함한 다도와 참선공부를 시키고, 야외학습과 캠프도 사찰에서 실시한다. 선일스님은 "다도를 가르치다보면 전문용어가 어려운데도 아이들은 의외로 재미있게 기억하고 가족들까지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했다.

남강스님(법안사 주지)는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일반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수업료 절반 수준"이라며 "교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가계살림의 부담을 줄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전통예절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말했다. 교계에서 유치원은 2월까지, 어린이집은 수시 모집한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불교 유치원·어린이집

유치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유치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유치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금강유치원	강원 강릉	(0391-42-7776	상아유치원	대구 남구	(053-472-0670	본심어린이집	서울 성북구	02-912-2546
법주유치원	강원 속초	(0392-33-0625	물바나유치원	대구 남구	(053-621-1003	월곡어린이집	서울 성북구	02-912-3633
보광유치원	강원 양양	(0396-671-4167	신인유치원	대구 남구	(053-625-6627	탑주유치원	서울 성북구	02-913-5548
성덕유치원	강원 영월	(0371-42-6974	보리수유치원	대구 남구	(053-653-3666	정릉어린이집	서울 성북구	02-920-3490~2
보현유치원	강원 원주	(0371-45-8500	안일사유치원	대구 남구	(053-655-0222	안산어린이집	서울 성북구	02-923-5046
성불유치원	강원 원주	(0371-762-1729	보인유치원	대구 달서	(053-627-9452	돈암유치원	서울 성북구	02-926-9278
평화유치원	강원 정선	(0398-591-2383	동해유치원	대구 달서	(053-632-5760	석관제일어린이집	서울 성북구	02-960-3385
보현유치원	강원 철원	(0396-62-8266	청소어린이집	대구 수서	(053-753-2561	여래유치원	서울 성북구	02-403-1261
파계연꽃어린이집	강원 춘천	(0361-262-2297	경전유치원	대구 북구	(053-952-0867	불광유치원	서울 은평구	02-422-1311
석왕사봉로유치원	강원 춘천	(0361-55-5040	신악유치원	대구 서구	(053-557-3394	불광유치원	서울 은평구	02-422-1311
신동유치원	강원 춘천	(0361-57-6231	청수어린이집	대구 수성	(053-741-2562	여래유치원	서울 은평구	02-431-6333
연화유치원	강원 평창	(0374-32-2303	금강유치원	대구 수성	(053-752-1887	수유3동어린이집	서울 강북구	02-994-5531
미승유치원	강원 홍천	(0366-33-1712	시경유치원	대구 수성	(053-754-4088	조은어린이집	서울 종로구	02-763-7800
불비나유치원	강원 횡성	(0372-43-3007	원만사유치원	대구 중구	(053-253-3373	신내동어린이집	서울 중랑구	02-432-0880
연꽃유치원	경기 고양	(0344-61-4365	자비유치원	대전 동구	042-282-5918	신당어린이집	서울 중구	02-233-9478
불비나유치원	경기 광명	(02-614-6046	금강유치원	대전 동구	042-634-2566	신당3동어린이집	서울 중구	02-232-5156
정이어린이집	경기 광명	(02-619-9452	등불유치원	대전 서구	042-527-1483	해나리어린이집	서울 양천구	02-607-0063
대광정사유치원	경기 광명	(02-893-2700	은아유치원	대전 서구	042-541-3046	쌍문3동어린이집	서울 도봉구	02-990-3261
불비나유치원	경기 구리	(0346-69-0606	신덕어린이집	대전 서구	042-254-9327	신월어린이집	서울 양천구	02-670-0053
청정유치원	경기 김포	(0341-987-5844	보리수유치원	대전 서구	042-254-6686	파란색어린이집	서울 양천구	02-690-4011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346-68-1950	보광사유치원	대전 중구	051-973-7158	구인회관어린이집	서울 영등포구	02-678-5685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351-867-1569	광명사유치원	대전 중구	051-512-4112	연화유치원	서울 영등포구	02-813-9565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32-333-0577	옥련선원유치원	대전 중구	051-754-2223	전농3동어린이집	서울 동대문구	02-846-2830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32-652-0058	영주암유치원	부산 금정구	051-754-6120	미아3어린이집	서울 강북구	02-944-1177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32-667-7878	금련사유치원	부산 남구	051-757-1505	정릉어린이집	서울 성북구	02-920-3490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342-702-5072	소림사유치원	부산 동구	051-464-7975	장일어린이집	서울 성북구	02-363-3358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342-704-6202	금강유치원	부산 동구	051-644-1888	송신어린이집	서울 성북구	02-3672-5917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342-752-4405	법륜유치원	부산 동래	051-553-7774	청보석어린이집	서울 종로구	02-732-1424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333-64-2261	관음어린이집	부산 수영구	051-754-2210	옥인어린이집	서울 종로구	02-732-3070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331-225-1020	연꽃어린이집	부산 진구	051-802-1440	종로어동화관	서울 종로구	02-735-6038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331-43-0130	내원정사유치원	부산 서구	051-244-0690	청보석유치원	서울 종로구	02-736-7981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343-22-4083	정광유치원	부산 진구	051-809-6886	청룡유치원	서울 종로구	02-742-7782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343-25-6616	소림사어린이집	부산 진구	051-464-7975	조은어린이집	서울 중구	02-763-7800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343-53-2639	불영어린이집	부산 해운대	051-647-2298	쌍봉어린이집	서울 중구	02-435-4900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343-82-8160	운봉사유치원	부산 해운대	051-521-9393	신당3어린이집	서울 중구	02-232-5156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356-32-2703	경륜사유치원	부산 해운대	051-742-4422	신당어린이집	서울 중구	02-233-9478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335-32-0528	송정유치원	부산 해운대	051-743-7667	신내동어린이집	서울 중랑구	02-432-0880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351-846-3037	남명어린이집	서울 강남구	02-752-7223	나나유치원	서울 강북구	02-496-2831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351-846-7691	선재어린이집	서울 강남구	02-561-3421~2	인덕어린이집	서울 강북구	02-385-8181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351-873-5712	삼덕어린이집	서울 강남구	02-989-0259	참일어린이집	서울 강북구	02-763-3358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351-876-1223	구암어린이집	서울 강남구	02-883-6647	나산어린이집	서울 강북구	02-765-1368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336-635-3711	중곡생불어린이집	서울 광진구	02-435-4900	홍제3동어린이집	서울 서대문구	02-734-6378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525-33-4477	자광어린이집	서울 광진구	02-452-0748	흑석어린이집	서울 동작구	02-813-9588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551-42-0108	영화유치원	서울 광진구	02-453-5149	피랑세어린이집	서울 양천구	02-690-4011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561-46-6366	현정유치원	서울 구로구	02-455-8709	가좌3동어린이집	인천 서구	032-576-9741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623-386-9507	길음1동어린이집	서울 성북구	02-917-9745	여래유치원	인천 남구	032-433-1719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623-386-9388	노량진5동어린이집	서울 동작구	02-821-4756	보명유치원	인천 남구	032-816-2508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623-82-6474	동화불교유치원	서울 관악구	02-931-0219	영산유치원	인천 남구	032-864-8518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522-211-0003	학림유치원	서울 관악구	02-932-1412	홍법유치원	인천 부평구	032-516-9771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622-36-2626	상계3동어린이집	서울 노원구	02-936-5010	부루나유치원	인천 서구	032-577-5123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622-75-8593	세성유치원	서울 노원구	02-937-0604~5	보현유치원	인천 남구	0631-76-0396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622-34-4716	세성유치원	서울 노원구	02-937-0604	대승유치원	전남 순천	0661-744-4902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622-64-4497	성수어린이집	서울 노원구	02-463-4959	연꽃어린이집	전남 여천	0662-84-6928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691-761-5830	선재어린이집	서울 노원구	02-561-3421	불광유치원	전남 장흥군	0665-63-7547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691-42-4852	보람어린이집	서울 노원구	02-563-9511	반야유치원	전남 나주	0654-42-0954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691-757-6699	도선어린이집	서울 노원구	02-954-4311	연꽃유치원	전남 이리	0671-625-2946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653-42-0366	쌍문3동어린이집	서울 도봉구	02-990-3261	관행유치원	전북 전주	0663-52-6270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653-42-2967	전농3동어린이집	서울 동대문구	02-244-8703	보문유치원	전북 전주	0652-84-6603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653-43-0366	성북어린이집	서울 성북구	02-742-1097	연꽃유치원	전북 전주	0652-86-4520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561-62-6663	사동어린이집	서울 성북구	02-533-7155	관음선원유치원	전북 전주	0652-86-5420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551-81-2002	흑석3어린이집	서울 동작구	02-813-9698	법인사유치원	전북 정읍	0681-537-0503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557-645-8491	길고개어린이집	서울 서대문구	02-815-6880	연꽃유치원	제주 제주	064-87-3492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661-772-8670	연꽃어린이집	서울 서대문구	02-823-3200	불비나유치원	제주 제주	094-94-0098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543-954-0525	현정어린이집	서울 서대문구	02-823-3412	금강유치원	제주 제주	064-42-5024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546-458-5255	마장어린이집	서울 성동구	02-293-9394	연화유치원	제주 제주	064-22-4821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546-462-8622	금붕어어린이집	서울 성동구	02-401-1774	원명유치원	제주 제주	064-55-3323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546-52-5026	성미어린이집	서울 성동구	02-3141-2833	국청사어린이집	제주 제주	064-55-6522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546-53-6634	영롱시냇마을유치원	서울 서초구	02-324-5131	원효유치원	제주 서귀포	0416-55-0444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547-434-4656	참전유아원	서울 서초구	02-396-0216	불비나유치원	제주 서귀포	0416-56-6709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682-32-1184	진선미유치원	서울 서초구	02-714-1468	연꽃유치원	제주 서귀포	0461-741-9056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562-76-2479	명성어린이집	서울 서초구	02-207-7751	수미어린이집	서울 강북구	0457-363-6008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572-34-1138	미아3동어린이집	서울 강북구	02-985-5880	비로자나유치원	서울 강남구	0463-835-0038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672-636-8016	구암어린이집	서울 강남구	02-00883-6647	서광유치원	서울 강남구	0455-666-1510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672-33-1138	상계3동어린이집	서울 노원구	02-936-5010	룸비니유치원	서울 강남구	0418-545-3050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566-791-2040	불광유치원	서울 은평구	02-931-0219	성림유치원	서울 강남구	0433-43-3756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581-53-5355	현정어린이집	서울 은평구	02-823-3412	불비유치원	서울 강남구	0475-33-4348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562-41-2179	연꽃어린이집	서울 은평구	02-823-3200~2	법화유치원	서울 강남구	0443-42-4896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562-46-1383	보살심어린이집	서울 서대문구	912-2546	정업유치원	서울 강남구	0443-43-2413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562-72-6700	불비나유치원	서울 서초구	02-352-9273	법인유치원	서울 강남구	0431-31-0598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62-223-1009	홍제2동어린이집	서울 서초구	02-734-6378	반야정사유치원	서울 강남구	0431-63-8300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62-225-2770	장미어린이집	서울 서초구	02-4374-6333	홍화사유치원	서울 강남구	0431-64-7692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62-227-0173	반포어린이집	서울 서초구	02-512-1825	성미유치원	서울 강남구	0431-64-9131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62-238-7474	구룡사유치원	서울 서초구	02-577-1966	대원유치원	서울 강남구	0441-43-7827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62-261-1735	보리유치원	서울 성북구	02-446-9777	우암유치원	서울 강남구	0441-44-9922
불비나유치원	경기 남양주	(062-671-4571	성북어린이집	서울 성북구	02-742-1097			

"생명의 신비 性 새롭게 배웠어요"

청교련 인천지부 첫 '성문화캠프'

매매춘 근절 서명운동도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9%를 차지하는 청소년. 이들의 성(性)을 보호하기 위해 교계 한 청소년단체가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성'에 대한 교계의 타부(禁忌)를 깨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문화'를 다지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는 바로 청소년교육연합회(이하 청교련)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

청교련 인천지부는 구랍 28~30일 경기도 가평 약속의섬에서 교계 청소년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1회 성문화캠프 '아우성-청소년과 함께나누는 성(性) 이야기'를 개최했다.

'나의 근원, 생명의 신비, 몸과 마음 움직임의 주인을 찾아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서 인천지역 중·고교생 70여명은 △예비부모교육 △위빠사나 △생명의 신비를 찾아서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 △모의법정 등 성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들은 청소년이 순간의 충동과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개발됐다.

청소년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프로그램은 10대 청소년의 매매춘을 다룬 '모의법정'. 모의법정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매매춘의 근본적인 요인으로 '충동적인 소비욕구'을 꼽았다.

신용섭군(16·인천 용현중 3년)은 "모의법정은 동갑내기 친구들과 숨김없이 성(性)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주고 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라며 "성(性)은 쾌락에 앞서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을 새롭게 배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조한천국회의원(청소년보호위원회)이 참석, 청소년들이 성적 호기심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강연해 큰 호응을 얻었다. 조의원은 "청소년이 충동적 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미성년자 부모가 되고, 자신이 충실한 부모가 될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해 또다른 일탈행위를 저지른다"고 지적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 30여명은 구랍 30일 인천 거북시장에서 피켓과 전단을 배포하며 10대청소년 매매춘 근절을 위한 서명운동도 펼쳤다.

오종욱 기자



◇청소년들이 진행하는 모의법정. '청소년 매매춘'을 다룬 이 법정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표정이 제법 진지하다.

명사들의 건강비결 ①



서 돈 각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매일아침 예불·108배 정진 웃음 잃지않고 과욕 안부려

신행을 생활속에서 실천하여 재가불자들의 모범이 되는 서돈각이사장(79세, 대한불교진흥원). 서이사장은 항상 온화한 웃음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선지 7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과 검버섯하나 없는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서돈각이사장의 건강비결은 불교신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매일아침 5시에 일어나 집안에 모신 불단 앞에서 아침예불과 1백8배 정진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정진은 젊은시절부터 지금껏 거르지 않고 있다.

서이사장은 "108배 정진이 마음을 맑히는 정신수행과 무릎관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런 뒤 집주위에서 간단히 조깅을 하고 출근길에 나선다.

이런 건강을 바탕으로 서이사장의 활동력은 젊은사람 못지않다. 과산 다보수련원에서 50여차례나 열리는 신행단체들의 연수교육에 꼭 참석하여 격려사를 아끼지 않는다. 과산을 오가며 주위에 절들을 참배하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사찰에 가면 각 당우에 들러 참배를 하고 1백8배정진하는 것을 빼놓지 않는다.

"이렇게 사찰을 참배하며 맑은 공기를 쐬고 솔바람소리 듣는 생활이 자연스럽게 운동하게 하고, 과욕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켜주는 해주는 비결이 아니겠느냐"고 서이사장은 말한다.

또 서이사장은 서울대 교수 재직시절 법과대 불교학생회 지도교수로 신입생이 들어오면 먼저 1백8배 시범을 보여줘 후학들을 저절로 감화시키는 교수로 유명했다. 그러다 일요일 아침이면 서이사장집 2층 다락방에서 열린 참선모임에서 대불련 조직이 태동하는 시원이 됐다.

서이사장은 현재도 교계 신문을 모두 정독하고 불서도 빼놓지 않고 읽고 있다. 이런 서이사장의 건강에 대해 진흥원 최응호부장은 "신행에서 다져진 흐트러짐없는 정신자세와 웃음을 잃지 않는 온화함 그리고 근검절약의 절제된 생활에서 우러나온 것이다"고 전했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에서 마련한 제26차 연수회에는 어린이지도자 318명이 참여했다.

새싹불자 지도자 318명 연수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철오스님)는 3일 제26차 전국 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노력하자, 준비하자, 드높은 세계로'라는 주제로 충북 보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열린 이번 연수회에는 전국에서 3백18명의 어린이지도자들이 참여했다.

어린이지도자들에게 '현대사회에서의 불교지도자들의 역할'을 강연했던 박광서교수(서강대)는 "법회지도를 위한 단순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것보다는 어린이지도자들이 21세기 새싹포교의 주역임을 스스로 깨닫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이번 연수회를 평가했다.

청소년 단신

청소년봉사단원 모집 법동종합복지관

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안스님)은 18일부터 2월 13일까지 제4기 청소년자원봉사단 단원을 모집한다. 관내 중·고등학생 60여명으로 조직되는 봉사단에서는 시설견학, 자원봉사, 체험활동, 심성훈련, 캠페인 등이 실시된다. 발대식은 2월 20일(중학생), 2월 27일(고등학생) 각각 열리며, 선착순 모집.

(053)633-1141

결식아동 무료급식 제천장애인복지관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진효스님)은 겨울방학을 맞아 △결식아동 무료급식 △장애아동 눈썰매캠프를 각각 실시한다. 결식아동 무료급식은 월요일~금요일 12시~1시 매주 5회 복지관 2층에서 실시한다. 장애아동 눈썰매캠프는 1월 22일 치악산 드림랜드에서 개최된다. 참가비 무료. (0443)652-0990

실직자·노인 무료투약 서울불교청년회

서울불교청년회(이하 서불청)는 10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오전 10시~오후 4시 IMF 실직자와 불우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검진, 투약, 상담 등을 실시한다. 서불청은 무료투약 봉사를 올 한해 동안 탑골공원에서 매월 둘째주 일요일마다 실시할 방침이다. 또 17일 소쩍새마을 자원봉사도 마련했다. 이번 자원봉사에는 중·고교생 및 일반일들도 참여할 수 있다.

(02)733-6018

실의와 희망을 가슴에 담은 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질서를 지키는 마음이다란 생각이 가슴에 둥지를 틀고 자리잡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이 되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벼랑에서 있는 상태에서 큰 용기를 내어 도움을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사정 내용을 들어 보신 후 2억원을 〈일시불이 아니어도 됨〉 지원해 주시면 향후 10년동안 무보수(도덕적으로 나쁘지 않은 일) 불철주야, 분골쇄신 어떠한 일, 어떤 곳(외국도 가능)에서도 최고의 능력을 성실히 발휘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이 있으면 최선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기에 그돈을 차용해 주실분이 계시면 1년후 상환 해 드리고 매월 이자분(협의)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연 락 처 012-599-6633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光彩'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韓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 그림, 韓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특 전
전수중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한국불교선묵가협회 초대작가로 추천함.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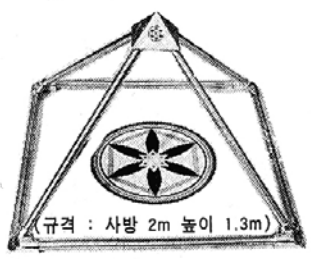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2242-0255
(아)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신비한 우주 에너지(빛) 발생장치, 명상용 ®
수정 피라밋 히란야!



재질순동 천연수정, 히란야 10개 부착, 대형코팅 히란야 및 고급 기에너지 발생 테이프 증정~!

* 피라밋 히란야 「의료용 '氣' 발생기구」: 특허청 의장 특허등록 NO. 204454, 223495, 227171, 227172, 227173

◆ 피라밋과 히란야 사용시 원인불명의 두통, 불면증이 해소되고 치매예방 및 호전이 가능하고 체질이 급격히 개선된다.
◆ 깨달음과 영적각성 및 차크라 개발을 촉진시키는 고차원의 빛 에너지가 대량 생성된다.
◆ 인체에 유해한 수맥을 차단하며 컴퓨터, TV등 전자제품의 인체 유해전자파를 중화·소멸시킨다.

우주문명과 피라밋 히란야
문덕 출판사

한국 피라밋 히란야 체질개선 연구회
부 설 문덕출판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305-1 보라B/D 303호
TEL. 792-0960, 0966

기적의 순수한방 재생 크림
화이트닝크림이
불자여성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1 기미·주근깨로 고민하시는 분
2 얼굴의 잡티, 또는 여드름 자국으로 고민하시는 분
3 모공이 넓고, 피부가 늘어져서 고민하시는 분
4 눈가의 잔주름, 검은 얼굴로 고민하시는 분

※ 피부가 맑아지면 관상도 변합니다. ※

사용후 3~4일만에 시작되는 피부 재생과정을 거친후 20일이면 아기 속살같은 맑고 깨끗하고, 탱탱한 피부로 되살아납니다



하루저녁 한번으로 젊음을 찾으세요.
젊은 피부 밝은 얼굴 화이트닝크림이 책임집니다.

· 효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체 · 험 · 사 · 례

저는 41세된 주부이면서 직장 여성입니다.
아이를 낳고 산후 조리를 잘못해서인지 기미가 짙어지면서, 잡티가 많이 생겨 늘 화장을 두껍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이 되면서, 피부가 늘어지고, 잔주름이 많아지면서 여러가지 좋다는 방법을 다했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서 늘 고민이었는데, 어느날 화이트닝크림 바르신 분의 좋아진 피부를 보고 저도 구입하여 바르게 되었습니다.
바른지 11일째쯤 피부가 깨끗해짐을 느꼈고, 20일이 지나고 부터는 기미가 거의 엷어지고, 피부가 하얘지고 맑고, 투명해지는 것을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는 사람마다 5년은 더 젊어 보인다고들 합니다.
저희 남편도 요즘은 화장안한 모습이 예쁘다고 합니다. 지금은 화장도 쉽게하고, 또 피부가 좋아지니 모든 일에 의욕도 생기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런 좋은 크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호엄마)

서울시 광진구 중곡2동 132-10 무궁화B/D 4층
(주) 한 국 원 동
☎.3437-8282

법회안내



범하스님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15일 오전 10시, 오후 1시 30분 통도사 화엄산림법회 〈입법계품〉. (0523)382-7182



정여스님 (보현선원 주지) 매월 음력 3일 오전 10시 초삼일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중고등학생법회, 매주 목요일 7시 30분 청년회 법회, 매월 둘째, 네째 월요일 8시 거사림법회. 매주 화요일~금요일 오전 10시 기초교리, 참선강의, 금강경, 천수경 강좌. (051)853-5486



덕수스님 (부산 삼광사 주지) 매월 1일, 10일 오후 8시 청년회법회. 매월 둘째주 금요일 오후 6시 교사불자법회. 매월 둘째, 네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학생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 천태어린이법회. (051)808-7111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1월13일 (수)

■**티벳불교의 명상 수행법 강좌**=대한불교진흥원은 오후 2시 제93회 다보문화강좌로 티벳불교의 명상수행법을 진행한다. 인도델리대 주민황박사가 강연한다. (02)703-0108

■**〈반야심경강의〉 경전강독**=대구경실련불교시민회(회장 강인성)는 오후 7시 흥사단 2층에서 〈반야심경강의〉 경전강독을 갖는다. (053)353-1597

■**심우회 대부도 둥지마을 자원봉사**=군불교후원자원봉사단체인 심우회(회장 김명원)는 대부도 둥지마을로 자원봉사활동을 떠난다. (011)744-2539

1월15일 (금)

■**호국원광사 신중단 증축점안법회**=호국 원광사(주지 법사 이혈우)는 오전 10시 30분 대법당에서 신중단 증축점안회향법회를 봉행한다. (02)796-0230

■**불국사 중고등부 겨울수련학교**=불국사는 심검당에서 17일까지 2박3일간 중고등부 겨울수련학교를 연다. (0562)746-1472

1월16일 (토)

■**선학원 시민선방 철야참선법회**=선학원 중앙선원 시민선방은 참선수행에 관심있는 직장인들을 위해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8시~다음날 새벽 4시까지 철야참선정진법회를 갖는다. 중앙선원 원장 성해스님이 직접 지도한다. (02)732-3327

■**옥과 관음사 철야법회**=용진신행회는 오전 7시 한가지 소원이 이뤄진다는 전남 곡성 옥과 관음사로 철야법회를 떠난다. (02)279-1191

■**능인선원 중고등부 예술제**=오후 2시 능인선원 법당에서 중고등부 예술제가 열린다. (02)577-5800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겨울수련법회**=백양사에서 18일까지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 겨울수련법회가 열린다. (011)740-9494



◇주말 시민선방에서 일주일간의 번뇌를 씻어버리고, 새 삶의 정기를 되찾아보자.

1월17일 (일)

■**서옹큰스님 친견법회**=부산불교교육원은 오전 8시 30분 전남 장성백양사 방장 서옹 큰스님 친견법회를 떠난다. 화두를 받고, 참선공부하는 법에 대한 법문을 듣는다. (051)466-4080

■**금강메아리 개방산 대덕사 산행법회**=전국산악인불자연합회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는 개방산 대덕사로 1월 산행법회를 떠난다. 오전 7시 서울 동대문 이스턴호텔 앞에서 집결한다. (02)772-9517

■**영각사 극락영묘전 상량식**=시흥 영각사(주지 현법)는 오전 11시 초현대식 시설을 갖춘 공원형 납골당 영각사 극락영묘전 상량식을 봉행한다. (0345)498-7700

■**동산법당 개원 3주년 법회 및 결식아동돕기 일일찻집**=동산반야회는 동산법당 개원 3주년 법회 및 결식아동돕기 일일찻집을 3층법당에서 연다. (02)723-1206

■**서울불교청년회 소쩍새마을 자원봉사**=서울불교청년회는 소쩍새마을로 자원봉사를 떠난다. 후원금과 보시물품을 전달하고, 목욕보조, 마을청소, 주방일 등을 하게된다. (02)730-9108

1월18일 (월)

■**오대산 상원사, 월정사 참배**=용진신행회는 오전 5시 오대산 상원사와 월정사 참배를 떠난다. 월정사 사시기도에 동참하고, 지장암도 참배한다. (02)279-1191

1월19일 (화)

■**대흥사부산포교원 가빈문화원 개강**=대흥사부산포교원 제2기 가빈문화원이 개강한다. 불교전통등만들기와 다도 등 다양한 불교문화강좌를 지도한다. (051)636-5114

게 시 판

♣ 알림

△**심장병어린이 접수**=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생활보호대상가정 아동중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13세이하 아동 5명을 접수한다. 수술비와 진료비 전액 무료제공. (02)571-2988

△**꽃방창업반 무료공개강좌**=신도림복지관에서는 꽃방 창업에 필요한 창업과 운영전반에 관한 무료공개강좌를 15일 오전 10시에 실시한다. (02)631-9792

△**장애인 직업적응훈련교실**=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직업활동에 필요한 기능과 사회적응능력향상을 위한 사회기술훈련을 지도한다. (0443)652-0900

△**무진법장사 주민선방 개원**=무진법장사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주민선방을 열고, 선명상 단전호흡 등을 지도한다. 회비는 3만원. (02)932-2333

♣ 강좌

△**발반사건강요법 및 향기요법**=관오사 부설 불교사회교육원(원장 지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발반사 건강요법 및 향기요법 강좌를 개설했다. 3개월과정으로 수강료는 10만원. (053)784-3669

△**청소년 겨울방학 특강**=대구수성구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겨울방학 특강을 실시한다. 자기계발, 전통문화, 스포츠, 선무도, 택견 등으로 구성돼 있다. (053)761-9400

△**참선교실 수강생**=부산불교교육원은 매주 토, 일요일 청소년 참선교실을 열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며 회비는 3만원. (051)466-44080

△**불교기초교리**=광륵사는 제2기 불교기초교리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3개월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강의하며 수강료는 3만원이다. 14일 개강. (062)222-7801

♣ 모집

△**청소년자원봉사단**=법동종합사회복지관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제4기 청소년자원봉사단원을 모집한다. 발대식은 2월 27일. (042)633-1141

△**종이접기 자격증반 수강생**=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주야간 종이접기 자격증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초급, 중급, 고급반과 직장인반 등으로 나눠 교육한다. (02)817-8052

△**생필품 후원자**=덕유사회복지관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겨울나기 생필품 후원자를 모집한다. 세제, 비누, 샴푸, 치약 등 물품후원과 후원금을 접수한다. (032)325-2161

△**결식아동 도시락 후원자**=두송사회복지관은 결식아동에게 사랑의 도시락 보내기 운동에 동참할 후원자를 모집한다. (051)265-9471

△**엄마와 함께 쿠키만들기반 수강생**=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엄마와 함께 빵과 쿠키만들기 교실을 연다. 1개월에 6만원이다. (02)282-1100

△**소년소녀가장 봉사자**=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소년소녀가장세대에 엄마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 줄 봉사자를 찾는다. 주 2회 도시락 반찬 배달과 가사업무보조등을 한다. (02)852-0525

△**결식아동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결식아동 도시락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806-1376

△**무의탁 독거노인 후원자**=연꽃마을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 독거노인 후원자를 모집한다. 무의탁노인과 결연을 맺어 매월 1만원 이상을 기탁할수 있어야 한다. (02)203-3677

♣ 답사

△**백제 역사 탐방**=답사여행의길잡이 터사랑은 백제의 역사와 유물찾기 답사기행을 떠난다. 공주무령왕릉과 국립박물관, 부여 부소산성, 낙화암, 고란사 등을 방문한다. (02)725-1284

♣ 이전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 최근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0-1번지로 이전했다. (02)928-0750

♣ 화촉

△**법보신문사 영업부 김현인**씨가 23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한강호텔 웨딩홀 5층 다이아몬드홀에서 김애란씨와 화촉을 밝힌다.

♣ 부음

△**동국대 행정대학원 이익성 교학계장 부친상**. 고인은 구랍 29일 인천 시 서구 지천동 선영에 안치했다. (017)321-4552

종단소식

조계종

금산사종회 예산 심의

17교구본사 김제 금산사(주지 도영)는 6일 전북불교회관에서 교구종회를 열었다. 이날 종회에서는 5천2백여만원의 99년 예산을 심의하는 한편 노인복지관·성보전시관 운영의 건 등이 다뤄졌다.

백양사 만암스님 추모재

18교구본사 장성 백양사(주지 지선)는 2월1일 대웅전에서 만암스님 열반 42주기 추모대법회를 봉행한다.

태고종

연흥사 한문서당 개설

부천 연흥사(주지 지상)는 내달 1일까지 방학을 맞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한문서당을 개설한다.

천자문과 사자소학, 명심보감 등을 강의하게 될 이번 강좌는 매일 오전 9시~10시에 초등학생반, 오전 11시~12시에 중·고등학생반 순으로 열린다.

보현사 어린이 연꽃학교

청도 보현사(주지 일우)는 구랍 28~30일 사찰내 교육원에서 초등학생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연꽃학교'를 열었다. 이번 연꽃학교는 새싹불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예절교육과 불교교리강좌, 찬불가, 108배 정진, 촛불발원,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진행됐다.

천태종

청년회 동계 수련법회

총무원(원장 운덕)은 구랍 31일부터 2일까지 2박3일간 총본산 구인사에서 전국 청년불자들을 대상으로 동계수련법회를 봉행했다. 1천5백여명의 청년회원이 참석한 이번 수련법회는 청년불자들의 친목을 다지고 전국청년회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관문사 '관문법보' 창간

관문사(주지 운덕)는 사보 〈관문법보〉 창간 1월호를 선보였다.

〈관문법보〉 창간호에서는 운덕 총무원장의 법어, 권무원 신도회장의 인사말, 불·보살의 명호, 관문사 및 구인사 행사안내, 청년회 및 어린이법회 소식 등 다양한 내용이 소개돼 있다.

진각종

덕화·창원 심인당 헌공

인천 덕화심인당(주교 덕정)과 창원심인당(주교 서원)은 구랍 28,29일 각각 헌공불사를 봉행했다.이에 앞서 대구 최정심인당(주교 경일)은 24일 부설 최정유치원을, 익산 관행심인당(주교 경당)은 25일 부설 관행유치원을 각각 개원했다.

이로써 종단은 영·호남지역과 경기도 지역 포교 활성화 및 심인정법 구현을 위한 장을 마련하게 됐다.

총금강회장에 백진호씨

총금강회는 구랍 24일 대구 진각문화회관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총금강회장으로 백진호씨(시경심인당)를 선출했다.

관음종

대천 종정 49재 봉행

종정 대천 대종사 49재를 21일 오전 11시 논산 관음사에서 봉행한다.

총화종

강릉서 해맞이 기원법회



총무원(원장 남정)은 1일 강릉 전등사에서 해맞이 신년기원법회를 가졌다.

제2 건국과업과 국태민안 기원을 위해 마련된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남정스님, 전등사 주지 광오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3천여명이 참석했다.

일승종

새해 예산 12억 책정

중앙종회(의장 혜덕)는 구랍 28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정기종회를 열고 신년예산 11억9천2백50만원을 확정했다. 이날 종회에는 24명의 종회의원 중 19명이 참석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특보

불치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
우환과 액운으로 고통받는 가정에
건강과 행복, 출세를안겨주는
신비로운 민간요법

명당자리 氣 요법

·제조원 : 이명무 오링테스트 연구회
·판매원 : 기원정사 천도원(세정개발 주식회사)
·주 문 : ☎ 052) 223-0491~2
☎ 052) 249-8751

♦우울증, 치매, 정신병, 간질, 근무력증, 만성피로, 원인불명질환, 중풍, 언어장애, 난청이명, 불면 증, 불임증, 당뇨병, 축농증등 현대의학으로 치료 안되는 환자, 사업실패, 불운, 가정불화, 비행청소년, 기타 우환과 액운이 따르는 사람에게 권합니다.

명당자리 요법이란?

▶ 묘지요법 (영혼천도 및 묘지 명당 만드는 법)
▶ 유해전자파 중화요법 ▶ 찜질 및 목욕요법 등

현대 의학과 민간요법을 조화시켜 종합적으로 대처함으로 치료 효과를 극대화 시킨 합리적인 요법이다.

특히,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 만성병, 불치의병, 원인 불명의 질환이 거의 대부분 조상의 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이명무 약사가 오링 테스트를 통하여 세계 최초로 확인하여 임상적으로 증명하였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종합적인 명당자리 요법을 통하여 정신병 환자가 호전 반응을 일으키고 치매, 신근 경색증 환자가 양호한 상태로 변화되는 등 실제 임상을 통하여 입증시킨 새로운 학문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며 다가오는 21세기의 의학계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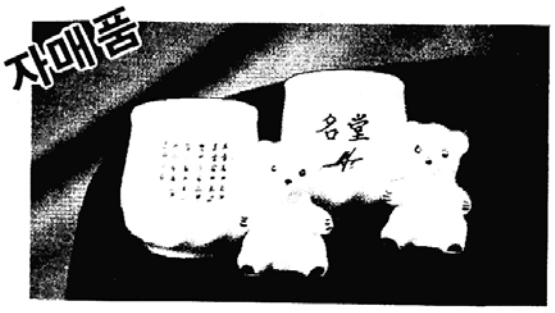
상표등록출원 23461호

도자기



▲ 조상을 편히 모셔드리는 명당도자기

자매품



★ 명당컵
① 명당컵을 TV위에 올려 놓거나 전자렌지, 냉장고 안에 넣어 두면 신비로운 氣의 작용에 의해서 유해전자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② 명당컵에 물을 담으면 건강수가 되고, 그 물을 이용하여 찜질 및 목욕을 하면 합액순환이 잘되어 피로회복은 물론 피부가 부드러워진다.

■ 묘지 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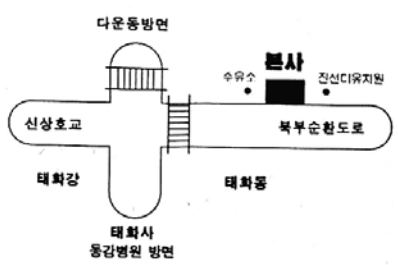
풍수지리설을 근거로 하여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명무 약사가 세계 최초로 연구하여 조상의 묘가 잘못되면 실제로 그 후손이 나쁜 기를 받아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고 사업실패, 영업부진, 불운과 가정불화, 비행청소년 기타 예고없는 사고등 액운이 따르므로 이런 사람은 지체없이 고인의 묘지에 명당 도자기를 묻어 주거나 유골을 모시면 고통받는 영혼이 완전히 편안한 영혼으로 변화되어 후손들의 질병도 치료되고 당대 발복하여 행운이 따라와서 출세를 누릴 수 있는 불가사의한 치료법이다.(특히, 객사죽음, 화장한 영혼은 한이 많은 영혼이라서 천도가 잘 안되지만 명당도자기 요법으로 100% 천도가 됨)
유해 전자파 중화요법, 찜질 및 목욕요법, 건강 식품 요법 등은 위 상품란에 참고 하시고 상세한 것은 전화 문의나 시중 서점에서 이명무 지음 「신비의 오링테스트와 명당자리 기요법」을 구입해 참조 하시기 바람.

전국 시·군·사찰지사 모집

◐「남여 불문 선착순 계약」

주변에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신도가 없는지?
갖은 노력을 해도 실패만 거듭하는 신도는 없습니까?
스님들을 통해서 그 효력이 100% 발휘되는
명당자기 기요법!! 놀랍고 불가사의한 비전!
신비로운 작용, 그 전부 입니다.

● 「불황에도 투자액의 배액이 보장된다.」
● 독점 품목이다.
● 투자에 대한 위험이 없다.
● 신도들의 서원을 100% 충족시킨다.
● 간편한 방법으로 영가 천도는 반드시 된다.



※ 불가비법 원법(圓法) 접수함.

"화천장날엔 안굶는다"

화천불교련 1년째 노인 무료공양
주민들도 쌀·김치·석유등 내놔

강원도 화천의 5일 장터. 새해 첫 장이 열린 3일 오전 10시 옛 문화원 강당은 앞치마를 두루고 팔을 걷어부친 비구니스님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신년연휴에도 자원봉사자로 나선 보살들은 구수한 재담을 섞어가며 능숙한 솜씨로 국수를 삶고 반찬을 척척 만들어 낸다. 스님들은 문화원입구를 말끔히 청소하고 시장쪽을 바라보며 노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화천군불교연합회(회장 해은·금강사주지)가 실시하는 '장날마다 노인들을 위한 무료점심공양'에 나온 자원봉사자들은 "새해에는 어르신들의 입맛에 맞는 맛깔나는 공양을 대접하자"며 새로운 다짐을 한다.

화천군불교연합회의 '장날 노인들을 위한 무료점심공양' 현장이다.

산골노인들에겐 겨울이 유난히 춥고 길다. 자식들은 도회지로 떠났고, 농한기여서 쓸쓸함, 소외감, 허탈함이 배가되는 계절이다. 특히 화천은 휴전선 접경지역이어서 실향민들이 많다. 이들의 그리움은 더욱 진하다. 때문에 산골노인들에겐 장날 시장구경이 유일한 외출이자 즐거움. 그러나 문제는 점심공양. 쌈짓돈을 털어 버스요금만 마련한 노인들은 이웃집 젊은이를 만나지 못하면 점심공양을 거르기 일쑤다. 음식점을 지날 때마다 주머니속의 동전을 세어 보지만 점심 한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결국 노인들은 굶주림으로 굽은 허리를 더 굽혀가며 시장구경을 하다 파장이 돼서야 집으로 발걸음을 돌린다. 불과 1년전 화천장날 노인들의 모습이었다.

노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장날이 '굶는 날'로 전락된 것.

이같은 사정을 안타깝게 여겨오던 화천군불교연합회는 97년 12월부터 장터 구경을 나온 노인들을 위해 무료점심공양을 시작했다. 화천군청의 협조로 폐쇄된 문화원을 무료로 임대 받았고 금강사 금용사 약수암 금호사 등 5개 사찰이 십시일반으로 음식을 준비했다.

사찰이 시주만 받기 보다는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우선 장날 시장을 찾는 노인들을 돕기로 한 것. 장날 노인무료공양을 한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지역민들의 온정도 잇따르고 있다.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 산나물값을 깍는 아주머니, 심지어 몇몇 노인들까지도 선뜻 주머니를 털어 쌀 국수 멸치 김치 양념 가스 석유 등을 내놓는다. 이들의 작은 정성이 화천군내 노인들에겐 커다란 감동으로 다가서고 있다.

시계바늘이 정오를 지나면서부터 문화원을 찾는 노인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30여분도 안돼 문화원은 노인들로 가득 메웠다. 정감있는 노인식당으로 변한 것. 스님들은 '지난해 오시든 분이 또 오셨나, 처음 찾은 분은 안계신가'를 살피면서 노인들에게 새해인사를 건넨다.

국수 두그릇을 순식간에 비우고 시장을 향해 빠른 걸음을 걷고 있는 할머니, 스님을 향해 어설픈 합장을 하며 고맙다는 할아버지 등 다시 장터로 나서는 노인들과 스님들의 모습에서 산골 장날의 훈훈한 기운이 피어 올랐다.

회장 해은스님은 "사찰들이 대부분 규모가 작아 시작할 때는 벅찬 일이라 여겨지기도 했지만 1~2회 지나면서 자리를 잡을수 있었다"며 "어려운 가정경제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내주신 군민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화천장날마다 열리는 노인무료공양 행사. 매번 2백여명이 모여 식사를 하며 정담을 나누는 풋풋한 만남의 장이다.

뉴스 & 뉴스

군법당위문·수계법회

조계종 서부경남포교사회(회장 이호경)는 구랍 27, 28일 각각 삼천포인근 군법당인 백호정사와 용호정사에서 송년위문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에는 계사 성각스님을 비롯 포교사회원과 군장병 등 5백여명이 참석했으며, 두 군법당과 서부경남포교사회가 자매결연을 맺고 군장병들의 법회지원과 불법홍포에 서로 노력키로 했다. 정성운 기자

네팔 의료자원봉사자 모집

가족아카데미아(회장 이근후박사, 이대병원)는 제1회 네팔 의료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가족아카데미아 네팔봉사단은 2월1일부터 11일까지 현지에서 의약품과 비타민회원이 기증한 성금으로 구입한 약품을 제공하고 폭넓은 가족봉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한편 봉사일정 동안 모두 6회에 걸쳐 역동적인 메디테이션에 관한 학습도 하게 되며, 네팔 성지 순례와 중요인사 1백명을 초청한 친선 리셉션도 갖는다. (02)760-138

위영란 기자(yryui@buddhapia.com)

대전 비룡산악회 창립

대전 비룡산악회(회장 이제상)는 10일 창립법회 및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행사에는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손현수회장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손현수회장은 비룡산악회 이제상회장에게 임명장과 회기를 수여했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연꽃마을에 위문품 전달

금강메아리산악회(회장 윤부윤)는 구랍 30일 노인복지시설인 연꽃마을을 방문하고 쌀 5가마등 부식일체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혜명법사와 윤부윤회장 성종욱부회장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향지모음, 5사단 위문

연천 향지모임(회장 양춘연)은 10일 5사단을 방문하고 장병들을 위문했다. 이와함께 연말연시를 맞아 의정부 안국사 학생들을 위로방문하고 소년소녀가장 25명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향지모임은 이에앞서 불우청소년과 군장병 위문을 위한 일일찻집을 개최했었다. 김원우 기자

훈할머니 외손녀 대학간다

훈할머니 외손녀 잔니양(19)이 오는 3월 영남대학교 사회과학부에 입학한다. 잔니양은 훈할머니돕기 불교후원회(부회장 강인성·최봉태)등의 주선으로 영남대학교에 특례입학해 우리나라의 언어와 풍습은 물론 사회과학에 대해 배우게 됐다.

한편 캄보디아에 머무르고 있는 훈할머니는 잔니양의 입학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3월초 귀국할 예정이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이웃을 돕는 사람들 '제2 아침을 여는집' 15일 성북동에 연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산하 이웃을돕는사람들(이사장 김동흔)이 서울 성북동에 노숙자 숙소인 '제2 아침을 여는 집'을 운영하게 됐다. 그간 주민들의 반대로 장소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오던 이웃을돕는사람들은 구랍 30일 주민들과 최종 합의함으로써 으는 15일부터 노숙자 숙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성북구청 뒤 성균빌딩에 마련된 이 숙소는 60여평 규모로 방과 목욕탕 부엌 등을 갖추고 있으며, 30여명의 노숙자들에게 잠자리와 급식을 제공하게 된다.

이웃을돕는사람들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에 노숙자 숙소 지원금(1억여원)을 신청한 24개 단체가 운데 유일하게 지원단체로 선정됐으나, 님비현상에 부딪혀 그동안 장소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전문포교사 팀장회의
조계종 포교사단, 16일

조계종포교사단은 16일 오후5시부터 대전중앙불교회관에서 전국 29개 전문포교사팀장회의를 열고 새해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포교사단은 지난 해부터 실시된 포교사 전문화 사업을 평가하고, 팀 구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또 3월 새로 품수받는 포교사의 전문분야별 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포교사단은 지난 해 6월 포교사전문화를 위한 워크숍을 두 차례 열어 군, 청소년, 어린이, 교도소, 경찰서, 장의염불 등의 분야에 29개 전문포교사팀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추락경찰 돕기 모금
전국교사불자연합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가 구랍 23일 정화회의 총무원 청사 퇴거 집행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경찰들기에 적극 나섰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서울 경기 인천지부 임원단 10여명은 6일 서울대병원과 국립경찰병원 등에 입원해 있는 권병주 신재경 김민영 임낙규 황상만 경장을 차례로 방문하고, 즉석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권병주 경장을 돕기위한 모금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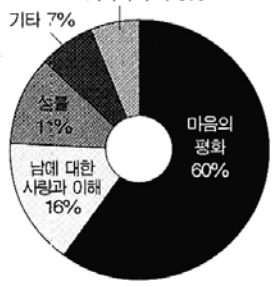
국민은행 023-21-0780-927 예금주: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임완숙 도필선 기자

"불교믿는 까닭 마음안정" 60%

월간 여성불교, '여성불자 의식' 설문

여성불자 대부분이 불교를 신앙하는 목적과 불교가 가장 도움을 주는 부분을 '마음 다스리기'라고 밝혀, 여성불교=기복불교라는 등식을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이는 도선사에서 발간하는 월간(여성불교)가 창간 21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내 6개 사찰 총416명의 여성불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성불자의식'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결과다.



불교를 신앙하는 목적에 대한 물음에 마음의 안정을 위해 불교를 믿는다는 대답이 36%로 가장 많았다. 불교가 자신에게 가장 도움을 주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마음의 평화(60%), 남에 대한 사랑과 이해(16%), 성불할 수 있다는 믿음(11%), 가족의 무사(6%) 순으로 응답했다. 불교발전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로 25%가 포교활동을, 24%가 사회봉사활동이라고 답해 여성불자들이 포교나 사회봉사활동을 자신들의 몫이라고 믿는 능동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 가운데 43%가 불교를 믿게 된 계기를 자라온 환경때문이라고 답했고, 시댁의 종교를 따라 불교를 믿게 된 것이 16%, 10.4%가 친구의 영향으로 불교를 믿게 된 것으로 나타나 가정내에서의 종교적 분위기가 개인이 한 종교를 선택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불교가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90.6%의 응답자가 도움이 된다고 말했으며, 행복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76%가 행복하다고 답했다.

불교와 무속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41%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대답했고, 철학관이나 무당을 찾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48.7%가 절에 다닌 후 부터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범불교재가연대 순회토론회

부산·대구·대전·광주順

불교바로세우기 범불교재가연대가 8일 부산 금정불교회관에서 열린 부산지역 토론회를 필두로 '98년 조계종 분규 원인과 해결방안' '지속적 개혁을 위한 과제' '재가불자들의 책임과 역할' 등을 되짚어보는 제1차 지역 순회 토론회를 시작했다.

재가연대는 9일에는 대구 보현사에서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16일에는 대전 중앙불교회관에서, 23일에는 광주 향림사에서 순회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재가연대는 토론회와 함께 폭력승 퇴출과 사찰재정 투명화를 위한 서명운동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은자 기자

중신회 2월중 새회장 선출

조계종 중앙신도회 새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대의원총회가 2월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한곤 공동회장직무대행은 4일 "3월 중순이 송재건 전회장의 임기가 끝나므로, 이에 맞춰 새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라며 "2월경 대의원대회 소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신도회는 총무원 새집행부 출범에 따라 신년인사의 형식을 빌어 총무원과 새 회장 후보, 대의원총회의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토록 돼있다. 회장은 신행경력 10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신도오계 수지자여야 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지난 해 2월 송재건 당시 회장의 돌연한 사퇴로 1년 가까이 회장 공석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회장직무대행 적법성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기도 했다. 정성운 기자

조계사사태 구속자석방
대책위, 청와대등 탄원

12·23 조계사 사태 구속자석방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진관 지원 효종스님)는 6일 청와대를 비롯해 박상천 법무부장관, 김태정 검찰청장, 구속자 담당 검사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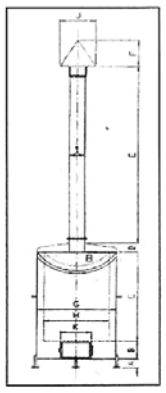
구속자석방대책위원회는 김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부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들이 참회하고 반성하면 이들에게는 '용서'라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며 12·23 조계사 사태로 인한 구속자들의 선처를 부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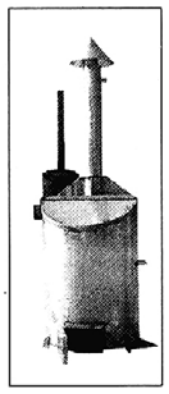
한편 구속자석방대책위는 7일 본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발표한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참사회 건설을 위한 첫걸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필선 기자

사찰 쓰레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적은 매연, 완전연소로 소각하십시오.

대용 하향식 소각로

대용 하향식 연소방법 소각로란?





1)과학적 설계로 제작된 상부에서 하부로 연소되므로 동시에 많은 양을 투입하고 소각하여도 오나전 연소되어 매연이 적다.
2)밀폐된 상태에서 소각하기 때문에 화재나 안전사고가 없다.
3)연소중 관리가 필요없고 이동이 용이하다.
4)소각로의 재질이 스텐레스(SUS) 316(표준형)으로 제작되어 영구적이다.
(특별 재질 주문 제작 가능. SUS 309, 310, 304, STEEL)
5)특히 산야등 산불의 위험이 있는 관광사찰

※ 실용신안, 의장등록 출원중 ※

모델명	재 질	금 액
DY-1	SUS316	₩1,250,000
DY-2	SUS316	₩ 850,000
주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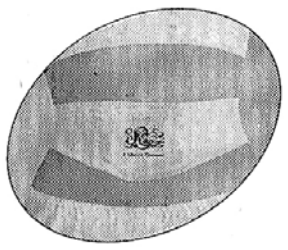
제조원: 대용 엔지니어링
서울 강서구 공항동 664-13

판매·문의 02)3673-2680 / 745-8503(실상선원)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皿)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팬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제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신행수기 당선작 (현대불교 사장상)

나를 일깨워 주신 부처님

원만심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그림 · 문병성

몇 해전의 일이다. 나는 병고로 몇 년간 고통을 받았었다. 찾아 다닐만한 병원과 병을 고쳐 준다는 곳은 다 찾아 다녔으며 그 사이 좋다는 약 또한 이루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접해 보았다. 그러나 신경과민과 만성위염이라는 병이 있는 나를 고쳐 줄 의사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심해지고 신경은 더 날카롭게 변해 음식조차 거부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병원에 입원도 해 보고 응급실에 실려 간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불심이 돈독하신 어머니는 애원하다시피 나에게 부처님을 찾아가서 기도 한 번만이라도 해 보라고 하셨다. 하지만 금방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았다.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무섭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어머니 말씀대로 절에 가서 기도나 해 보고 죽자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매달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건강하기만 하다면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하고 기도했다. 그러나 그때는 물조차 소화를 못시킬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있던 때였다. 그래도 백일기도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집에서 가까운 봉은사를 기도처로 정하고 새벽 3시30분에서 4시 사이에 절로 향했다. 그러면서 좌절도 하고 또 일어서고 마음 속으로라도 백일을 채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 하고 싶다.

17년 전 일이다. 막내아들이 다섯 살 때였는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그때 당시 아들은 삼륜차 밑에 깔리게 되었는데 목격자가 나에게 연락을 했다. 성모병원 응급실에 빨리 가보라는 것이었다.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해주지 않고 무조건 가보라는 말 뿐이었다. 어찌된 영문인지도 모른채 병원 응급실로 갔다. 아마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내가 놀랄까봐 그랬던 것같다.

옆에서 본 사람들은 아이가 허리도 부러지고 뇌도 다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들 했다. 정신없이 도착한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정말 이상한 아이라면서 보호자 되느냐고 물었다. 엄마라고 대답했더니 간호사는 "관세음보살님이 뭐예요?" 하고 물었다. 아이가 관세음보살님을 계속 중얼거리더라는 것이다. 할머니가 매일같이 관세음보살님을 염불해서 다마도 은연 중에 배웠던 것같다고 말해줬다. 그때만 해도 나에게는 불심이 없었거니와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보살님이라는 것조차 전혀 몰랐기에 대답을 해주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심하게 다친 것 같다던 아이는 바지의 무릎부분이 찢기고 피가 나는 상태였을 뿐이었다. 아이를 겨우 달래서 뇌촬영 및 모든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아무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때까지도 사고 운전사는 마음을 졸였던 모양이다. 경찰에 신고도 안했지만 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으니 가해자 입장에서 무척 걱정을 했을 것이다. 가해자 쪽은 치료비도 못 낼 정도여서 내가 치료비를 내고 우리애가 걱정을 끼쳐 도리어 미안하다고 했더니 사고 운전사 부인이 나를 붙잡고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린 기억이 난다. 철없이 뛰어다니며 놀기만 좋아하던 어린 아들이 지나치면서도 할머니의 염불소리를 기억했다는 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 사고는 관세음보살님을 주불로 기도해 보겠다는 발심을 하고 백일기도를 끝까지 마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었던 것이다.

아픈 몸을 이끌고 백일기도를 끝내도 큰 차도는 없었지만 마음에 의지처는 생겼다. 나의 기도가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아마 나처럼 부처님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던 중 또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지만 나는 관세음보살님을 잊지 않고 정근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었다. 병원에 누워 있을 바에야 법당에서 기도를 다시 시작하자 아직 법당에서 죽은 사람은 없을테니 하는 마음으로 법당을 찾기 시작했다. 덕분에 많은 보살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즈음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나는 사고 직전 30분 전에 그곳을 다녀왔다. 그 참사의 현장을 피할 수 있어 나는 부처님과의 인연으로 살아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저지른 죄로 많은 무고한 희생자를 냈다는 것에 울분이 터지지 않을 수 없었다. 난 그래도 운명을 피할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백일기도 중이었지만 나는 절에 나갈 수가 없었다. 현장에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섰다.

그때 당시 사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해내던 119구조대원들의 모습은 관세음보살님으로 보였다. 내 목숨 버리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겠다고 땀냇을 가리지 않는 현장을 본 나는 비켜설 수가 없었다. 마음이 우울해 법당에도 못 나갔다. 나도 무언가 도와야겠다는 마음에 봉사하는 것도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 인연있는 보살들에게 전화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좋은 인연 속에 공덕을 짓고 봉사하지 않겠느냐고…. 부처님 사상은 자비보시라 하였는데 실천으로 옮기자고 하였더니 보살들이 속속 모이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때 살아 숨쉬는 불교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돈치장이나 하는 사치스러운 모임이 아닌 동체대비 보살심으로 솔선수범하여 나선 그때를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내 건강도 완쾌되기 시작했다.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는 가족들이 봉사를 받아야 할 입장이라며 반대를 했었다. 우리는 봉사 마지막날 현장에서 숨져간 영혼들을 위해 공양물을 준비하여 5백여명이 영가 천도재를 지내게 됐는데 나의 백일기도 역시 이 곳에서 회향하게 되었다. 우리 봉사자들은 어디를 가든 부처님 생각을 하며 살자고 다짐하고 아무런 기약없이 아쉬움만 남긴채 서로 헤어졌다.

나는 건강이 완쾌되면서 봉사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기쁨을, 외로운 이들에게는 다정한 말 한 마디가 큰 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 봉사자들에게 다시 만나 봉사를 하자고 했더니 모두들 기다렸다는 듯이 또 만나기 시작하여 지금 현저 '십우회'라는 봉사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만나는 장소는 거리를 법당으로 또는 비닐하우스를 법당으로 삼아 법회를 갖고 큰 법당에서 만나는 기쁨보다 더 신심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계속〉

"건강만 하다면 무슨 일이든…" '삼풍' 붕괴현장서 백일기도 회향

"고통받고 외로운 이들에겐 말 한마디도 보시임을 알았다"

HOME 홈TV인터넷(주) http://www.home.co.kr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91-6 상경빌딩 3층
전화 02)2295-6660/ 02)2295-6669

"불교 정보화의 새로운 출발"



TV인터넷의 사찰 전산화

- 기존TV에 단말기 연결
- 컴퓨터를 몰라도 간단한 리모콘 동작으로 인터넷 가능
- 불교계 뉴스를 현재시간으로 확인
- 국내외 인터넷 정보 사용 및 불교정보 검색 가능
- 사찰에서 TV를 통한 인터넷 접속 및 전자우편 확인
- TV 인터넷을 통한 설법 듣기 가능
- 신행상담/불법공부/신도와의 대화가능
- 뉴스,홈쇼핑,경제,문화등의 다방면의 실용 정보 제공
- 화면 칼라 프린팅 지원
- 불교신자들 간의 대화 공간 제공을 통한 네트웍 형성

TV인터넷의 강력한 기능

- 비디오와 같은 손쉬운 연결
- 전화선을 이용한 PC통신보다 20배 이상 빠른 고속 인터넷 접속
- 마우스가 내장된 무선키보드를 기본 제공하여 사용의 편리성
- 인터넷망을 이용한 운영체제(OS)자동 업그레이드
- 지루한 부팅 시간없이 5초내 단시간 인터넷 접속
- 고장의 염려없이 뛰어난 안정성
- 기존의 TV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성 및 뛰어난 공간활용성

• 전국지사 및 대리점 모집합니다

세계최초!!! 위성인터넷 실시

- 홈 TV 인터넷이 불교계에서는 세계최초로 전국 사찰에 무궁화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TV 인터넷은 위성 인터넷을 이용 최신의 불교정보를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 서비스 지역의 제한이 없습니다.
- 최고 3Mbps의 초고속 위성인터넷 서비스를 불교 정보화를 위해서 홈 TV인터넷이 제공합니다.
- 희망하시는 사찰이나 신도분들에게 위성수신 안테나를 아주 저렴한 비용에 임대해 드립니다.



⊙ HOME TV INTERNET 구성 : 기존 TV + 수신기 + 무선키보드,마우스 (수신기 가격 : 395,000원, 부가세 별도)
⊙ 인터넷망 : 케이블 TV, ADSL, ISDN, LAN, 전화선

• 사찰정보화 협력업체
(주)현대불교신문사 : 02)737-8881(대표)
부다피아 직통 : 02)732-1520

TV인터넷 협력기관 현대불교신문사, 중앙일보,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슬빛미디어, (주)방원, 제노시스템, IBKorea, IBCanada, 서울은행, 한국족보신문사, Kweather, Webkiosk, 교학사, 우리교육사, 오토마트, 한국인터넷TV금융정보, 마루시스 유한C&T, 한국디지틀포럼, 코리아인터넷, 옥니비젼레코딩, 시티넷, 조이스타컴럽, 다우시스템, 고나아 정보통신, ICN인천방송, 멀티스콜&넷, 월간유아, 테크월드, 마이크로비전, 에이디시스템, 월드크레프트, 제우스엠텍, 하나엔지니어링, 정일엔지니어링, 대흥정밀, Z-ram, 사주도사, 한솔디자인, 성동초등학교, 한국기독교인터넷방송, 인터넷 해적 프라자, FIX 프로덕션, Kitel, 서울대논술연구회, 뉴스클리핑, 인터넷의료정보